

2014년도 제18차 정기(제19차) 총회

2014년도 제18차 정기 총회 자료집 (제 19차 총회)

일 시 : 2014년 1월 23일(목) 19:00~21:0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2014년도 제18차 정기(제19차) 총회

2014년도 제18차 정기 총회 자료집 (제 19차 총회)

일 시 : 2014년 1월 23일(목) 19:00~21:00

장 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차 례

■ 정기총회 순서	2
■ 제17차 정기(제18차)총회 회의록	3
■ 2013년 감사 보고	9
■ 2013년 사업보고 및 평가	15
I. 사업 총평	17
II. 사업보고 및 평가	21
1. 조직 사업	21
2. 평화·통일 사업	29
3. 정보·홍보 사업	53
4. 회원 사업	56
5. 재정 사업	58
6. 연대 및 협력사업	59
7. 부설 갈등해결센터	79
8.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28
■ 임원 인선안	135
■ 2014년 사업계획안	139
I. 2014년 사업기조 및 방향(안)	141
II. 2014년 사업계획(안)	142
1. 조직 사업	142
2. 평화·통일 사업	144
3. 정보·홍보 사업	145
4. 회원 사업	145
5. 재정 사업	145
6. 연대 및 협력사업	145
7. 부설 갈등해결센터	146
8.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148
■ 부록	151
평화여성회 정관	153
평화여성회 조직 현황	162
2013년 설명서 목록	163
2013년 발간자료 목록	252
회원가입서	253

정기총회 순서

I 부 회원등록 및 식사 나눔, 인사와 먹담나누기 (오후 6:00 ~ 오후 7:00)

II부 본 회의 (오후 7:00 ~ 오후 9:00)

1. 개회선언
2. 이사장 인사말
3. 서기임명
4. 성수보고
5. 회순채택
6. 전차회의록 낭독
7. 2013년 감사보고
8. 2013년 사업보고와 승인
9. 2013년 결산보고와 승인
10. 임원 선출
11. 구·신 임원 인사
12. 2014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승인
13. 2014년 예산안 보고와 승인
14. 기타 토의
15. 모범 회원상 수여
16. 회의록 발음
17. 폐회

전 회의록 낭독

제17차 정기(제18차)총회 회의록

□ 서기: 김영진, 이덕경

1. 일시: 2013년 1월 24일(목) 19:00 ~ 21:20

2.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3. 주요내용

- 1) 개회선언 : 여혜숙 의장이 오후 7시 개회 선언을 하고, 정기총회를 시작하다.
- 2) 서기 임명 : 김영진, 이덕경 회원을 총회 공동서기로 임명하다.
- 3) 성수보고 : 김지호 총무가 재적회원 53명 중 참석 22명, 위임 7명, 총 29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여혜숙 의장이 정관에 외거 성회되었음을 선언하다.
- 4) 회순제대 : 여혜숙 의장이 자료집의 회순을 낭독하고, 김성은 이사장이 동의, 권정옥 회원이 제청으로 모두 가하여 받기로 하다.
- 5) 전차회의록 낭독 : 김영진 회원이 요지를 낭독하다.
- 6) 격려 인사 : 김금옥 여성단체연합대표가 격려 인사를 하다.
- 7) 임시 안건 : 임시 사업감사 선임 인준의 건
박수선 회원이 동의, 김선훤 회원이 제청하여 받기로 하다.
- 8) 감사보고 : 김선훤 회원이 대독하다. 안정애 회원이 사업감사원이 2012년으로 잘못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2013년으로 수정하여 받기로 하다.
- 9) 안건논의 :

안건1. 2012년 사업보고와 승인에 관한 건 : 총회 자료집 17쪽에서 88쪽을 토대로 최민정 회원이 영상으로 요약보고하다. 박애경 회원이 총회 자료집 19쪽 사업방향2 중에서 '북의 여성과 명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질문하여 김정수 공동대표가 남북관계 정세으로 모금액은 민화협에 전달한 상황임을 설명하다. 김정아 회원이 동의하고 박애경 회원이 제청한 후 모두 동의하여 승인하다. 김선훤 회원이 총회 자료집 74쪽 갈등해결센터 보고 내용 중 6) 등 권집상의 오류를 수정삭제를 요청하여 이를 받기로 하다.

안건2. 2012년 결산보고 및 승인에 관한 건 : 총회 자료집 91, 92쪽을 토대로 김지호 총무가 결산보고하다. 김선헌 회원이 갈등해결센터 교부금 회비 내역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수정하기로 하다. 김정수 공동대표가 재정모금 내용에 대해 질문하여 김지호 총무가 기간이 달라 금액이 다를 것을 설명하다. 박재신 회원이 퇴직연금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확인하여 정리하기로 하다. 김성은 이사가장이 안대로 받기를 동의하고 박수선 회원이 제청하여 모두가 동의하여 승인하다.

안건3. 임원 인선안 : 조영희 인선위원회 위원장이 인선위원회 활동과 총회 자료집 95, 96쪽과 같이 임원 인선안을 보고하다.
 신임이사로 권점옥, 이나영, 정경란 이사와 공동대표로 정경란, 신임감사로 윤수경, 배삼희, 평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장으로 김정수를 인선하는 안에 대해 박수선 회원이 개별처리할 것을 제안하여 반기로 하다. 박재신 회원이 총회 자료집 96쪽에 정책위원장의 임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여 수정하기로 하다. 정경란 회원의 출마의 변을 듣고 찬반을 묻은 후, 거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권점옥 회원의 출마의 변을 듣고, 정경란 이사가 이나영 이사후보에 대해 소개한 후,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윤수경, 배삼희 감사에 대해 여혜숙 의장과 정경란 이사가 소개한 후,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김정수 평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변을 들은 후, 만장일치로 통과하다.

안건4. 2013년 사업계획 및 승인에 관한 건 : 김정수 공동대표와 김선헌 갈등해결센터소장이 총회 자료집 99쪽부터 107쪽을 토대로 2013년 사업계획안을 보고하다. 조영희 회원이 총회 자료집 102쪽 정책위원회 역할 중에서 '조정한다'는 삭제할 것을 요청하여 삭제하기로 하다. 정현백 이사가 새정부와 정세에 대해 대중적 접근의 필요와 실천에 대해 제안하다. 김정아 회원이 동의하고, 김선헌 회원이 제청하여 사업계획안을 승인하다.

안건5. 2013년 예산안 승인에 관한 건 : 김지호 총무가 총회 자료집 111쪽을 토대로 예산안을 보고하다.
 박재신, 조영희 회원이 갈등해결센터 10주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제안하다. 김정아 회원이 동의하고, 권점옥 회원이 제청하고 모두가 동의하여 예산안을 승인하다.

- 10) 각종 회원상 : 최안전경 회원(비선발상), 박종호 회원(신인상), 이덕경 회원(동예 번역상), 김영진 회원(서예 번역상)에게 회원상을 수여하다.
- 11) 기타 토의 : 박예경 회원이 총회 자료집 194쪽의 회원가입서에 평생회원과 특별회원란을 넣기를 제안하다.
- 12) 회의록 발음 : 김영진 서기가 회의록을 낭독하고 정현백 이사장이 안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조영희 회원이 재청하여 모두 박수로 받기로 하다.
- 13) 폐회 : 여혜숙 의장이 오후 9시 5분 폐회를 선언하다.

2013년 감사보고

2013년 평화여성회 사업감사 보고

1. 2013년은 여성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한국전쟁 정전협정 60주년으로 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이하 '평화여성회')는 어느 해보다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들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에 관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 한미군사훈련, 북한의 3차 핵실험, 개성공단의 폐쇄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새 정부출범 이후에도 2012년의 대북강경정책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런 분위기는 2013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3년은 새 정부의 대북강경정책기조 유지를 빙미로 정치권이 종북논쟁으로 대표되는 색깔론을 이용하여 정치권은 물론이고 남한사회의 내부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사회평화와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을 확산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여성회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60년을 여성의 경험을 통해 성찰하고 분석하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과 비전을 모색하였으며, 또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연 안보리 결의 1325호(이하 '1325호') 이행을 위해 <1325호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서 활동하면서 여성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협력과 같은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1325호 이행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여성회는 인력, 물적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보 및 홍보사업과 회원사업을 지속하고, 중요한 이슈에 대응한 기자회견과 캠페인활동, 작년에 이어 계속한 통일임원 옷놀이세트 배포, 평화힐링캠프와 평화기행의 개최, 학교폭력예방과 해결을 위한 토론회정교육과 훈련, 지역사회의 평화커뮤니티 운동, 회복적 정의 실천 등을 통해 비록 평화문화를 확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여러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3. 특히 한국전쟁 정전협정 60년을 맞이하여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활동제

개와 연구 활동은 시의 적절하였으며, <1325호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서 정부가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협의체'를 조직하도록 제안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여성, 평화, 안보 분야에서 정부와 여성단체의 협의체가 수립되도록 기여한 활동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에는 1325호 이행을 위한 다양한 계도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와 모색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평화여성회의 자체평가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향후 2014년은 1325호에 대한 평화여성회의 전문성 강화, 일반 여성의 인식제고와 관련한 대 중화,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1325호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의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 그리고 반씩, 탈원전활동은 그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도에 비추어 성명서 참여 정도에 그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부설 갈등해결센터는 2013년에도 학교 내 자율적 갈등해결시스템인 또래조정자교육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교사와 학부모 대상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서 평화커뮤니티 활동을 모색하는 주체를 형성하였고, 지역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쟁간소음 등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시도한 것은 일상에서의 평화 활동으로서 좋은 사업 활동으로 평가됩니다.
5. 2013년 평화여성회는 전반적으로 사업구조와 방향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잘 진행하였으며 다만 소통부재와 대북강경정책기조를 더 강화하고 있는 현 박근혜 정부 하에서 앞으로 평화여성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음을 인식하고 제한된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조직역량에 맞게 적절한 선택과 집중으로 더욱 앞장 역할 수행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4. 1. 19.

감사 배 삼 희



감사 윤 수 정

(81) 4 72

2013년 평화여성회 회계감사 보고

감 사 보 고 서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귀중

1. 2013년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본 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회계감사를 한 결과 금전출납부(액설문서), 목별원장, 수입지출결의서와 영수증이 잘 구비되어 있고, 통장과도 일치하므로 이상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2. 권고사항

2-1 회계규정의 제정을 권합니다.

일반적 회계규정을 준용하되, 평화여성회의 규모에 맞고, 적은 인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권합니다 (예: 예산전용 액수, 일정 규모 액수 이상의 사업시 전직서 받기 등)

2-2 장기적으로 복식회계를 권합니다.

현재 규모로는 단식회계만으로도 충분하나 규모가 커질 것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복식회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결산서의 항목 등 조정, 수정할 것을 권합니다.

결산서 항목에서 사업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조정하기를 권합니다.

2-4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평화’가 깊게 또는 왜곡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평화’가 실현됩니다. 부설기관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2014년 1월 15일

감사 윤수정

감사 배삼희



2013년 사업보고 및 평가

I. 2013년 사업 총평

II. 2013년 사업 보고 및 평가

1. 2013년 사업 총평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201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60년을 맞이하여 여성의 관점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성찰하고 분석하여, 여성들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과제들을 모색한다는 기초를 수립하였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기대를 안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남북은 정전체제를 종결하기 위한 대화와 신뢰의 형성보다는 2013년 상반기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남북의 대결이 전쟁위기까지 심화되었고, 그 여파로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다가 겨우 재개되었으며, 금강산에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도 직전에 취소되는 등 남북관계는 무점을 거듭하였다. 악화된 남북관계는 북한에 대한 남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아울러 남북문제가 남한 내부의 정치에 활용되면서 증북논쟁과 같은 색깔론으로 남한사회의 내부 갈등도 더욱 심화되었다. 더욱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극단적 성향의 누리꾼들은 북한, 진보전열, 특정지역, 여성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한 폭음으로 표출하면서 한국사회의 사회평화와 사회통합 역시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어 차이의 존중이나 다름의 공존, 약자의 보호 등의 일상의 평화를 위한 가치 실천과 같은 통합과 공존을 위한 담론을 확산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평화통일 운동은 악화된 남북관계를 돌파할 동력을 크게 얻지 못하였고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나 협력도 거의 중단되었으며 인도적 지원 역시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받았던 전임정부보다도 더욱 축소되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정전협정 60년을 여성의 경험을 통해 성찰하고 분석하는 학술토론회를 통해 여성들의 지속가능한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체제의 비전을 모색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통일염원 웃음이 세르 베로, 여성대중, 세대와 성별을 넘어 소통하는 평화캠프와 평화기행 중 대중적 평화통일운동도 시도하면서 평화여성회만의 대중적 여성평화운동의 모델을 정착시키고 있다. 특별히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이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 여성시민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협

력과 같은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과 해결을 위한 모래조성교육과 훈련의 확산, 지역사회 평화커뮤니티 운동, 외부적 정서의 실현 등을 통해 비폭력 평화문화를 확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본회가 2013년 수립한 사업 방향에 의거해 지난 한 해 걸친 활동들을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들이 바라는 평화통일 미래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담론을 제시한다.” - 본회의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7월 1일 “여성과 정전협정 60년 학술토론회, 여성 정전협정 60년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정전협정이 우리사회와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성찰하고 분석하여 여성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모색하여 많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상반기 남과 북이 서로 위협적인 언사를 통해 전쟁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데 대해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지난 1년 동안 더욱 악화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환경에 대한 평가는 오는 2월 중순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전체적인 입장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 “둘째, 여성 대중과 세대를 넘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평화통일 사업을 개발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 본회가 2년 연속 진행한 ‘통일열린 웃음이세로’ 배포사업은 여러 시민단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세대가 함께 참여한 평화기행은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 평화힐링캠프는 가족단위가 참여함으로써 세대간 가족간 소통의 장이 되었고, 참여자들이 매년 재회하기를 요청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 “셋째,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평화와 결단 환경이 반영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여성시민사회의 역량개발, 민관협력의 파트너십 구축, 거버넌스의 모델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 본회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해 여성단체와 시민사회의 입장을 정립하고, 정부의 1325호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정부·의회·국제사회와 협력을 모색하는 <1325호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서 활동하면서 여성단체 역량강화 전략워크숍 진행, 국회의원과 토론회 조직,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한 필리핀 연구 방문,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여성단체의 제안서' 및 연구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여성평화리더십'을 발간하는 등 1325호 이행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성을 발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협의체'를 조직하도록 제안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여성, 평화, 안보 분야에서 정부와 여성단체의 협의체가 수립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1325호를 이행할 의지가 적어 여성,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성단체의 실제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1325호 네트워크>구성은 평화·통일·안보과제가 여성단체의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기회였다. 초기에 비해 참여한 단체의 결합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효과적인 네트워킹 방식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넷째,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 비폭력 평화문화를 형성하고 지역 사회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 조성과 평화 커뮤니티를 확산하기 위해 토래조성과 회복적 정의 등 다양한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2013년 갈등해결센터는 학교 내 자율적 갈등해결시스템인 토래조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 조직과 연대해서 활동하면서 지역에서 평화적 갈등해결의 활동 주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서 평화커뮤니티 활동을 모색하는 주체를 형성하였고, 지역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중간소송 등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시도하였다. 비폭력 평화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공동체에서 교육만이 아니라 분쟁 조정이나 회의진행 등 실제 문제 해결과정에 3자로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회원들의 공부모임이나 회원소모임, SNS를 이용한 홍보활동의 활성화등 사무국체제의 구축으로

일상적인 갈등해결센터 사업이 활성화 되었다. 아울러 갈등해결센터 1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들과 함께한 잔치는 그간 갈등해결센터의 교육과 활동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다.

○ 향후과제

- 2013년 한해 본회는 사업기조와 방향에 따라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충분한 접근을 유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조직역량에 맞게 제한된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여성대중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평화기행과 평화캠프도 더욱 전문성을 높여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청년·대학생들이 여성·평화관점의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겠다.
-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에서 <1325호 네트워크>의 사무국 역할과 민간 네트워크에의 참여와 함께 여성대중들에게 성인지적 평화통일정책과 여성참여의 필요성을 알려내고 대중적 차원, 지역적 차원의 실천과제를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 평화여성회에서 갈등해결 교육프로그램을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비폭력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II. 2013년 사업 보고 및 평가

1. 조직사업

1-1. 회 의

1-1-1. 총회

- 1) 역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사업내용

(1) 정기총회

- 일시: 2013년 1월 24일(목) 18:00~21: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성원보고: 제리회원 53명 중 참석 22명, 위임 7명, 총 29명
- 내용: 2012년 사업보고, 결산보고, 2013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임원 및 감사 선출(공동대표 추가·정경란,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김정수 등), 모범회원상수상(박종호, 최안진경)

(2) 2014년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 역할: 정기총회 준비, 설치·운영 기간 중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대행
- 구성: 여혜숙(상임대표), 김정수(공동대표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정경란(공동대표), 박유희(이사), 조영희(이사), 김선혜(부설 갈등해결센터 소장), 김영진(부설 갈등해결센터 운영위원), 김지호(총무).
- 내용
 - 1차: 11/18(월) 10:30~14:00 운영위원 위임안건(11월, 12월 사업계획 점검 등), 준비위원회 서기와 운영규칙 정하기, 준비위원회 회차별 의제 확인 등
 - 2차: 12/10(수) 10:30~14:00 12월 사업계획 점검, 2013년 사업평가, 2014년 제회
 - 3차: 1/7(화) 10:30~15:30, 2013년 사업총평 검토, 2014년 사업 기초 및 방향

검토, 2014년 사업계획(안) 점검, 총회 순서 점검, 2013년 결산보고 및 승인, 2014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등

4) 평가

- 사업보고를 PPT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하였다. 공동대표 1인이 추가로 선출되고,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이 활동이 재개된 점이 의미가 크다. 새로운 회원들의 참여가 있었다.

1-1-2. 이사회

1) 역할: 본회의 사업감행에 관한 심의 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재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구성: 공동대표와 이사, 이사 중에 호선한 이사장으로 구성한다.

○ 이사장: 김성곤

○ 이사: 권정옥, 김선혜, 김정수, 김지영, 박유희, 여혜숙, 이나영, 이락호, 정경란, 정경심, 정현택, 조영희, 최순옥, 한정숙(존칭생략, 가나다순)

3) 사업내용

(1) 1차 정기 이사회

○ 일시: 2013년 1월 9일(수) 12:30~14:00

○ 장소: 신촌 동강참치

○ 내용: 2012년 사업보고, 결산보고, 2013년 사업계획, 예산점검, 총회순서 등

(2) 2차 정기 이사회

○ 일시: 2013년 7월 1일(월) 11:00~13:00

○ 장소: 프레스빌딩 19층 프레스클럽

○ 내용: 상반기 사업 평가 및 결산 평가, 하반기 사업 계획 검토, 인사규정 개정 필요성 제안과 인사규정(안) 검토

(3) 3차 정기 이사회

○ 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12:00~14:30

○ 장소: 신촌 동강참치

○ 내용: 2013년 사업보고, 추경예산(안)검토, 임원현황 보고 및 인선위원회 구성 논의, 2014년 사업기조와 방향 논의, 2013년 결산(안) 및 2014년 예산(안) 승인

1-1-3. 운영위원회

- 1) 역할: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의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공동대표, 각 센터 및 위원회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부설기구의 장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여해숙(상임대표)
 - 위원: 김정수(공동대표), 정경란(공동대표), 김지호(총무), 김선혜(부설 공동해결센터 소장), 김영진(부설 공동해결센터 운영위원)
- 3) 사업내용
 - (1) 제1차: 2/18(월) 13:30~15:30 총회평가, 연간 사업일정 확정, 운영위 운영방식 논의 등
 - (2) 제2차: 3/11(월) 10:30~13:00 3,4월 사업보고 및 계획, 2월 결산보고, 정세 대응, 4월운영위 일정변경 등
 - (3) 제3차: 4/15(월) 14:00~16:00 4,5월 사업보고 및 계획, 3월 결산보고, 영문보로서 제작 건, 평화선언 및 평화행동
 - (4) 제4차: 5/20(월) 12:30~14:00 5,6월 사업보고 및 계획, 4월 결산보고, 경당공천제에 대한 의견수렴, 통일부 프로젝트 내용검토 등
 - (5) 제5차: 6/17(월) 14:00~16:00 6,7월 사업, 5월 결산보고, 하반기 재정방안, 이사회 개회 관련 논의 등
 - (6) 제6차: 8/19 (월) 11:00~14:00 8,9월 사업, 6,7월 결산보고, 하반기 운영위원회, 총회 날짜정하기, 인사-복무-봉급 규정 검토 건
 - (7) 제7차: 9/23(월) 15:00~17:00 10월 사업, 8월 결산보고
 - (8) 제8차: 10/21(월) 14:00~16:00 11월 사업, 9월 결산보고, 추경예산(안)검토, 총회 준비위원회 차시별 논의 안건 정하기,故이락호이사님 유족 활용 방안
 - (9) 11월, 12월은 총회준비위원회와 함께 진행
- 4) 평가
 - 정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본 회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다.

1-1-4. 사무국회의

- 1) 역할: 본 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 여혜숙(상임대표), 김정수(공동대표), 정경란(공동대표), 김지호(총무), 최민정(활동가)
- 3) 내용: 매주 월요일 오전 혹은 오후
- 4) 평가
 - 주 단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진행업무를 잘 파악할 수 있게 공유가 이루어졌고, 조직의 일정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분담하였다.

1-2. 법인·행정

1-2-1. 감사

- 1) 역할: 본 회 사업과 재정을 감사한다.
- 2) 내용
 - 2012년 사업감사: 2013년 1월 20일(김희은 한국여성사회교육원장)
 - 2012년 회계감사: 2013년 1월 18일(한국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 3) 결과: 감사보고서 참조

1-2-2. 법인사무

- 1) 목표
 - 본 회 법인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이행한다.
 - 여성평화운동의 안정적 추진과 실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한다.
- 2) 내용
 - (1) 법인 등기
 - 선임 등기이사: 김선훈, 정경란, 박윤희(연임)
 - 2013년 등기이사: 김성은, 여혜숙, 김정수, 김선훈, 정경란, 박윤희(6인)
 - 2013년 2월 12일 등기업무 완료.
 - 법무대행기관: 법무법인 다름
 - (2) 사무, 행정
 - 인사업무: 이주원(2013년 2월 1일) 입사
 - 4대 보험 가입 완료: 2013년 2월 8일
 - 상근활동가 휴가신청서 작성

- 현재 년차 사용 시 구두보고 하여 사용하던 것을 정리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휴가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에 (혹은, 사용 후 결재 받음)사용하기로 하다.
- 휴가계획서는 총무책상에 비치.
- 상급자의 휴가는 임사 첫 해는 매월 1개씩, 1년차 이상부터는 년 12개에 1개의 추가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하기휴가는 년차에 포함하여 사용한다. (1년차: 12+1=13일, 7년차:12+7=19일)

(3) 2013년도 기부금 영수증 관련

- 2012년 12월 31일 국세청에 기부금 자료제출 신청
- 2013년 1월 7일 기부금자료 내역 제출
- 2013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자에게 정보 제공
- 2013년 지정기부금 요건 공문 발송 (2/21, 통일부 발송)
- 2013년도분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순서: 로그인(공인인증서) -> 세금신고 신고분납부 -> 법인세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제출일자: 2013년 6월 14일(금)
 - 제출건수 및 금액: 186건, 95,926,376원

(4) 세무업무(반기신고 대상)

- 2013년 2월 22일: 2012년 근로소득 원천신고
- 2013년 1월 8일: 2012년 7월-12월 원천세 (기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2013년 1월 23일: 2012년 7월-12월 대입처별 세금계산서 내역 신고
- 건강보험/고용, 산재보험 2012년 보수총액 신고 (2/28)
- 2013년 7월 10일: 2013년 1월~6월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금액: 149,600원 (원천세136,000원, 지방세 13,600원)

(5) 홈페이지 레이아웃 구매

- 구매처: XE마켓 (ID:wmpeace01, pw:vudghkoo)
- 종류: 그레이포탈(프리미엄)
- 금액: 59,900원
- 구매일자: 2013년 2월 28일

(6)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 연장 신청

- 관리업체: 아사달 (아이디: wmpeace, 비밀번호:wmppwmp)

- 기간: 2013년 4월 19일-2015년 4월 19일(2년간)

(7) 출판업 변경 등록

- 일사: 2013년 9월 11일(수)

- 신청: 명등포구청(관할구청)

- 사업장 & 대표자 변경 시 변경 신고

(8) 한국문화정보사에 출판사 등록

- 일사: 2013년 11월 12일(화)~일주일 이내

- 취지: 국립도서관에 1994년 등록되어있던 출판사 관련 사항을 변경 등록하는 과정

- 내용: 평화여성회 인쇄물 발간 시 ISBN번호와 바코드 부여받아, 인쇄물에 대한 고유번호(사립 주민등록번호)를 갖는 형태임

1-2-3. 프로젝트 행정업무

1) 통일부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 사업

(1)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 가입

- 일사: 2013년 5월 8일(수)

- 금액: 49,310원

(2) 설명회 및 회계교육

- 일사: 2013년 5월 10일(금) 14:00

- 장소: 통일부 대회의실

(3) 실행계획서 제출

- 일사: 2013년 5월 13일(월)

- 방법: 우편발송 및 이메일 발송

(4) 최종보고서 제출

- 일사: 2013년 12월 6일(금)

- 방법: 우편발송 및 이메일 발송

2)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공모사업

(1) 교무신청서 제출

- 일사: 2013년 1월 11일(금)

- 방법: 우편발송 및 이메일 발송

(2) 파트너단체워크숍

- 일시: 2013년 1월 29일(화) 14:00~17:00
- 장소: 한국여성재단 1층 교육장

(3) 중간 워크숍

- 일시: 2013년 10월 2일(수) 13:30~17:00
- 장소: 한국여성재단 1층 교육장

(4) 최종보고서 제출

- 일시: 2013년 12월 10일(금)
- 방법: 우편발송 및 이메일 발송

1-3. 위원회

1-3-1. 정책위원회

-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여성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조정한다.
- 2) 구성
 - 위원장: 정경란
 - 위원: 여혜숙, 김정수, 안정애, 조영희, 유복남, 박현선, 최민정
- 3) 사업목표
 - (1) 정전 60주년 대응을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정착 관련 대응: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안보개념 정립 모색 및 연대활동 모색
 - (2)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영역 정책분석 & 평가: 정책평가(토론)회 등
 - (3)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와 파트너십 구축
 - 한국여성재단에 제출한 역량강화 프로젝트 진행
 - 1325호 여성네트워크 조직
 - 소책자 발간
 - (4) 정책회의 및 세미나: 정세동향 점검 및 정책위에 필요한 사안 세미나 등
- 4) 회의
 - (1) 제1차: 1/4(금) 11:00~14:00 2012년 활동 평가, 2013년 활동 계획 논의 등
 - (2) 제2차: 2/1(금) 10:30~12:00 세부사업계획안 검토, 한반도 정세 대응 활동 논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 검토 등
 - (3) 제3차: 3/20(수) 10:30~11:30 유연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검토, 남

북여성 협력사업 논의, 정책위원 추천 건, 갈등해결적 관점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모색 등

- (4) 제4차: 4/18(목) 10:30~12:00 갈등해결적 관점으로 한반도 문제해결을 모색,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활동, 정세대응활동 등
- (5) 제5차: 5/16(목) 10:30~12:00 '갈등해결적 관점으로 한반도 문제해결을 모색'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가지고 논의의 우선순위 정하기와 실천방안 모색 건, 필리핀 방문조사 논의 등
- (6) 제6차: 6/25(화) 10:30~12:00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공개토론회 평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 협의체(기회단) 구성에 대한평화여성회의의 입장 정리 등
- (7) 제7차: 7/23(화) 16:00~18:00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1325호 국가행동계획 내용에서 평화-통일분야 검토계획 논의 등
- (8) 특별: 1325호 국가행동계획 초안 소위 모임 8/1(목) 10:30~12:00 1325호 국가행동계획 초안 검토, 정경란, 박현선, 유복남, 조영주
- (9) 제8차: 8/27(화) 10:30~12:00 7차 정책위원회 결과에 따른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1325호 국가행동계획 내용에서 평화-통일분야 검토계획 논의 사항, 평화여성회의의 1325호 네트워크 운영논의, 정책위원회 세부사업계획 검토 등
- (10) 제9차: 12/10(화) 10:30~12:00 2013년 사업 보고 및 평가, 2014년 사업 방향 논의 등

5) 평가

- (1) 정전 60주년 대응을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정착 관련 대응: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안보 기념 정립 모색 및 연대활동 모색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한 "여성과 정전협정 60년 학술토론회"로 대체하다.
- (2)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영역 정책분석과 평가: 정책평가(토론)회 등
 -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기점으로 평가토론회를 고려하기로 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박근혜정부 1년 평가에 평화통일분야를 평화여성회가 맡기로 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대응을 논의 중이다.
- (3)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와 파트너십 구축
 - 평화여성회 차원, 1325호 네트워크 차원, 1325호 여성재단 프로젝트 진행 차원, 정부와 협력단체 등 1325호 관련 활동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가 필요

요하다.

- 자세한 평가는 2 평화·통일사업의 2-2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 계획 수립 촉구 활동 평가 참조

(4) 정례회의 및 세미나

- 8차제 회의 진행 및 소위 모임 등을 통해 정책위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 정책위원회가 안정화되다. 9월 이후 필리핀 방문 조사 및 평가워크숍 등 1325호 프로젝트 사업과 1325호 네트워크 활동에 집중되어 정책위 모임이 개최되지 못하였다.
- 갈등해결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모색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사업주체의 역량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 남북여성협력사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남북교류경험자의 협상경험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추진해보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화 되지 못했다.

1-3-2. 국제협력위원회: 2013년에는 구성하지 않음

2. 평화·통일 사업

2-1.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

<2013년 사업계획(안)>

동아시아의 경제 환경 등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조직하고 실천한다.

- 1) 군사비 감축 활동: 군사비 동결 세계행동의 날 공동행동, 5.24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 평화행동
- 2) 장전협정 60주년 대응 활동
- 3)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운동 개발 및 실천
- 4)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정책분석 활동

2-1-1. 통! 통! 통! (남북이 통하고, 세대가 통하고, 여성과 남성이 통한다)

1) 통일부 민간 통일운동 활동지원 사업

(1) 사업기간: 2013년 5월 16일~2013년 11월 30일

(2) 지원금액: 22,048,000원(지원금 2,000,000원, 자부담 2,048,000원)

(3) 사업목적:

-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의지 고취
- 전 세대 구성원의 올바른 통일역사인식 함양
- 세대 간 통일외식 및 역사인식의 차이 해소
- 세대 간, 이념 간, 성별 간의 차이 해소
-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방법 및 소통방법 학습

(4) 사업주요내용:

- 통일열원웃놀이 캠페인
- 세대공감 평화기행
- 평화 힐링 캠프

(5) 실무&진행담당: 여혜숙, 김지호, 최민정

2) 통일열원웃놀이 캠페인

- 기간: 2013년 6월~11월 중순
- 구성

- 일반용(배포용): 자체제작 웃놀이판(한반도지형모양, 손수건천, 45X45cm)
+ 웃, 웃말 + 안내서 + 포장상자
- 행사용: 대형 웃놀이판(동일 모양, 현수막천, 180X300cm)

○ 제작수량: 일반용 800세트, 행사용 웃놀이판 2장

○ 배포수량: 일반용 790세트

(어린이어깨동무, 부천시민연합의 요청에 의해 행사용으로 대형 웃판을 특별 제작하여 배송함)

○ 배포대상: 본 회 회원, 일반 개인, 사회단체, 회사, 학교, 지역네트워크 등

(본 회 부설 갈등해결센터,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안산새사회연대 일다, 부천무한도전학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어린이어깨동무, 이화여성학리더십센터, 부천YMCA, 한빛두발놀이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부천시민연합, 평생여성농업인센터, 청년여성문화원, 아이공유 프로젝트노코리아, 좋은벗들, 민족화해협력의회, 서로살림협동조합, 부산어깨동무, 수산초등학교,

마을넷축제, 마을물도서관)

- 사용용도: 평화통일 및 전통문화교육용, 마을축제 및 단체행사용, 친목놀이용, 홍보용

3) 세대공감 평화기행 “분단을 넘어 화해와 공존으로”

- 일시: 2013년 9월 7일(토) 8:30~17:30
- 장소: 파주 & 연천
- 진행참여: 여혜숙, 김정수, 김지호, 최민정
- 참가인원: 76명(주로 10~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가족단위)
- 프로그램
 - 08:10~10:00 집합 및 이동
(함정역 홀트아동복지관 앞, 개봉동 경인고등학교 앞)
 - 10:00~10:40 황포돛배타고 분단현장 돌아보기
 - 10:40~11:10 이동
 - 11:10~11:40 파주 경순왕릉 (평화통일웃놀이 예,준결승전)
 - 11:40~12:20 이동
 - 12:20~13:10 점심
 - 13:10~13:30 이동
 - 13:30~15:00 연천 열쇠전망대 (평화통일웃놀이결승전, 염서쓰기)
 - 15:00~17:30 이동 및 해산
- 장소: 이명동(민족화해협력법국민협의회 통일교육위원장)
- 평가:
 - 참가자의 기행코스과 장소선정이 적당하였다.
 - 참가자가 70여명으로 많았지만, 대부분 진행자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 진행자가 동선확인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향후에는 시간 배정을 꼼꼼하게 분배하고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을 정확하게 정하도록 하
 - 차량이 두 대로 분산되어 인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 후 기행 진행 시 차량은 1대만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평화활동으로 진행한 평화통일웃놀이가 승패가 있는 게임이기에 긴 땀은 아쉬움이 남아 전체 참가자의 참여도를 끝까지 이끌어내는 어려웠다. 향후 평화활동은 전체 참가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게임으로 진행하거나

조배치에 신중하도록 하다.

- 대형 물관의 활용도는 좋았다.
- 평화기행을 지속적인 평화여성회 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4) 평화힐링캠프 “몸으로 소통하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함께 연대하며 우리 모두 힐링”

- 일시: 2013년 10월 18일(금) 17:00~19일(토) 17:00
- 장소: 파주 흥원연수원
- 진행참여: 여혜숙, 김지호, 최민정 외 자원봉사자 1명
- 참가인원: 37명(주로 10~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가족단위)
- 프로그램

- 10월 18일(금)

- 가. 16:30~17:00 등록 및 방 배정
- 나. 17:00~18:00 저녁식사
- 다. 18:00~20:00 1강 여는 마당
- 라. 20:00~22:00 2강 몸으로 소통하기
- 마. 22:00~23:30 3강 영화로 알아보는 평화(빅미라한)

- 10월 19일(토)

- 가. 07:00~08:30 아침식사
- 나. 09:00~11:00 4강 마음으로 소통하기
- 다. 11:00~12:00 5강 역할극 & 발표
- 라. 12:00~13:00 점심
- 마. 13:00~15:00 6강 평화로운 원에 힐링
- 바. 15:00~17:00 7강 내가 만드는 평화마을꾸미기
- 사. 17:00~18:00 8강 닫는 마당

- 강사: 이권명희, 박인혜, 문정아, 손효정

○ 평가:

- 가족단위의 신청자가 많아 캠프의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았다. 향후 캠프 진행 시 프로그램의 기획에 맞춰 대상을 특화하는 것이 참여도,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아빠들의 참여가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 캠프 참가 후 가족 간의 갈등해결, 소통방법에 도움이 되었다는 참가후기를

통해 사업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과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부모, 아이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어 평화로운 가족문화를 확산하였다.

- 부모, 아이 간의 원활한 소통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 같다.
- 몸풀기, 마음풀기, 체험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면서 아이들의 태도와 자세가 변화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본다.
-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행사 진행 시 자원봉사자를 뽑는 것이 좋겠다. 사회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여서 일을 분담하는데 수월하였다.
- 좌주 후원연수원의 숙박시설, 강당시설이 쾌적하였으며, 식사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도 좋았다.
- 1박 2일로 진행하기에 프로그램 일정이 조금 빡빡하였다. 운동시간 및 자유시간을 충분히 배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 아이들 수준에 맞게 PPT자료 및 강의 설명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 관계형성이 가능한 여는 마당, 마음 열기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어, 참가들이 서로 친해지는데 도움이 되었다.
- 프로그램마다 끝고루 만족도가 높았다.
- 심도 있는 교육보다 대중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캠프를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2-1-2. 북한 3차 핵실험에 관한 논평 작성 및 보도자료 배포

- 일시: 2013년 2월 12일(화)
- 제목
 -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한다
 - 남북미중은 실험-제재 악순환을 중단하고 분쟁의 근본원인인 남북 대립과 북미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즉각 대화하라.*
- 언론보도: 통일뉴스
- 주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2-1-3.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를 위한 긴급여성행동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3월 13일(수) 11:00~12:00

- 장소: 광화문 KT본사 앞
- 참석: 여혜숙, 김정수, 정경란, 김지호, 최민정, 김선혜, 명희
- 내용: 자유발언, 기자회견문 낭독(정경란), 퍼포먼스
- 주최: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를 위한 긴급여성행동

2-1-4.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1) 준비회의(참석: 최민정)

- (1) 2차: 3/18(월) 15:00~17:00, 슬로건, 과제 등 논의
- (2) 3차: 3/28(목) 16:00~18:00, 퍼포먼스, 역할분담 등 논의

2)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및 캠페인

- 일시: 2013년 4월 15일 10:30~11:30
- 장소: 국회 본청 앞, 윤중로
- 참석: 여혜숙, 김지호, 최민정
- 내용: 기자회견, 발언(여혜숙), 퍼포먼스, 윤중로 거리캠페인

2-1-5. 전쟁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평화선언

-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11:00~12:00
- 장소: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참석: 여혜숙, 김지호, 최민정
- 내용: 기자회견(선언문낭독-여혜숙, 참가자발언), 퍼포먼스
- 주최: 전쟁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평화선언

2-1-6. 국민연금 확산탄 루자 철폐 캠페인

1) 회의(참석: 최민정)

- (1) 간담회: 2/27(수) 14:00~16:00, 확산탄 관련 자료 검토, 제안 내용 공유 및 질의응답
- (2) 1차: 3/7(목) 14:00~16:00, 질의서 검토 및 언론보도방식, 활동일정, 캠페인출범 기자회견 논의 등
- (3) 2차: 3/18(월) 13:00~15:00, 출범기자회견 일정 및 리플렛 내용검토
- (4) 3차: 5/6(월) 16:00~18:00, 집중행동 주간 행사 논의
- (5) 평가회의: 6/4(화) 16:00~17:00, 평가 및 향후 활동 논의

2)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4월 3일(수) 10:30~13:00
- 장소: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앞 (신사역1번출구)
- 참석: 김지호, 최민정
- 내용: 발언, 기자회견문낭독, 퍼포먼스, 캠페인

3) 캠페인

- 기간: 2013년 4월 초~5월 말(매주 수요일 12:00~)
- 평화여성회 참여
 - 일시: 2013년 4월 17일(수) 11:30~13:00
 - 장소: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금천지사(가산디지털단지역)
 - 참석: 여혜숙, 김지호, 최민정
 - 내용: 리플렛 배포 등

4) 집중주간 행사

- 일시: 2013년 5월 23일(목)~24일(금) 4:30~7:00
- 장소: 청계천 광장
- 참석: 최민정
- 내용: 국민연금 확산단 무자 철회 캠페인 리플렛 배포 & 서명 받기

5) 평가

- 본 회 페이스북에 올려 사업 공지 및 활동을 홍보한 내용 중 ‘국민연금 확산단 투자철회’와 관련된 내용에 가장 많은 공유와 반응이 일어났다. 국민연금이 확산단이라는 비인도적무기에 투자된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공감했다고 보여 졌다.
- 홍보리플렛이 간단명료하였으며, 대중적으로 알기 쉽게 만들어졌다.
- 주로 연대로 이루어진 활동으로 본 회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주요사업과의 연계를 이루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2-1-7.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 “2013 ADEX(무기전시회) 대응 캠페인”

1) 회의(참석: 최민정)

- (1) 초동모임: 8/28(수) 15:00~17:00, 평화군축박람회 방향 논의 등

- (2) 1차: 9/24(화) 10:00~12:00, 평화군축박람회 전시팀 논의
- (3) 2차: 9/27(금) 10:00~12:00, 평화군축박람회 전시팀 논의
- (4) 3차: 10/2(수) 9:30~12:00, 평화군축박람회 전시팀 논의

2) 행사(참석: 최민정)

- (1)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 기자회견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 일시: 2013년 10월 28일(월) 10:30~11:30
 - 장소: 국방부 앞
- (2) 토크쇼 “무기도입사업,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2013년 10월 29일(화) 19:00~21:00
 - 장소: 민주노총 13층
 - 토크쇼 참가자 : 김중대, 조주형, 여옥, 박승호
- (3) 바레인으로의 최후탄 수출금지 촉구 및 무기장려하는 방위사업청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10월 31일(목) 11:00~12:00
 - 장소: 방위사업청 앞
- (4) 평화군축박람회 전시 및 책자 배포
 - 일시: 2013년 11월 1일(토)~2일(일) 11:00~17:00
 - 장소: 컨텍스 가는 길목

3) 평가

- 각년에 진행한 대중문화캠페인 형식보다 ADEX 무기 전시회 대응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 평화군축박람회가 평화, 군축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이었으며, 무기전시회 대응준비를 직접행동팀과 전시판넬팀으로 나눠 진행하여 관심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
- ADEX 무기 전시회 장소 앞에서 평화군축박람회를 진행하여 ADEX 무기전시회를 보러 오는 사람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평화군축박람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었다.
- 본 회의 사업 일정과 실무 역량 부족으로 행사 준비에 많은 참여를 하지 못했으며, 본 회 회원들의 참가를 이끌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2-2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 활동

<2013년 사업계획(안)>

- 1)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네트워크 구성
- 2) 워크숍, 공개토론회
- 3) 1325호 국가행동계획 채택한 필리핀 조사 방문
- 4) 내부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
- 5) 소책자 발간

2-2-1.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 이행을 위한 한국여성시민사회의 역량강화 프로젝트

1)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공모사업

(1) 사업기간: 2013년 1월 1일~12월 10일

(2) 지원금액: 13,208,656원(지원금 13,003,246원, 자부담 205,410원)

(3) 사업목적

- 평화·안보영역의 여성참여와 여성인권보호/분쟁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국제적 합의체인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의 거버넌스를 위한 여성시민사회의 역량강화 준비
- 외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거버넌스 사례 조사와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탐색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을 위한 여성·시민사회의 입장모색

(4) 사업주요내용

- '1325호네트워크'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워크숍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여성" 공개토론회 개최
- 필리핀 1325호 국가행동계획 사례조사를 위한 방문
- 평가워크숍 개최 및 제안서 발간

(5) 실무&진행담당: 정경란, 김지호, 최민정

2) <1325호 네트워크> 역량강화 전략워크숍 I

- 일시: 2013년 2월 19일(화) 14:00~16: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주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 참석: 약 15명
- 프로그램
 - 사회: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표
 - 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의미
: 이현숙(여성평화외교포럼 대표)
 - 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해외 사례와 한국적 적용
: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전체토론
- 언론보도: 여성신문(2/22)
- 주최: 1325호 네트워크
- 주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후원: 한국여성재단

3) <1325호 네트워크> 역량강화 전략워크숍 II

- 일시: 2013년 3월 27일(수) 14:00~16: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주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초안 검토
- 참석: 약 20명
- 프로그램
 - 사회: 최영애(여인지사 공동대표)
 - 발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초안 검토
 - 가.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나. 조영주(이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 다.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라. 안정애(주한미군범려군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질의응답 & 토의
- 언론보도: 기독교신문(4/5)
- 주최: 1325호 네트워크
- 주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후원: 한국여성재단

4) "5.24 평화와 균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공개토론회

- 일시: 2013년 5월 22일 오후2시~5시

- 장소: 국가인권위 8층 배움터

- 주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 여성

- 프로그램

- 축사:

가. Luis. Cruz(주한필리핀대사)

나. 김상희(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서면))

- 사회: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대표)

- 발표:

가. 한반도 분단 극복과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 이김현숙(여성외교평화포럼 상임이사)

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여성 참여

: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토론:

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 여성

: 이대훈(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다. 젠더화된 한국사회와 안보, 여성의 참여

: 김엘리(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교수)

라. 한국에서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관련 기지촌여성노인 지원필요

: 우순덕(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 참석: 약 40명

- 평가:

- 주제선정

가. 한국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한국여성"이라는 토론회 주제는 시의적절하였다.

나.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한국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참

여적 방법의 중요성, 여성참여방안, 여성역량 강화문제, 국가행동계획의 내용,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국가행동계획이 가능한가라는 문제 제기 등의 이슈가 제기되어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청중과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여 아쉬웠다.

· 측사

- 가. 필리핀대사의 측사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나. 1325호 네트워크가 국제연대와 관련하여 외국 정부와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다. 김상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급한 일정으로 참석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1325호에 대한 관심을 확인시킬 수 있었다.

· 참가 & 조직

- 가. <1325호 네트워크>의 소속단체(10개 단체)가 조직한 행사에 40명의 참가자 수는 많은 것은 아니나 <1325호 네트워크> 소속단체의 관계자들은 적은 숫자라도 모두 참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평화여성회에는 8명이 참가하였다.
- 나. <1325호 네트워크> 소속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다. 일반대중들의 참가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대해 일반대중들에게 교육, 홍보할 필요가 있다.

· 홍보

- 가. 홈페이지, 관련 단체에 홍보,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평화여성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 나. 언론의 관심이 적었다. <1325호 네트워크>의 전략워크숍을 통해 행사가 여러 번 진행되어 관심이 적어졌고, 국가행동계획이 대중적인 의제가 아닌 측면도 있다고 보여 졌다.

· 기타

- 가. 전략워크숍 개최, 국회와 토론회 공동주최, 공개 토론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인식 확대에 기여하였다.
- 나. 꾸준한 활동으로 44개 단체가 참가하는 네트워크 <1325호 네트워크>의 확장이 이루어진 데 기여하였다.

다. 중요한 자료를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라. 정부가 추진하는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만들기 위한 워킹그룹보다는
 정책적인 방향을 포함하여 더 영향력이 있는 보다 근본적인 것을 고민
 할 수 있고, 다른 사안에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과 1325호 국가행동 계획의 내용구성이 충실하게 되기 위
 해 다양한 영역의 대표성을 가진 시민사회와 학계의 전문가가 워킹그
 룰이나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한다고 의견이 정리되다.

5) 필리핀 방문조사

- 일시: 2013년 9월 10일(화)~15일(일)
- 장소: 필리핀 마닐라시, 올롱가포시
- 참석: 정경란(~13일), 안정애, 조영희, 최민정
- 준비회의(참석: 정경란, 안정애, 조영희, 최민정)
 - 1차: 5/16(목) 10:30~12:00 방문조사 전 준비할 자료 논의 등
 - 2차: 6/25(화) 11:30~13:00 조사 자료 분담 등
 - 3차: 7/9(화) 10:00~12:00 관련 자료 공부, 일정논의 등
 - 4차: 7/23(화) 14:00~16:00 필리핀국가행동계획 검토 등
 - 5차: 8/27(화) 13:00~15:00 일정확정, 조사, 질의성 작성 논의 등
 - 6차: 9/6(화) 14:00~16:00 마지막 일정 검토 등
 - 7차: 9/26(목) 13:30~14:00 보고서 관련 진행상황 공유, 보고서 작성 방안, 관련 협력 모델 제안 및 평가워크숍 진행 방안 논의 등
 - 8차: 11/5(화) 10:30~12:00 워크숍 발표준비 확인, 방문제안서 작성 논의 등
- 조사일정
 - 9/10(화) 08:10 출발, 미리암대학교(숙소) 이동
 - 9/11(수)
 - 가. 여성 및 시민단체의 관계자(WeAct 1325)와 회의 진행
 - 나. 'WeAct 1325'의 소속단체인 여성과 젠더연구소(Women and Gender Institute), 평화교육센터(Center for peace Education) 방문
 - 9/12(목)
 - 가. 정부 관계자(National Steering Committee), 필리핀여성위원회(PDW: Philippine Commission on Women)의 Verzasa 사무총장과의 화상회의
 - 나. 평화과정대통령자문관실(OPAPP: Office of Presidential Advisor on

Peace Proces)의 Maria Cloeefe Gettie C.Sandoval 프로그램 차관과
면담

다, 사회복지개발부(DSWD: Department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의 Margari ta V.Sampang IV 국장 등과의 면담

- 9/13(금) 오픈하우스 이동, 성매매여성인권자활단체(buklod) 방문
- 9/14(토) 수비 만 일대 전 비군기지 탐방
- 9/15(일) 14:20 한국행 출발
- 감사편지: 필리핀 지원단체와 회의 참가한 단체 및 정부관계자에게 감사편지 발송(9/17)

6) [워크숍]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여성-시민사회의 입장 모색

- 일시: 2013년 11월 12일(화) 10:30-12: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참석: 약 10명
- 프로그램
 - 사회: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 보고 및 주제발표
 - 가. 필리핀 1325호 국가행동계획 연구 방문 보고
 - :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안정애(기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 나. 한국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
 - :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다.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여성단체 역할 강화방안
 - : 조영주(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 질의응답 및 토론
- 주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주최: 1325호 네트워크
- 후원: 한국여성재단

7)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여성단체의 제안서 발간

- 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 제목: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여성단체의 제안서
- 작성: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조영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 인정애(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 조영주(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최민정(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가)
- 내용:
 -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
 - 1325호 이행을 위한 여성단체 역할 강화방안
 - 필리핀 1325호 국가행동계획 연구조사
 - 부록

2-2-2 <1325호 네트워크> 활동

1) <1325호 네트워크>

(1) 활동

- 평화를만드는여성회는 2012년 11월부터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해 여성·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1325호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2013년부터 <1325호 네트워크>의 사무국을 담당하며 <1325호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한 참가 요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2013년 6월 10일 기준으로 총 45개 단체가 소속단체로 참가하고 있다. <1325호 네트워크>의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조율하여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간협의체와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2) 참가단체

평화를만드는여성회(사무국),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여성여권주요여성공동체, 새올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옹호지원하는사람들, 여성평화의교포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총 45개 단체(6월 10일 기준/무순)

2) <1325호 네트워크> 준비 모임 및 회의(참석: 정경란, 최민정)

(1) 1차 회의

- 일시: 2013년 1월 16일(수) 16:00~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 안건: <1325호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논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 행동계획수립에 대한 대응 논의 등

(2) <1325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준비 모임

- 일시: 2013년 2월 1일(금)
- 장소: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 참석: 정경란, 최민정(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안정애(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부장), 이김연숙(여성평화외교포럼 위원)
- 내용: 한국정부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도록 여러 활동을 진행하는 여성·시민단체네트워크인 <1325호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위한 모임

(3) 2차 회의

- 일시: 2013년 2월 19일(화) 16: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안건: 국가행동계획(안) 검토 및 대응 방안 논의 등

(4) 3차 회의

- 일시: 2013년 3월 12일(화) 14:00~16: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 안건: 국가행동계획(안) 검토 및 대응 방안 논의, 2차 전략워크숍 논의 등

(5) 간담회의

- 일시: 2013년 4월 10일(수) 11:00~12: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 안건: 국회보통회 대응 전략논의

(6) 4차 회의

- 일시: 2013년 5월 7일(화) 10:30~12: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 안건: 위킹그룹, 1325호 네트워크 확대 등 논의 등

(7) 긴급회의

- 일시: 2013년 6월 25일(화) 16: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 안건
 -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공개토론회 평가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상'에 1325호 네트워크 임장 정리
 -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실무협의회 관련 의견 교환 모임에 참석할 대상 논의

(8) 5차 회의

- 일시: 2013년 7월 18일(목) 14:00~16: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회의실
- 안건:
 - '1325호 국가행동계획 실무협의회'(위킹그룹) 참가자 추천문제 논의
 -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내용 검토 계획

(9) 6차 회의

- 일시: 2013년 8월 8일(목) 15:00~16: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안건: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총칭 초안 검토, 향후 일정 논의 등

(10) 7차 회의

- 일시: 2013년 8월 30일(금) 15:00~16: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안건: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서문 초안 검토, 각 주제별 단체의 일정제출 공유, 주제별 & 영역별 검토 방법 논의 등

(11) 8차 회의

○ 일시: 2013년 9월 27일(금) 14:00~16: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안건:

-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의 “II. 한국의 국가행동계획” 내용 구성
-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의 III. 국가행동계획 세부과제 (매트릭스) 구성과 관련하여 프레임워크(framework) 논의
- 국가행동계획 운영위원회-민관협의체 구성 논의
- 각 주제별 단체 활동 공유

(12) 9차 회의

○ 일시: 2013년 11월 13일(수) 10:00~12: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안건:

- 1325호네트워크 활동방향
(1325호 이행관련 여성시민사회단체의 활동 평가 및 논의)
-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내용 검토
가. 여성단체 참여 관련 내용: 예) 1325호 관련 시민단체 교육 포함
지원(1325호 교육센터)
나. 국가행동계획이행 주무부처 논의-여가부, 외교부
다. 이행구조-국가행동계획 운영위원회, 정부 부처별 이행구조
라. 행동계획 매트릭스 검토

(13) 10차 회의

○ 일시: 2013년 12월 11일(수) 15: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안건:

-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1325호 네트워크의 주요의제 논의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논의

3) 의견서 발송 및 성명서 발표

(1)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1325호 네트워크>의견서”
발송

○ 일시: 2013년 1월 17일(목)

- 내용: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정부와 여성단체들의 협력 제안
- 발송대상: 국방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 보도자료 배포: 외교, 통일, 여성분야 담당기자(1/18)

(2)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에 관한 <1325호 네트워크> 제안서 발송

- 일시: 2013년 5월 13일(월)
- 내용: 정부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협의하기 위한 그룹 구성을 검토한다고 밝혀 이와 관련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제안서 발송
- 발송대상: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에 발송

(3) 일본의 군국주의 반대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성성명서 발표

- 일시: 2013년 8월 14일(수)
- 내용: 2013년 8월 15일 68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점점 극단적으로 치달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를 우려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 성명서 발표

(4)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초안)에 대한 1325호 네트워크" 의견서 전달

- 일시: 2013년 9월 4일, 10월 15일, 11월 22일(3차례)
- 방법: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전달

(5)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국가행동계획에 꼭 들어가야 할 중요과제 전달

- 일시: 2013년 12월 13일
- 내용: 외교부와 1325호 민관협의체에 중요과제를 정리하여 발송

4) 국회와의 협력

(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면담

- 일시: 2013년 2월 26일(화) 10:00~10:40
- 장소: 국회본청 5층 여성가족위원장실
- 참석: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상희(여성가족위원장), 인제근(의원), 남윤인순(의원), 1325호네트워크-이현숙(여성평화외교포럼 상임이사), 최영애(여성인권옹호지원하는사람들 대표)

- 내용: 1325호 활동을 소개, 여성가족위원장이 주최하는 정부 및 1325호 네트워크 관계자 초청간담회 개최 요구, 인재근의원이 의동위원을 겸직하고 있음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을 제안요구

(2)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일시: 2013년 4월 10일 14:00~16:3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 참석: 김지호, 안정애, 여해숙, 정경란, 조영주, 조영희, 정경란, 최민정
- 프로그램
 - 사회: 남윤인순(국회의원)
 - 인사말: 인재근(국회의원)
 - 발제:
 - 가.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 의미와 국가행동계획 수립 경과
: 이주원(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서기관)
 - 나.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대한 시민 사회의 제언
: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지정토론: 강윤희(국민대교수), 홍현주(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 김정원(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사무관), 김창현(통일부 정책지원과장)
 - 청중과 토론
- 주최: 국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인재근, 연구책임의원 유은혜, 민병두), 국회의원 남윤인순, 국회의원 이자스민, 국회의원 진성준, 1325호 네트워크
- 언론보도: 마로니에TV (행사 전체 영상을 올림, <http://maroni.co/xe/34975>)

5) 정부와의 협력

(1) 정부 1차 간담회

- 일시: 2013년 1월 25일(금) 10:00-
- 장소: 외교부 회의실
- 참석: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내용: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설명과 시민사회단체, 학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
- 주최: 외교부 국제기구국

(2) 정부 2차간담회

- 일시: 2013년 3월 28일(목) 10:00~12:00
- 장소: 여성가족부 본청 회의실
- 참석: 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현숙(한국여성협의회 사무총장, 강윤희교수, 1325호 네트워크 담당자(한국여성외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인권유지원하는사람들, 여성평화외교포럼), 여가부3, 외교부2,
- 내용: 1325호 국가행동계획 초안 논의 및 1325호 네트워크 의견서 제출

(3) 여성가족부와 간담회

- 일시: 2013년 6월 25일(화) 10:00~12:00
- 장소: 여성가족부 근처 파리크로아상
- 참석: 정경란
- 내용: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위상과 참여인원 수에 대한 논의, 실무협의회 참가인 추천

(4)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간협의체 참가

- 구성: 총 16명
 - 시민사회: 1325호 네트워크-정경란(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강윤희(여성평화외교포럼 1325분과 위원장)/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권인숙(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신혜수(유엔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위원), 김현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박순함(국방대학PKO센터, 교수), 백영옥(명지대북한학과 교수) 8명
 - 정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한국 국제협력단의 과장(또는 담당관 및 팀장)급 인사 8명
- 회의(참석: 정경란, 장소: 외교부청사)
 - 1차: 8/6(화), 인사 및 향후 계획 발표
 - 2차: 9/9(월) 11:00~12:00,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안 1장 서문 검토
 - 3차: 10/21(월) 11:00~12:00,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안 2장 검토
 - 4차: 11/26(화) 11:00~12:15,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안 3장 매트릭스 검토
 - 5차: 12/17(화) 17:00~18:10, 정부의 국가행동계획 수정안(2013년 12월 16일)에 대한 민간위원회의 의견 개진 및 정부의 이에 대한 제안 논의

2-2-3.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평화통일분야 검토워크숍

- 일시: 2013년 9월 26일(목) 14:30-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참석: 김정수, 정경란, 최민정, 조영희

2-2-4. 1325호 연구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여성평화리더십’ 책자 발간

1) 비용 모금

- 총 후원금액: 1,760,000원
- 후원자: 김선혜, 김성은, 김정수, 김정아, 김지호, 명희, 박순성, 박유희, 박재신, 박종호, 백학순, 여해숙, 이영동, 정경란, 채지영, 한정숙, 홍승희, 전북여성단체연합

2) 책자발간

- 일시: 2013년 11월 26일(화)
- 제목: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여성평화리더십
- 기획: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지은이: 정경란
- 판매가격: 13,000원
- 출판사 등록

2-2-5. 유엔 여성 1325호 아시아태평양 모듈 검토회의

- 일시: 2013년 1월 22일(화)-23일(수)
- 장소: 태국 방콕
- 참가: 정경란
- 내용:
 - 인터넷을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맞게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워크숍.
 - 유엔 Women, 유엔 Consultants, ESCAP, 유엔 방콕사무소, 아태지역 전문가 및 활동가 참가 등 15명.
 -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지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1325호 인터넷 교육을 아태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아태지역에 맞게 교육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및 검토
- 주최: 유엔 여성(UN Women)

2-2-6. 평가

(1)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 이행을 위한 한국여성시민사회의 역량강화 프로젝트>

- 전략워크숍·공개토론회·여성시민사회 입장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여성단체의 제안서 발간 등을 통해 1325호 및 국가행동계획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여성단체의 역량강화, 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안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 정립에 기여하였다.
- 필리핀 조사 방문을 통해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에서 정부와 여성단체의 역할, 민관협력문제, 지방차원에서 1325호 이행문제, 이행구조, 그리고 국가행동계획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필리핀 경험을 배워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필리핀 조사 방문 과정에서 평화여성회의 국제연대가 확장됨. 필리핀 방문 프로그램을 코디네이터한 필리핀 미리얌대학의 여성과 젠더 연구소(Women and Gender Institute) 소장과 필리핀 평화과정대통령보좌관실(OPAPP) 방문과 관련하여 유엔 인권고등판문관실의 관료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그동안 평화여성회가 국제행사를 통해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필리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았고, 필리핀 방문을 통해 국제연대 네트워크가 더욱 확장되었다.

(2) <1325호 네트워크> 활동

- <1325호 네트워크>가 1월 16일 6개 단체에서 출발해서 45개 단체로 확대되었다.
- 평화플랜드는여성회는 <1325호 네트워크> 사무국으로 활동하며 네트워크 확대, 회의 진행, 의견 조정, 정부에 의견 전달, 민관협의체 참가 등 한국 정부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회외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참가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① 평화안보영역이 여성들이 참가하기에 어려운 주제인 점, ② <1325호 네트워크>에서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협의체>에 위원을 파견한 후 위원을 파견하지 않은 단체의 관심도가 떨어졌다. ③ 네트워크 방식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3) 정부와 협력문제

- <1325호 네트워크>에서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협의체로서 ‘1325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제안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협의체>가 결성되었다. 평화와 안보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최초의 여성단체(여성)와 정부의 협의구조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 <1325호 네트워크>에서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민관협의체>에 위원을 파견하고, 평화여성회는 정경란 공동대표가 참가하고 있다. <1325호 네트워크 의견서> 제출을 통해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협의하고 있다.
- <민관협의체>가 다른 국가행동계획을 다루는 민관협의체와 비교하여 법적 인, 제도적인 보장이 없는 구조인 점, 민관협의체의 위상에 대한 문제, <1325호 네트워크>의 제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정도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 정부의 정책이 1325호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인가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민관협의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4) 평화여성회의 역량강화

- 1325호 활동과 관련하여 평화여성회가 <1325호 네트워크> 사무국과 한국여성재단의 1325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평화여성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개별단체의 프로그램 개발을 모색해야 한다.
- 여성의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세분화하여 1325호에 대한 전문성 향상, 일반 여성의 인식제고와 관련한 대중화,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1325호를 실천하는 일상화에 대한 발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5) 소책자 발간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여성평화리더십]을 발간하다. 정부가 1325호 국가행동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행동계획 관련 책자가 민간차원에서 최초로 나온 것은 의미미하다. 발간 기일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
- 재미컨당을 통해 나온 출판물이라는 점은 의미가 있다.

2-3. 남북여성협력사업

<2013년 사업계획(안)>

남북여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여성연대 차원에서 북한여성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1) 북한여성과 함께 미역국 먹기 등 (가칭)

여성 관련하여 꾸준히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창구를 개척하여 모아진 후원금을 6개월에 한 번씩 모아서 후원. 자기 생일이나 가족 생일에 후원하도록 홍보하고 평화여성회에서는 후원금 보낸 사람에게 생일카드 보내드리기

2-3-1. 평가

- 이를 위한 사업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내년에 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다.

2-4. 핵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반핵, 탈원전 활동

2-4-1. 평가

- 반핵, 탈원전 활동의 중요도는 높으나, 본 회의 핵심 사업으로 활동하기에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설명서 발표에 참여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내년에는 연대활동으로 참여해나가는 것을 고려하기로 하다.

3. 정보·홍보 사업

<2013년 사업계획(안)>

- 1) 홈페이지 관리, SNS 평화활동 등
- 2) 소식지 발행
- 3) 정기 매월을 통해 본 회 소식을 전달

3-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1) 홈페이지 레이아웃 구매

- 일시: 2013년 2월 28일(목)
- 종류: 그레이포탈(프리미엄)
- 구매처: XE마켓 (ID: wmpeace01, pw: vudghkoo)
- 금액: 59,900원

2)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 연장 신청

- 기간: 2013년 4월 19일(금)~ 2015년 4월 19일(토) (2년간)
- 관리업체: 아사달 (id: wmpeace, p/w: wmpwmp)

3) 페이스북 업데이트

- 내용: 본 회 활동 알림, 사업 공지 등 지속적으로 홍보함.
- 주소: www.facebook.com/koreawmp

3-2. 회원 메일링 주소록 정리

- 1) van-pro프로그램 사용하여 CMS관리 및 회원, 연대단체 주소록 수시로 관리.
- 2) 회원 전자메일을 보낼 때 오즈메일러(<http://www.ozmailer.com>) 사용.

3-3. 온라인 소식지 발송

- 발행 시기: 매월 말 또는 초 (2월~12월까지 진행)
- 대상: 본 회 회원 및 프로그램 참여자 등
- 내용: 보고와 계획, 후원회비 명단보고 등
- 담당: 최민정

3-4. 영문리플렛 제작

- 일시: 2013년 9월 5일(목)
- 담당: 최민정
- 내용: 본 회 외국인방문자 및 국제연대 시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평화여성회 소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작

3-5. 평화여성회 소개 및 방문 인터뷰

1) 신일본 부인회에서 본 회 방문

- 일시: 2013년 2월 21일(목) 10:00~12: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소통방
- 방문자: 34명(가이드포함)
- 내용: 본 회 역사 및 활동 소개
- 담당: 정경란, 최민정

2) EGEPE(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참가자 방문

(1) 1차

- 일시: 2013년 1월 18일(금) 13:3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실
- 방문자: 약 30명
- 내용: 본 회 활동 소개, 아시아 분쟁지역의 여성, 평화 문제 토론
- 담당: 김정수

(2) 2차

- 일시: 2013년 7월 12일(금) 10: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소통방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실
- 방문자: 약 25명(소통방), 5명(사무실)
- 내용: 본 회 활동,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남북여성교류 등 소개
- 담당: 정경란

3) 홍콩 YWCA 관계자 방문

- 일시: 2013년 7월 3일(수) 14:00~15: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방문자: 약 30명
- 내용: 본 회 활동,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남북여성교류 등 소개
- 담당: 정경란

4) 미국 메노나이트교회 중앙위원회(Mennonite Central Committee) 관계자 방문

- 일시: 2013년 11월 29일(금) 14:00~16:00
- 장소: 평화여성회 사무실

- 방문자: 미국 메노나이트교회 중앙위원회 관계자 3명, 한국평화훈련원 1명
- 내용: 본 회 활동, 미국 메노나이트교회 중앙위원회의 대북인도적지 지원활동 소개와 토론 등
- 담당: 김정수, 김선혜

5) 원코리아 페스티벌 한국위원회 방문

- 일시: 2013년 12월 20일(금) 15: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히스토리홀
- 방문자: 김희정 대표
- 내용: 본 회 활동, 원코리아 페스티벌 활동 등 소개와 공유 토론 등
- 담당: 김정수

3-6. 평가

- 정보·홍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각년에 개설한 페이스북에 본 회 활동 내용, 사업 공지 등을 꾸준히 홍보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영문리플렛을 제작하여 외국인 방문자 및 국제 연대 시 본 회를 소개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소식지를 발간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온라인소식지를 2월부터 월 1회씩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본 회 소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였다.

4. 회원 사업

<2013년 사업계획(안)>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모임을 진행한다.

- 1) 회원마당
- 2) 영화모임

4-1. 영화보기

1) 미드나잇 인 파리

- 일시: 2013년 5월 29일(수) 오후7시~9시
-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2층 큰사랑방
- 참석: 박종호 회원 외 12명(여혜숙, 김정수, 조영희, 정경란, 최민정)

2) 서청포 슈가맨

- 일시: 2013년 6월 19일(수) 19:00~21:30
-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2층 큰사랑방
- 참석: 약 15명(여혜숙, 최민정)

4-2. 故 황순영회원 1주기 장지 방문

- 일시: 2013년 5월 9일(목)
- 장소: 경북 영주
- 참석: 박예경, 이락호, 조영희, 김정수, 여혜숙
- 내용: 50만원 전달

4-3. 故 이락호이사 여성추모행사

- 일시: 2013년 10월 10일(목) 15:00~
-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강례식장
- 참석: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원과 유가족
- 내용:
 - 여는 말
 - 故 이락호 이사님께서 평화여성회와 함께 하신 모습들
 - 故 이락호 이사님을 그리는 후배들의 목소리들
 - 유족 인사
 - 헌화

4-4. 회원 만남의 날 및 바자회

- 일시: 2013년 11월 22일(금) 12:00~19: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참석: 김지호(담당), 여해숙, 김정수, 정경란, 조영희, 박유희, 평희, 최민정
- 내용:故 이락호이사님의 유품을 중심으로 한 바자회

4-5. 분기별 CMS 납부회원에 감사문자 발송

4-6. 평가

- 영화 모임을 지역사회와 함께 진행하여 참여인원이 확대되었고, 회원 마당을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故이락호 이사님의 물품을 기증받아 회원 만의 날로 바자회를 개최한 것이 의미가 크다.
- 회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5. 재정 사업

<2013년 사업계획(안)>

1) 꽃감판매 등

5-1. 함양 꽃감 판매

- 판매기간: 2012년 12월 17일(월)~2013년 1월 31일(목)
- 생산지: 경남 함양군
- 생산자: 장운석
- 판매수량: 132개
- 결산내용

수입 판매가				지출 (매입가)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꽃감A	52,000	8	416,000	꽃감A	42,000	8	336,000
꽃감B	45,000	14	630,000	꽃감B	35,000	24	840,000
꽃감B-1	35,000	10	665,000	꽃감B-1	32,000	9	315,000
꽃감C	35,000	91	3,185,000	꽃감C	25,000	66	1,650,000
				꽃감C-1	22,000	25	550,000
합계		132	4,896,000	합계		132	3,691,000

순수입: 수입-지출 1,205,000

6. 연대 및 협력사업

6-1. 국내 상설연대

<2013년>

- 1) 한국여성단체연합 : 총회, 이사회, 통일평화위원회(임원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대의원총회, 수요시위 연 2회 주관 및 참석
-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남측위원회 운영위원, 여성본부
- 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집행위원회
- 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표자회의, 시민평화포럼

6-1-1. 한국여성단체연합

1) 참여

- (1) 통일평화위원장,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여혜숙
- (2) 사무국장연석회의,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최민정
- (3)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여혜숙, 입주자단체회의- 김지호

2) 회의

- (1) 제27차 총회 및 정책토론회
 - 일시: 2013년 1월 15일(화)~16일(수)
 - 장소: 서울여성프라자 1층
 - 참석: 여혜숙(당연직), 김정수, 최민정
 - 총회준비위원: 여혜숙(여연 통일평화위원장)
- (2) 이사회(참석: 여혜숙)
 - 1차 이사회
 - 일시: 2013년 2월 13일(수) 13: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안건 :

- 가. 정기총회 평가 및 회의록 인준, 2013년 여성연합 임원 명단 확인의 건
- 나.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건
- 다. 성평등 디딤돌·결림돌 선정 및 올해의 여성운동상 추천에 관한 건
- 라. 2월~5월 사업계획 심의의 건, 2013년 이사회 운영 및 일정에 관한 건
- 마. 기타 안건('미군 위안부'문제 진상규명을 위한 기획소위원회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제안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공동추진위원회'활동 제안서)

○ 제2차 이사회

- 일시: 2013년 5월 23일(목) 14:00~18:00
- 장소: 대전 도시공사7층 중회의실
- 안건
 - 가. 정책토의-한반도 위기의 실체와 해법 찾기/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
 - 나. 3·8여성대회 평가의 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폐지 논란 관련 논의의 건, 6월~8월 사업계획의 건, 사무처 관련 규정 개정의 건

○ 제3차 정책수련회 및 이사회

- 일시: 2013년 9월 4일(수)~5일(목)
- 장소: 대구대학교 영덕연수원
- 안건: 국제연대센터 구성 추진의 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지 반대 대응 연대활동 논의의 건, 연대기구 참여 추진의 건, 9월~11월 사업계획 심의의 건

○ 제4차 이사회

- 일시: 2013년 11월 11일(월) 14:00~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안건
 - 가.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한 조직점결 후속 논의의 건, 연대기구 참여 추진의 건
 - 나. 추정예산안 심의의 건, 11월~12월 사업계획 심의의 건
 - 다. 2014년 정기 총회준비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 라. 기타 안건(2013년 정기이사회 평가 및 2014년 이사회 운영방안 논의의 건, 이사회 권한위임의 건)

(3) 정책기획위원회

○ 긴급정책위원회

- 일시: 2013년 1월 16일(수) 13:30~14:30
- 장소: 여성프라자 3층

- 안건: 차기정부 인수위원회 의견서 전달 건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제지설 관련 긴급대응 논의
 - 일시: 2013년 2월 8일(금)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회의실
 - 안건: 여성가족위원회를 존속하는 것으로 2/12일 오전 국회의원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하기로 의견모음.

○ 1차 회의

- 일시: 2013년 2월 13일(수) 11: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회의실
- 안건: 2013년 정책기획위원회 사업계획- 상반기:여성운동의 대중성 확대방안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지역의 제도화논의중심으로 진행, 현안대응, 여성정책 대응활동 논의

○ 2차 회의

- 일시: 2013년 6월 26일(수) 14: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회의실
- 안건: 회원단체 조직점검 점검, '제도화'에 대한 논의 검토 등

(4) 여성미래센터 총무단 회의

○ 2월회의 및 사진전

- 일시: 2013년 2월 19일(화) 16: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안건: 단체별 사진전 개소 등

○ 3월 회의 및 사진전

- 일시: 2013년 3월 26일(화) 14:00-15: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안건: 단체활동 보고, 회의실 임대 관련

○ 5월 회의

- 일시: 2013년 5월 7일(화) 15: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음식: 여해숙, 최민정
- 안건: 2층,4층 회의실 임대관련, 운영세칙 논의 등

○ 10월 회의 & 소방교육

- 일시: 2013년 10월 14일(화) 14: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참석: 김지호, 이주원, 최민정
- 내용: 화재의 원인과 대책, 소화기기 사용법, 응급처치요령 실습 등
- 12월 회의
 - 일시: 2013년 12월 6일(월) 16: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안건: 2013년 사업보고, 2014년 회의일정, 재활동 분리수거 건 등
- (5) 사무국장 연석회의
 - 일시: 2013년 2월 21일(목) 14: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동방
 - 안건: 방향 논의, 임원선출 등
- (6) 여성미래센터 운영위원회
 - 일시: 2013년 6월 3일(월) 18:00~20:00
 - 안건: 지하공간 활용 건

3)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9회 한국여성대회

(1) 3차 기획회의

- 일시: 2013년 2월 26일(화) 10:00~11: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5층 회의실
- 안건: 추진상황공유 및 진행사항 점검
- 참석: 최민정

(2)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2013 여성,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으로' 릴레이 기고

- 보도: 2013년 3월 5일(화), 오마이뉴스
- 제목: 너무 긴 정전협정 60년... 평화협정으로 바뀌줘!
- 작성: 여혜숙

(3) 제29회 한국여성대회 문화행사

- 일시: 2013년 3월 7일(목) 19:00~21:00
- 장소: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주제: 유쾌한 표비명 축제 - 삶을 노래하라
- 참석: 여혜숙, 최민정
- 내용: '나의 표비명'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토크쇼와 강연

(4) 제29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 일시: 2013년 3월 8일(금) 11:00~12:00
- 장소: 서울시장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참석: 김성은, 김정수, 김지호, 박유희, 여해숙, 윤경원, 최민정

4) 2013 여성운동 아카데미 '친해지길 바래'

- 일시: 2013년 6월 12일(수)~14일(금)
- 장소: 도봉 숲속마을
- 참석: 최민정
- 내용: 운동방법, 소셜 이용 방법, 여성운동 방향 탐색, 여성주의 강의, 힐링 프로그램

5) 그 외 행사 및 활동

(1) 인수위원회 앞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1월 21일(월) 11:00
- 장소: 삼청동 인수위원회 정문앞
- 참석: 여해숙
- 내용: 첫 여성대통령에 바라는 여성단체요구안 전달

(2) 탈성매매여성 무한발설

- 일시: 2013년 4월 11일(목) 14: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참석: 여해숙, 최민정

(3) '노리개' 상영 및 권력형 비리와 성점대문제 토론회 무비토코

- 일시: 2013년 4월 23일(화) 14:00~17:3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본
- 참석: 여해숙, 김정수, 김지호, 이주원, 정정란, 최민정, 안향숙

(4) '잘 좋은' 지방정치학교 '여성이 간다!'

- 일시: 2013년 5월 31일(금), 6/21(금), 7/19(금) 15:00~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
- 참석: 최민정
- 내용: 지방자치 교육 및 관심확대, 의제별(돌봄, 복지, 일과 경제 등) 지역 맞춤형 정책 산출, 서울지역 여성운동가 네트워크 구축

(5) 여연 사무처 갈등해결교육

- 일시: 2013년 6월3일(월) 14:00-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강사: 여혜숙

(6) 여연 회원단체 조직진단 활동가 인터뷰

- 일시: 2013년 6월 11일(화) 11:00~12: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히스토리홀
- 참석: 최민정

(7) 여연 조직진단 심층면접

- 일시: 2013년 7월 24일(수) 18:00-20:00
- 장소: 홍대앞 식당
- 참석: 여혜숙

(8) 여성 국제연대센터 및 Kofid 팬더본과 세미나 참석

- 일시: 2013년 7월 10일(수) 10:00~12:00, 8월 9일(금) 15:00-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참석: 정경란

(9) 여연 조직진단 설문조사 작성

- 일시: 2013년 6월~7월

6-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 1062차 수요시위 주관

- 일시: 2013년 2월 20일(수) 12:00~
- 장소: 일본대사관 앞
- 진행: 이권명희
- 참석: 여혜숙, 김지호, 최민정

2) 대표자 회의

- 일시: 2013년 2월 26일(화) 15:00~
- 장소: 열림교회 3층 소예배실
- 참석: 이권명희

6-1-3. 6.15남측위원회

1) 참여

- 남측위원회 운영위원: 여혜숙
- 여성본부: 여혜숙(공동대표), 최민정(집행위원)

2) 6.15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1) 집행위원회 워크숍

- 일시: 2013년 1월25일(금) 14:00~
- 장소: 민주노총 회의실

(2)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 2013년 3월 26일(화) 10:00~12: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참석: 정경란, 최민정

(3) 총회

- 일시: 2013년 4월 2일(화) 11:00~12: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소통방
- 참석: 여혜숙, 정경란, 최민정

(4) 공동대표회의

- 일시: 2013년 5월 30일(목) 13:00~14: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히스토리홀
- 내용: 여성본부 파견 운영위원(여혜숙), 공동집행위원장(최진미) 확정

(5) 제2차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연석회의

- 일시: 2013년 8월 22일(목) 10:00~12: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소통방
- 내용: 심양 남북여성대표자 회의의 건, 회비관련

(6)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여성실무대표단 회의

- 일시: 2013년 8월 28일(수)~ 30일(금)
- 장소: 중국 심양 칠보산 호텔
- 참석: 여혜숙
- 내용: 공동보도문 작성, 11월 남-북-해외 일본위안부 문제 공동토론회 개최

(7) 제3차 공동대표 및 집행위원장 연석회의

- 일시: 2013년 9월 27일(금) 14:00~15: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히스토리홀
- 내용: 10·4 선언 6주년 기념행사 안내, 심양회의 후속활동 및 토론회 준비

(8) 제4차 공동대표회의

- 일시: 2013년 10월 23일(수) 18: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히스토리홀
- 내용: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토론회 준비

3) 행사 및 활동

(1) 6.15공동선언 실천대회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시국회의

- 일시: 2013년 6월5일(수) 12:00~14:30
- 장소: 경동프란치스코회관 4층 강당
- 참석: 여혜숙

(2) 6.15 민족공동행사행사 시민 쏫불문화제

- 일시: 2013년 6월 10일(월) 19:00~21:00
- 장소: 창계천 파이낸스 건물 앞
- 참석: 김지호, 최민정

(3) 6.15공동선언 13주년 기념 민족행사

- 일시: 2013년 6월 15일(토) 14:00~17:00
- 장소: 임진각
- 참석: 여혜숙(기념식 사회), 김성은, 조영희

(4) 7.4 공동성명 기념식

- 일시: 2013년 7월 4일(목) 10:00
- 장소: 4.19혁명도서관
- 참석: 정경란

(5) 동아시아컵 남북 여자축구 경기 응원

- 일시: 2013년 7월 20일(일) 18:00
- 장소: 상암월드컵경기장
- 참석: 여혜숙

(6) 10·4 선언 6주년 기념행사

- 일시: 2013년 10월 4일(금) 14:00~18:00
- 장소: 강원도 거진해변, 고성 통일전망대
- 참석: 여혜숙

6-1-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1) 참여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회: 여혜숙

2) 회의

(1) 대의원총회 준비위원회

- 1차: 1/15일(화) 15:00~17:00, 총회 날짜 정하기, 2012년 사업평가(안) 검토
- 2차: 1/29(수) 15:00~17:00, 2013년 사업계획(안) 검토의 건, 제8기 임원선출 관련 의견 수렴
- 3차: 2/26(화) 11:00~13:20, '제15차 대의원회'행사 계획 심의의 건, 제8기 임원선출(안) 심의의 건

(2) 대의원 총회

- 일시: 2013년 3월 12일(화) 14:00~
- 장소: 백범기념관
- 참석: 여혜숙, 김지호

(3) 여성위원회

- 1차: 4/4일(목) 10:30~12:00, 여성위원장 선출, 상반기 사업 검토
- 2차: 9/10일(화) 10:30~12:00, 하반기 사업 검토

(4) 집행위원회

- 1차: 4/19(금) 12:00~14:00, 신임집행위원 인사, 4월~5월 사업검토
- 2차: 5/16(목) 12:00~13:30, 5월~6월 사업검토
- 3차: 6/19(수) 14:00~15:30, 7·8월 사업 검토
- 4차: 8/20(화) 10:30~12:00, 9·10월 사업 검토
- 5차: 10/18(금) 10:30~12:00, 민화협통일축제 보고 및 평가
- 6차: 12/30(월) 11:00~14:00, 회원단체 신규 가입 심사의 건, '통일교육협의회' 참여 방식에 대한 검토의 건, 2014년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3) 행사 및 활동

(1) 여성통일강연회

- 일시: 2013년 5월 16일(목) 14:00~16:00
- 장소: 국가인권위 8층 배움터
- 주제: 마음의 경계를 넘어 통일의 희망찾기

- 감사: 새터민 한의사 김지은
 - 참석: 여혜숙, 김지호, 최민정
- (2) 통일교육 공동 프로젝트 - 통일교육네트워크 간담회
- 일시: 2013년 6월 11일, 8월 30일, 7월 17일, 10월 23일, 12월 5일 (5회 진행)
 - 장소: 민화협 사무실
 - 참석: 김정수
 - 내용: 민화협 소속의 통일교육 단체 인사 14명 참석하여 통일교육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보수, 중도, 진보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남대화 진행, 공통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차이점을 인정하여 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 각 단체의 통일교육 활동 목표와 방향, 실시방법(이론식/현장식/참여형), 세부내용, 성과와 보완사항 등
 -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교육현장에서 문제점을 공유하고 협력방안 모색
 - 통일과 안보, 평화의 관계, 통일교육 시행 시 강조점과 설명방법
 -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이해, 북한에 대한 인식
 - 지난 간담회에 대한 평가, 향후 통일교육네트워크 운영방안 논의 등
- (3) 대학생캠프 평화교육
- 일시: 2013년 7월5일(금) 9:00~10:30
 - 장소: 양구
 - 감사: 여혜숙
- (4) 여성평화통일기행
- 일시: 2013년 10월 16일(수)~17일(목)
 - 장소: 연평도
 - 참가: 여혜숙, 김정수, 김지호
- (5)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후원회 밤
- 일시: 2013년 9월 3일(화) 17:00~19:00
 -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 참석: 여혜숙
- (6)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남북 교류협력 추진환경 현지 조사 사업
- 일시: 2013년 12월 18일(수)~21일(토), 3박 4일
 - 장소: 중국 단둥, 심양, 집안 등
 - 행사목적: 최근 북한동향과 남북, 북중 사이의 교류협력 실태를 조사하고,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과 남북방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한.

○ 참석: 여혜숙

○ 내용: 압록강 경제의 북중접경지역 탐방, 간담회 2회(주제: 최근 북한 동향과 남·북·중 협력, 동북진흥계획과 남북방협력)

(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소식이 <민족화해> 2014년 1월호 [통일교육·평화교육]란 기고

○ 주제: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법

○ 작성: 김정수

6-1-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 참여

○ 대표자회의: 여혜숙,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 정경란

2) 시민평화포럼 회의

(1) 총회준비위원회

○ 일시: 1월 29일 10: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2) 운영위원회

○ 일시: 2013년2월 15일 15:00

○ 장소: 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의실

3) 행사 및 활동

(1) 신년하례회

○ 일시: 2013년 1월 10일(목) 14:00~15:30

○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 참석: 여혜숙, 정경란

(2) 시민정치콘서트 ‘남북위기의 실체와 해법’

○ 일시: 2013년 4월 25일 19:00~21:00

○ 장소: 시청 시민청 바스락홀

○ 참석: 최민정

(3) 글로벌 시민평화포럼

○ 일시: 2013년 6월 22일(토) 10:00~13:00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참가: 정경란(대법)
- 내용: 한반도 정세를 포함하여 출구전략 및 동북아 비핵화 모색
- 주최: 한신대 평화와공동성센터, 참여연대, 나가사키대학 핵무기철폐연구소

6-2 국내 사안별 연대

<2013년>

- 1)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 2)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 3)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6-2-1.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1) 회의

(1) 운영위원회

- 일시: 39차 ~ 50차 까지 월 1회 이상
- 장소: 평화3000 회의실
- 참석: 김정수
- 내용: 인도적 대북지원 진행 상황 공유 및 단체 활동 보고를 중심으로 하여 현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정책실행, 정부의 조건부 허락과 모니터링 요구 등 어려워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모으는 장(場)으로 역할을 함

2) 행사 및 활동

(1) 2013년 송년집담회

- 일시: 2013년 12월 3일(화) 16:00~18:00
- 장소: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 문수관
- 참석: 김정수
- 내용: 신뢰프로세스와 명진노선의 향방

6-2-2.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1) 논평 참여

- 일시: 2013년 2월 8일(금)
- 제목: 북한 핵실험 추진 중단해야 핵실험은 결코 해결 수단 아니며 인류 생존과 세계평화 위협할 뿐

2) 성명서 발표 참가

- 일시: 2013년 9월 23일(월)
- 주제: 사회적 합의 노력 없는 밀양송전탑공사강행 반대 기자회견
: 핵발전 확대정책의 희생양, 밀양송전탑공사 강행을 중단하라!

3) 밀양 주민 응원 신문 전면광고를 위한 후원금 - 7650인 선언

- 기간: 2013년 10월 17일(목)-31일(목)
- 인원: 김지호 외 464명
- 모금액: 1,115,000원

6-2-3.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 주요 활동 내용 없음.

6-2-4. 기타

1) 평화·통일운동, 여성운동, 군축활동 등 관련 활동

(1) EGEP(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2012 Winter Open Forum 참가 & 토론

- 일시: 2013년 1월 11일(금) 15:30
- 장소: 이화여대 포스코관
- 주제: Asian Women Activists Make Changes(변화를 만드는 아시아여성연대)
- 참가: 김정수

(2) 한국어성정치연구소 세미나 참석 & 토론

- 일시: 2013년 1월 14일(월) 16:00-18:00
- 장소: 롯데시티호텔 회의실
- 주제: 독일통일과 여성 & 탈북여성의 통일외식조사

- 참가: 김정수
- (3) 「고양 600년」과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 실현을 위한 평화인권도시 국제 심포지엄, “국가폭력과 평화인권 프로세스” 토론회
 - 일시: 2013년 2월 14일(목) 13:30~15:30
 - 장소: 고양 일산 KINTEX 401-402호
 - 참가: 정경란(토론자)
- (4) 가장여신도회 전북연합회 이동강좌 강의
 - 일시: 2013년 3월 26일(화)
 - 장소: 전주 태평교회
 - 주제: 여성, 평화를 만드는 힘(?)
 - 참가: 김정수
- (5)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각계인사 연석회의 및 기자회견
 - 일시: 2013년 4월 11일(목) 10시 30분(연석회의), 기자회견(11시30분)
 - 장소: 프란치스코 회관 2층 대강당
 - 참석: 정경란
 - 기자회견 내용: “한미 양국 정부에게 보내는 호소문”북측 당국에 보내는 특별서한 발표
 - 연석회의 내용
 -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각계인사 연석회의’(약칭 한반도평화연석회의) 구성에 합의.
 - 한반도평화연석회의는 각계 평화 대화를 추진하고 한반도 군사충돌 방지를 위한 각계 각 지역 긴급행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의회, 정부와의 평화협력을 모색하고 시민평화 제안과 민간외교를 펼쳐나가기로 함.
- (6)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 일시: 2013년 5월 15일 11:00-
 - 장소: 서울시장 시민청 지하2층 (터평홀)
 - 참가: 정경란(상임운영위원)
- (7)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 발족기자회견
 - 일시: 2013년 5월 15일 13:20-
 - 장소: 서울시장 신청사 정문 앞쪽
 - 참가: 김성운, 여혜숙, 김정수(위원), 정경란(상임운영위원, 사회)

- (8)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정책포럼 참석 & 제넌도의
- 일시: 2013년 7월 3일(수) 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 참가: 김정수
- (9) [토론회] 한반도 평화정책 보고서 발표회 "정전 60년, 휴전에서 평화로!"
- 일시: 2013년 7월 25일 14:00
 -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
 - 발표: 정경란
- (10) 평화활동가 간담회
- 일시: 2013년 8월 22일(목) 16:00~18:00
 - 장소: 참여연대 4층 회의실
 - 참석: 최민정
 - 인간: 하반기 평화활동 사업 논의
- (11)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 시민선언자 참가 독려
- 일시: 2013년 10월 21일(월)
 - 참가: 본 회 회원 30명
- (12) 2013 DMZ 60주년 제 1회 국제 종교인 한반도 평화회의 참석 & 발제
- 일시: 2013년 10월 26일(토)
 - 장소: 철원 <DMZ 평화문화광장> (국경선 평화학교)
 - 주제: "남북한 평화 형성의 영리 윤리적 소명"
 - 참가: 김정수 (여성평화운동가의 관점에서)
- (13)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에 기고
- 주제: 시민교육 - 평화와 시민교육: 평화교육과 일상의 평화 (2013년 11월)
 - 기고: 김정수
 - 주소: <http://www.suwonedu.org/suwon/newsletter/35385>
- (14)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추가 수출금지 촉구 기자회견 공동주최
- '더 이상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려서는 안 된다'
- 일시: 2013년 12월 4일(수) 11:00~12:00
 - 장소: 외교부 정문 앞
 - 참석: 최민정
 - 내용: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최루탄 수출 중단 촉구
제3국을 경유한 편법적인 최루탄 재수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 (15)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관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자문회의
- 일시: 2013년 12월 4일 10:00
 - 장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 참가: 정경란
- (16) 우리겨레하나되기 예비대의원·활동가 워크숍 참가
- 일시: 2013년 12월 14일(월) 13:30-
 - 장소: 한국노총중앙연수원
 - 참가: 김정수
- (17) 남북평화재단 평화교육 매뉴얼 연구작업 참여
- 주제: 평화·갈등해결론을 기반으로 한 통일교육 실습매뉴얼 연구개발
- 청소년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통일부 지원사업)
 - 참가: 김정수
- (18)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평화적 갈등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훈련” 진행
- 일시: 2013년 12월 화, 목 8회 20시간
 - 장소: 부천본부 모입방
 - 참가: 김정수 (부천본부 평화교육위원장)
- (19)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 위촉
- 위촉자: 여해숙, 양천구 위원, 정경란: 강북구 위원
- (20)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운영위원 위촉
- 활동: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운영위원 모임, 월례포럼, 6.15정상선언, 10.4정상선언 학술회의 등 참석
 - 위촉자: 김정수
- (21)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위원 위촉: 정경란
- 활동: 서울시 남북협력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며 2번의 서면심의와 2번의 모임에 참석.
- (22) 서울시 공리자문리위원회 회의
- 참석: 여해숙
 - 일시: 1/25, 3/22, 6/31, 7/19, 9/27 11:00-12:00

2) 기타

- (1)故이우정선생님 추도예배
- 일시: 2013년 5월 30일(목) 18:00-

- 장소: 기독교회관 2층 조예홀
- 참석: 여혜숙, 정경란
- 내용: 주도예배 및 장학금시상식

(2) 조각보 집들이 행사

- 일시: 2013년 3월 6일(수) 17:00
- 참석: 여혜숙(축사)

(3) POSCO-YWCA 건강학 학교문화 만들기 '우리학교는 천천 와이콰이존' 자문위원회(참석: 여혜숙)

- 1차: 3/8일(금) 14:00~17:00, 013년도 천천공감프로그램 구성 및 제안, 교과부 어울림 프로그램 협력 제안 검토의 건
- 3차: 12/16일(월) 10:00~12:00, 2013년도 천천공감프로그램 평가, 2013년도 사업방향 검토

(4) 햇살사회복지회 11주년 기념행사 참석

- 일시: 2013년 5월 14일(화) 15:00
- 장소: 평택 햇살사회복지회
- 참가: 여혜숙(축사), 권점옥 이사

(5)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10주년 행사 참석

- 일시: 2013년 5월 30일(목) 17:00
- 장소: 종로
- 참가: 정경란

(6) 전국여성연대 후원행사 참석

- 일시: 2013년 6월 22일(토) 17:00
- 장소: 라페스타
- 참가: 정경란

(7) 기지촌 여성 이야기 연극

- 일시: 2013년 7월3일(수) 19:00~
- 장소: 구로아트밸리

(8) 한국여성재단 짧은여행 진호흡 프로젝트(참석:김지호)

- 사전워크샵
 - 일시: 2013년 8월 22일(목)
 - 장소: 한국여성재단 1층 교육장
 - 내용: 참여인원 소개 및 준비물 안내 등

- 짧은여행 김호흠
 - 일시: 2013년 9월 25일(수)~9월30일(월)
 - 장소: 필리핀 세부 & 보홀
 - 내용: 여성활동가 비전여행
- 최종보고회
 - 일시: 2013년 11월 29일(금)
 - 장소: 교보생명 12층 세미나실
- (9) 한국여성재단 후원의 밤
 - 일시: 2013년 12월 6일 18:00
 - 장소: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 참가: 정경란
- (10) 우리민족서로돕기 후원의 밤
 - 일시: 2013년 12월 9일 18:30~
 - 장소: CCMM빌딩 12층 컨벤션홀
 - 참가: 정경란
- (11) 한국여성재단 릴레이 100인 기부: 이금이 & 여혜숙

6-3. 국제연대

<2013년>

- 1) GPPAC
- 2) Women Peacemaker Program

6-3-1. GPPAC활동

- 1) Letter of Congratulations to Phumzile Mlambo-Ngcuka 발송
 - 일시: 2013년 7월 12일
 - 참가: 정경란
 - 내용: GPPAC 젠더포컬포인트(Gender Focal Points)들은 신임 유엔 여성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 Phumzile Mlambo-Ngcuka 취임 축하 편지(Letter of Congratulations to Phumzile Mlambo-Ngcuka)를 발송.

2) GPPAC 동북아 운영위 및 국제회의

(1) “해양평화에 대한 국제회의”

- 일시: 2013년 8월3일
- 장소: 대만 국립대학 법학관
- 발표: 정경란 (“NLL과 한반도 평화” 주제발표)

(2) 현장 탐방 및 어부조합 관계자와 간담회

- 일시: 2013년 8월4일
- 장소: Turtle Island 현장방문 및 어부조합 관계자와 간담회
- 참가: 정경란

(3) GPPAC 동북아 운영위원회 회의

- 일시: 2013년 8월5일
- 장소: 대만 타이베이
- 참가: 정경란
- 내용: 평화여성회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활동 보고 및 GPPAC 동북아 원더포럼포인트 임명됨.

3) 한국전쟁 종료와 평화조약 서명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Global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and to Sign a Peace Treaty)

- 행동주간: 2013년 7월 22일(월)~28일(일)
- 내용
 - 목표
 - 가. 2013년 한국전을 끝내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 나. 평화체제를 수립해 동아시아를 비핵무기화대로
 - 다. 동아시아에 평화와 협력을
 - 지원 요청-공동 행동 요구
 - 가. 평화성명서 지지 또는 코멘트를 보내고 캠페인을 알린다
 - 나. 6자회담국 같은 적절한 정부 대사관에 호소편지를 보낸다
- 주최: 글로벌준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동북아시아,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평화와 비군사화를 위한 실무그룹(The Working Group for Peace and Demilitariz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국

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4) 젠더포털포인트 설문조사

- 일시: 2013년 10월 30일
- 참가: 정경란
- 내용: GPPAC 젠더 포털포인트의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가

5) 한국의 1325호 활동 Peacewomen웹사이트 게재

- 내용: GPPAC를 통해 한국의 1325호 활동이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의 1325호 프로젝트 사이트인 Peacewomen 웹사이트 (www.peacewomen.org)에 소개됨.
- 주소: http://www.peacewomen.org/portal_initiative_initiative.php?id=1759

6-3-2. Women Peacemaker Program

1) WPP(Women Peacemaker Program) 참가

- 일시: 2013년 4월 2일(화)~9일(화)(트레이닝프로그램), 10일(수)~11일(목)(협의회)
-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참석: 김정수(아시아지역 실행위원)
- 내용: 아시아지역GSANV(Gender Sensitive Active Nonviolence) ToT(Train for Trainers) 프로그램 & 아시아지역협의회 참석
- 언론보도: 여성신문 기고(김정수, 4월 23일자)
“침실에서 협상회의실까지 여성들은 비폭력평화를 원한다.
- 기타: 아시아지역 실행위원회 화상회의(2013년 12월 12일(목) 등 3회)

6-3-3. 기타

1) 제57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 일시: 2013년 2월 28일(목)~3월 9일(토)
- 장소: 뉴욕
- 참석: 정경란
- 내용: United Methodist Women과 Korean Policy Institute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와 여성” 워크숍에서 발표 및 1325호 관련 국제단체 활동 배움.

6-4. 협력사업

<2013년>

1) 대선헌화여성회

- 1325네트워크 참여, 여성평화행동 참여 촉구

7. 부설 갈등해결센터

7-1. 회의

7-1-1. 구성

- 1) 소장: 김선헌
- 2) 운영위원회: 김선헌(센터 소장), 김영진, 김정아, 김지호(본회 사무총괄 담당자), 박인혜, 박재신, 이경순, 이덕경, 조영희
- 3) 연구원: 박수선
- 4) 사무국: 명희(활동가), 이주원(활동가)

7-1-2 운영위원회의

- 1) 역할: 갈등해결센터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갈등해결센터의 주요 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센터의 장, 본회 사무총괄 담당자, 일반 운영위원
- 3) 내용
 - (1) 제1차: 2/5(화) 18:30~22:00, 사업보고, 연중 사업 계획 수립, 홈페이지 수정 건, 10주년 관련 건, 토래조정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모으기 등
 - (2) 제2차: 3/11(월) 18:30~22:00, 사업보고, 강사트레이닝 개최건, 홈페이지 수정 계획안 등
 - (3) 제3차: 4/16(화) 18:30~22:00, 사업보고,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토래조정 강사훈련 교육진행팀 구성에 관한 건, 청소년평화리다십캠프 준비, 10주년기념사 등

- (4) 제4차: 5/21(화) 18:30~22:00, 사업보고, 10주년준비위원회 보고, 토레조정 강사 민간 자격증화 추진 기획안 검토 등
- (5) 제5차: 6/24(월) 18:30~22:00, 사업보고, 청소년평화리더십캠프 진행 전, 토레조정 시범사업 진행사항 보고 등
- (6) 제6차: 8/20(화) 18:30~22:00, 사업보고, 상반기 사업평가,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조직진단과 발전방향을 위한 센터 워크숍 등
- (7) 제7차: 9/24(화) 18:30~22:00, 사업보고, 10주년 행사 기획안 검토 및 논의, 10주년 활동 자도집(안) 검토, 조직진단 기획회의의 결과 공유 및 논의, 교육부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한 센터의 대응 등
- (8) 제8차: 10/22(화) 18:30~22:00, 사업보고, 10주년 행사 점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수요생의 후속모임 지도에 관한 전, 토레조정 강사들의 강의역량 향상과 유지를 위한(네트워크) 방안 등
- (9) 제9차: 11/19(화) 18:00~20:30, 10년 기념 잔치 평가, 운영위원 MT 및 송원의 전, 2013년 사업 평가 및 2013년 계획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등
- (10) 제10차: 12/17(화) 18:00~21:30, 2013년 사업 총평, 2014년 사업계획, 갈등해결센터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2014년 예산안 논의

7-1-3. 사무국회의

- 1) 역할: 센터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 논의, 진행사업 점검하고 공유한다.
- 2) 구성: 소장, 실무활동가로 구성한다.
- 3) 사업내용: 매주 월요일 정례회의

7-1-4. 평가

- 정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회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특히 사무국회의를 통해 일상적인 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7-2. 학교평화커뮤니티 사업

<2013년 사업계획>

- (1) 학교별 평화커뮤니티 사업: 평화교육, 포레조정, 가해자-피해자 대화모임을 학교별로 코디네이터가 추진(연간)
- (2) 청소년 평화리더십 캠프
- (3) 평화교육, 회복적 학생지도 등 정책화 활동(연간)

7-2-1. 교사 학부모대상 갈등해결교육

- 1) 지속가능발전교육 중등교원 심화연수 '학교폭력과 갈등조정 스쿨'
 - 일시: 2013년 1월 14일(월), 17일(목) 각 2시간
 - 장소: 동국대학교, 부산대학교
 - 참가자: 교사 80명
 - 강사: 김선훈
- 2) 조정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및 평화적 갈등해결 직무연수
 - 일시: 2013년 1월 28일(월)~2월 1일(금), 총 30시간
 - 장소: 원안 불당중학교
 - 참가자: 교사 48명
 - 강사: 김선훈, 김영진, 박인혜, 이덕정
 - 주최: 충청남도교육청
- 3) 금촌교 교사연수
 - 일시: 2013년 2월 13일(수)~15일(금), 5시간씩 3회
 - 강사: 박수현
- 4) 안산 성포중 교사교육
 - 일시: 2013년 4월 1일(월), 90분
 - 참가자: 15명
 - 강사: 김선훈
 - 내용: 교실 내 갈등 다루기

5) 광천여중 교사연수

- 일시: 2013년 4월 26일(금), 27일(토), 총 10시간
- 강사: 박수선
- 내용: 갈등해결과 토래조정 연수

6) 신송초 교사연수

- 일시: 2013년 6월 21일(금) 1시간
- 강사: 여혜숙

7) 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 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6월 10일~7월 10일 매주 월, 수 10회기
- 강사: 김선희, 박수선, 박인혜, 여혜숙

8) 석촌중학교 교사교육

- 일시: 2013년 6월 13일(목), 2시간30분
- 강사: 김선희

9) 동암중 교사연수

- 일시: 2013년 7월 15일(월), 1시간
- 강사: 이은영

10) 북가좌초 교사공부모임

- 일시: 2013년 9월 5일(목), 2시간
- 참가자: 9명
- 강사: 김영진
- 내용: 토래조정 이해

11) 고양 대곡초등학교 학부모교육

- 일시: 2013년 9월 5일(목), 2시간
- 강사: 박수선

12) 강릉중학교 교사연수

- 일시: 2013년 9월 11일(수), 2시간
- 장소: 김선희
- 내용: 토래조정 이해

13) 춘천농업고등학교 교사교육

- 일시: 2013년 9월 11일(수), 1시간
- 참가자: 25명
- 강사: 전삼희
- 내용: 토래조정의 이해

14) 예봉초등학교 교사연수

- 일시: 2013년 9월 12일(목), 1시간
- 강사: 이덕경
- 내용: 학생과의 평화로운 소통

15) 안남고 교사연수

- 일시: 2013년 9월 16일(월), 1시간
- 강사: 김영진
- 내용: 토래조정 이해

16) 범박초등학교 학부모회

- 일시: 2013년 9월 24일(화), 10월 10일(목), 각 2시간
- 장소: 범박초등학교 강의실
- 참가자: 30명
- 강사: 김선희
- 내용: ‘자녀와 의사소통,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갈등, 위기를 기회로’

17) 인양 귀인중학교 학부모교육

- 일시: 2013년 9월 25일(수), 1시간 30분
- 강사: 박수선

18) 광명 온신초등학교, 광명클러스터 교사교육

- 일시: 2013년 9월 25일(수), 10월 16일(수), 각 2시간
- 강사: 박수선

19) 고하고등학교 학부모교육

- 일시: 2013년 9월 25일(수), 2시간
- 강사: 박수선

20) 안암여자중학교 교사연수

- 일시: 2013년 10월 1일(화)
- 강사: 이덕경
- 내용: 갈등해결과 평화

21) 비제원고등학교, 또래조경 경기북부권 지도교사 교육

- 일시: 2013년 10월 8일(화), 3시간
- 강사: 박수선

22) 화성금곡초등학교 교사연수, 학습공동체내의 평화적 갈등해결

- 일시: 2013년 10월 10일(목), 17일(목), 12월 9일(월), 18일(수) 각 2시간
- 장소: 화성초등학교 교실
- 참가자: 10명
- 강사: 김선혜
- 내용: '갈등, 기회로 만들 것인가? 위기로 만들 것인가?', '문제해결 과정',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회복적 관점에서의 학생 지도'

23) 고양교육지원청, 학부모만족도 조사 컨설팅 위원 교육

- 일시: 2013년 10월 11일(금), 1시간
- 장소: 일산컨벤션고등학교
- 참가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컨설팅위원 20명
- 강사: 김선혜
- 내용: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와 학부모 역할

24) 장도초등학교 학부모연수

- 일시: 2013년 10월 15일(화), 2시간
- 참석자: 12명
- 강사: 김영진
- 내용: 관계를 좋게 하는 의사소통

25) 고양 덕이도서관 학부모교육

- 일시: 2013년 10월 22, 29일, 11월 5, 12일 매주 화요일 각 90분
- 장소: 덕이도서관 1층 열람실
- 참석자: 고양지역 내 학부모 25여명
- 강사: 이덕경, 김영진
- 내용: 자녀와의 평화로운 소통(갈등 이해, 의사소통, 분노 다루기, 조정이해)

26) 화성 팔탄초등학교 교사교육

- 일시: 2013년 10월 25일(금), 2시간
- 장소: 팔탄초 도서관
- 참석자: 10명
- 강사: 이덕경
- 내용: 갈등해결과 평화

27) 의정부 교육지원청(의정부 함교육학부모회) 학부모교육

- 일시: 2013년 11월 8일(금), 15일(금), 22일(금) 각 3시간
- 장소: 의정부교육지원청 별관
- 강좌명: 학교폭력예방 학부모 심화과정
- 참석자: 22명
- 강사: 김선혜, 박인혜
- 내용: 책임과 존중을 배우는 학교 폭력 해결방법, 피해 가해 대화모임 진행, 조정자 역할 배우기

28) 안양삼봉초 학부모교육

- 일시: 2013년 11월 15일(금), 2시간
- 장소: 안양삼봉초 도서관

- 강사: 이덕경
- 내용: 자녀와의 평화로운 소통

29) 동남초등학교, 교사연수

- 일시: 2013년 11월 25일(월) 15:00~17:00(2시간)
- 강사: 김영진
- 내용: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30) 군자초등학교, 교사연수

- 일시: 2013년 12월 2일(월) 15:00~16:30(90분)
- 강사: 김영진
- 내용: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7-2-2. 도래조정 운영학교 도래조정자 훈련

1) 관악중학교

(1) 도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3/22(금), 5/3(금), 31(금), 6/21(금), 7/12(금), 13(토), 8/23(금), 9/13(금), 10/ 11(금)
- 참가자: 1~3학년 25명
- 강사: 김영진, 김진희

(2) 도래조정자 캠프

-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4교시
- 강사: 김진희, 이은영
- 내용: 도래조정홍보

(3) 도래조정반 추수지도

- 일시: 2013년 11월 15일(금) 15:30~17:00 (90분)
- 장소: 관악중학교 도래조정실
- 참석자: 관악중학교 도래조정자 11명
- 강사: 김영진, 김진희
- 내용: 의사소통 복습, 조정실습

2) 신송초등학교

(1)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4월 3일, 10일, 17일, 24일(수), 26일(금), 각 5교시
- 참가자: 4~6학년 20명
- 강사: 김영진, 이은영

(2) 토래조정반 추수지도

- 일시: 2013년 11월 1일(금), 40분
- 장소: 신송초등학교 4학년 3반 교실
- 참석자: 4~6학년 토래조정자 21명
- 강사: 김영진
- 내용: 조정설습

3) 금천고등학교

(1)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4/19(금), 5/31(금), 6/7(금), 9/6(금)
- 참가자: 1~2학년 32명
- 강사: 이덕정, 이은영

(2) 토래조정반 추수지도

- 일시: 2013년 10월 18일(금), 11월 1일(금), 각2교시
- 참석자: 1~2학년 32명
- 강사: 이덕정(2학년), 이은영(1학년)

4) 동암중 토래조정자훈련

- 일시: 2013년 5/4(토), 11(토), 25(토), 6/8(토), 15(토), 22(토), 총 24차시
- 참가자: 1~3학년 17명
- 강사: 이은영, 유은주

5) 동양중 토래조정자 훈련

(1)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5/22(수), 6/19(수), 7/11(목), 15(월), 17(수), 18(목), 22(월), 23(화), 각2교시
- 참가자: 60여명

- 강사: 김영진, 김진희

(2) 토래조정반 추수지도

- 일시: 2013년 11월 20일(수) 5-6교시(90분)
- 참가자: 동양중학교 토래조정자 59명
- 강사: 김영진, 김진희
- 내용: 조정사례 피드백, 조정실습

6) 안남고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5월 31일(금), 6월 28일(금)-29일(토)
- 참가자: 24명
- 강사: 김세환, 김영진

7) 불곡고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6/10(월), 17(월), 8/12(월), 13(화), 16(금), 19(월), 각4시간
- 강사: 여혜숙, 채지영

8) 안산 선부고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6/12(수), 26(수), 7/12(금), 17(수), 20(금), 8/21(수), 28(수)
- 강사: 이은영, 유은주

9) 향일고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6/15(토), 22(토), 7/13(화), 22(월), 총24차시
- 강사: 유은주, 엄금옥

10) 여주제일중 토래조정자훈련

- 일시: 2013년 6/19, 26(수), 7/10, 17(수), 20(토), 23(일), 총 24차시
- 참가자: 1-3학년 16명
- 강사: 정현주, 박희진

11) 원주공고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7월 4일(목), 5(금), 15일(월), 총 24차시
- 강사: 이덕경, 전상희

12) 포곡고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7/8(월), 10(수), 15(월), 8/9(금), 10(토), 총 24차시
- 강사: 채지영, 엄금옥

13) 춘천농공고 토래조정자훈련

- 일시: 2013년 7/9(화), 10(수), 11(목), 8/21(수), 9/11(수), 총 24차시
- 강사: 전상희

14) 상장중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7/10(수), 15(월), 18(목), 22(월), 총 24차시
- 강사: 김영진, 여혜숙, 전상희

15) 인왕중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7월 12일(금), 13일(토), 7교시
- 강사: 김정아

16) 평원중 토래조정자훈련

- 일시: 2013년 7월 17일(수), 18일(목), 8월 14일(수), 총 24차시
- 강사: 전상희

17) 효성고 토래조정자훈련

- 일시: 2013년 7/19(금), 20(토), 26(금), 29(월), 총 24차시
- 참가자: 1학년 29명
- 강사: 유은주, 엄금옥

18) 강릉중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7/22(월), 23(화), 24(수), 25(목), 총 24차시
- 강사: 김정아, 전상희

19) 용인성북중학교

(1)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7월 23일(화), 24일(수), 25일(목), 26일(금)

- 강사: 여혜숙, 김정아

(2) 도래조정반 추수지도

- 일시: 2013년 9월 10일(화), 4시간
- 강사: 여혜숙

20) 신림고 도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8월 15일(목), 18일(일), 25일(일)
- 강사: 이덕정, 이은영

21) 연남고 도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8월 30일(금), 31(토), 9시간
- 강사: 이덕정, 김진희

7-2-3. 일반학교 도래조정자 훈련

1) 금촌고 도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2월 14일(목)~15일(금), 5시간씩 3회
- 참가자: 1~2학년 36명
- 강사: 김영진, 김정아, 박재신, 이덕정

2) 강명초 도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3/14(목), 28(목), 4/11(목), 25(목), 5/9(목), 23(목), 6/27(목),
각 60분, 8회차
- 참가자: 12명
- 강사: 이덕정

3) 인천과학고 도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3월 18일(월)~22일(금), 2시간씩 5회 총 10시간
- 참가자: 16명
- 강사: 이덕정

4) 구로남초등학교

(1) 도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3/18, 25, 4/1, 8, 15, 22, 29, 5/13, 매주 월요일, 각 2교시
- 참가자: 5학년 18명
- 강사: 이덕경

(2) 토래조정동아리 추수지도

- 일시: 2013년 9/16, 23, 30, 10/7, 14, 21, 28, 11/4, 11, 18, 25, 매주 월요일, 각 2교시
- 참가자: 구로남초 토래조정자 5학년
- 강사: 이덕경

(3) 토래조정반 서울가정법원 견학

- 일시: 2013년 4월 16일(화)
- 안내: 이덕경, 이주원

5) 인천고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4월 10일(수), 5월 22일(수), 각 3시간
- 참가자: 18명
- 강사: 이덕경

6) 인천생활과학고 토래조정자 훈련

(1)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4/11, 18, 25, 5/9, 16, 23, 31, 6/13, 20, 매주 목요일, 3교시
- 참가자: 27명
- 강사: 김영진

(2) 토래조정반 추수지도

-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3:40-6:00(150분)
- 참가자: 토래조정자 34명
- 강사: 김영진
- 내용: 조정사례 피드백, 조정실습

7) 신흥중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4/11(목), 13(토), 27(토), 5/25(토), 6/8(토), 6/22(토), 7/19(금), 각 3교시
- 강사: 김영진

8) 파주해솔중 토래조정자 훈련(1기, 2기)

- 일시: 2013년 6/15(토), 7/13(토), 20(토), 22(월)~25(목), 각 6시간
- 강사: 이덕경, 박수선

9) 임곡중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7월 9일(화), 16일(화) 각5교시
- 참가자: 21명
- 강사: 김영진

10) 인수중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7/26(금), 31(수), 8/2(금), 7(수), 9(금), 14(수), 총 24시간
- 강사: 이덕경, 김진희

11) 파주청소년문화의집, 파주지역 토래조정자 심화교육

- 일시: 2013년 8월 7일(수), 8일(목)
- 강사: 김영진, 김정아

12) 인천미추홀외고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9월 2일(월)~6일(금), 총15시간
- 강사: 이덕경

13) 용일초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10/16(수), 23(수), 30(수), 각 2교시
- 장소: 용일초등학교 6학년 5반 교실
- 참석자: 4~6학년, 39명
- 강사: 김영진
- 내용: 토래조정교육(의사소통, 조정실습)

14)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 토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10월 28일(월), 2시간
- 참석자: 4~6학년 토래조정자 39명
- 강사: 김영진

15) 청운초 또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11월 5일, 12일, 19일, 26일, 12월 3일, 10일, 17일 각2시간(총 14시간)
- 참석자: 5학년 5반 학생 24명
- 강사: 이덕경, 김진희
- 내용: 학급 내 갈등해결을 위한 또래조정

16) 창덕여중 또래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11월 14일(목), 2시간
- 참석자: 창덕여중 또래조정자 19명
- 강사: 이덕경
- 내용: 또래조정기술과 실습

7-2-4. 그 외 청소년 교육

1) 미양초, 비폭력 평화교육

- 일시: 2013년 2월 4일(월)
- 참가자: 5학년
- 강사: 김영진, 이덕경, 이현숙

2) 신미림초, 비폭력 평화교육

- 일시: 2013년 2월 5일(화), 6일(수), 각2교시
- 참가자: 5학년 100명
- 강사: 이덕경

3) 상동초,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 일시: 2013년 2월 7일(목) ~ 8일(금), 각1교시
- 참가자: 5-6학년 8개반
- 강사: 김정아

4) 청원초, 비폭력 평화교육

- 일시: 2013년 2월 8일(금), 2교시
- 참가자: 4,5학년, 170명
- 강사: 이덕경

5) 수원여고,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 일시: 2013년 2월 26일(화), 2교시
- 참가자: 2학년 25명씩 2개반
- 강사: 김영진, 이덕경

6) 과천중, 학교폭력 예방교육

- 일시: 2013년 3월 15일(금), 각1교시
- 참가자: 1학년 10개반
- 강사: 김영진, 김정아, 유은주, 이덕경, 채지영

7) 춘천여행의집, 갈등해결과 또래조정

- 일시: 2013년 3월 19일(화), 2시간
- 참가자: 130명
- 강사: 이덕경

8) 영중초, 임원수련회

(1) 1차

- 일시: 2013년 3월 27일(수), 2시간
- 참가자: 3~6학년, 72명
- 강사: 김영진, 김정아, 박재신, 이은영

(2) 2차

- 일시: 2013년 9월 11일(수), 2시간
- 참가자: 3~6학년, 72명
- 강사: 김영진, 김정아, 김전희, 이덕경

9) 의정부부평생협 조합원 자녀교육

- 일시: 2013년 4/1, 8, 15, 22, 29, 5/6, 13, 20, 27, 6/3, 매주 월요일,
각 1시간
- 참가자: 저학년/고학년 2개반
- 강사: 이현숙
- 내용: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 10) 임곡중, 학교폭력 예방교육
 - 일시: 2013년 4월 4일(목) (1학년), 5월 6일(월) (3학년) 각 2교시
 - 참가자: 1, 3학년 10개반
 - 강사: 김영진, 박인혜, 성희정, 유은주, 이덕경, 이은영
- 11) 편곡중,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 일시: 2013년 4/5(금), 5/10(금), 6/14(금), 7/5(금), 8/23(금), 9/6(금), 각 2시간
 - 참가자: 21명
 - 강사: 여혜숙, 문경아
- 12) 의정부여중, 갈등해결교육
 - 일시: 2013년 6/7, 14, 21, 28, 매주 금요일, 각2교시
 - 강사: 여혜숙, 문경아
- 13) 원당중,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 일시: 2013년 7월 16일(화), 17일(수), 총 5시간
 - 참가자: 3학년 9개반
 - 강사: 이덕경, 김선혜, 김정아, 김진희, 명희, 여혜숙, 엄금옥, 유은주, 이현숙
- 14) 천도교 한울나눔터
 - 일시: 2013년 8월 2일(금), 2시간
 - 참가자: 초~고등 35명
 - 강사: 김영진
 - 내용: 갈등해결과 평화로운 의사소통
- 15) 수원 구운중, 분노조절
 - 일시: 2013년 8월 22일(목), 2시간
 - 강사: 이덕경
- 16) 천도교 통일기행
 - 일시: 2013년 8월 23일(금), 2시간

- 참가자: 고등1~3학년 35명
- 강사: 김영진
- 내용: 갈등해결프로그램

17) 김포 가현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편견·다양성

- 일시: 2013년 9월 2일(월)
- 참가자: 5학년4개반
- 강사: 이덕경, 김진희

18) 과주 청석초, 갈등해결과 평화

- 일시: 2013년 9월 4일(수)~5일(목), 각1시간씩 총 5시간
- 참가자: 5학년 5개반
- 강사: 이덕경

19) 춘천청소년수련관, 갈등해결과 평화

- 일시: 2013년 9월 7일(토), 3시간
- 참가자: 고등 20명
- 강사: 이덕경

20) 남양주 예봉초, 학교폭력예방교육

- 일시: 2013년 9월 12일(목), 2시간
- 강사: 이덕경
- 내용: 평화로운 대화

21) 광주 선동초, 학교폭력예방교육

- 일시: 2013년 9월 26일(목), 2시간
- 강사: 이덕경
- 내용: 카툰과 통신법

22) 무천 중흥고

- 일시: 2013년 10월 4일(금)
- 강사: 이덕경

- 내용: 폭력과 분노의 다스림

23) 용인YMCA, 갈등해결과 평화

- 일시: 2013년 10월 15일(화), 2시간
- 강사: 이덕경

24) 성호중, 갈등해결과 평화

- 일시: 2013년 10월 17일(목), 2교시
- 참가자: 1학년 2개반
- 강사: 이은영, 엄금옥

25) 온신초,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 일시: 2013년 10월 18일(금), 학년별 2교시, 총4교시
- 참석자: 5, 6학년
- 강사: 김영진

26) 남양주 양오중, 비폭력 평화

- 일시: 2013년 10월 23일(수), 2시간
- 참석자: 1학년2반 34명, 2학년 2반 37명
- 강사: 이덕경, 김정아

27) 수원 지동초,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갈등해결

- 일시: 2013년 10월 25일(금), 2시간
- 참석자: 5학년 3반
- 강사: 이덕경

28) 부천 도봉이쉼터, 분노조절과 소통

- 일시: 2013년 10월 28일(월)~29일(화), 각3시간
- 참석자: 부천시 관내 학교폭력 및 부적응 중학생 7명
- 강사: 박인혜

29) 인천 농허대초,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 일시: 2013년 11월 13일(수), 각 2시간
- 참석자: 농허대초 5학년 6개반
- 강사: 이덕경, 김영진, 김진희

30) 관악중, 학교폭력예방교육

- 일시: 2013년 12월 23일, 26일(월, 목) 2~4교시
- 장소: 관악중학교 1, 2학년 교실
- 참가자: 관악중학교 1, 2학년 각 6개반
- 강사: 김영진, 김진희
-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해결에 도움이 되는 토론회 조정 이해

31) 부천 모퉁이쉼터, 분노조절과 소통

- 일시: 2013년 12월 17일(화), 24일(화)
- 장소: 소명여중학교, 역곡중학교 각 1회
- 강사: 김영진

32) 발곡중학교,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 일시: 2013년 12월 18일, 20일(수, 금) 1~4교시(2교시씩 2개반)
- 참가자: 발곡중학교 1, 2학년 학년별 11개반
- 강사: 이덕경, 김영진, 김정아, 김진희, 문정아, 유은주
- 내용: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갈등해결 교육

33) 구리 인창중학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평화로운 갈등해결

- 일시: 2013년 12월 30일(월) 1~4교시(각 2교시)
- 참가자: 인창중학교 1학년 13개반
- 강사: 이덕경, 김영진, 김정아, 김진희, 명희, 엄금옥, 유은주
- 내용: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갈등해결 교육

7-2-5. 청소년캠프 기획회의

- 일시: 2013년 5월 7일(화), 6월 26일(수)
- 참석 : 김영진, 김진희, 명희, 박재신, 전상희, 이주원

- 청소년캠프 참가자 부족으로 취소

7-2-6. 학교 내 대화모임

1) 의정부 **초등학교 대화모임

- 일시: 예비조정: 2013년 6월 20일(목), 24일(월)
본조정: 2013년 6월 26일(수), 7월 3일(수)
- 대상: 4학년 4명과 그 보호자 4명
- 조정자: 여해숙, 조영희

2) 파주 **중학교 대화모임

- 일시: 2013년 9월 17일(화), 25일(수)
- 조정자: 이덕경, 김진희, 여해숙

3) 제천 **학교 대화모임 조정

- 일시: 2013년 12월 8일(일)
- 조정자: 김선훈, 박인혜

7-2-7. 평가

- 청소년 평화교육이 1~2회의 단기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지역도 인천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향후 더 상세한 교육 정책 분석과 교육 경로 등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평화리더십 캠프는 대상과 운영방식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향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교에서 발생하는 피해가해 대화모임에 센터가 결합하고 지원하기로 하여 향후 학교폭력 해결과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토래조정이 교육부의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어 학생들의 '자율적 문제해결 시스템'으로서 토래조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일선 학교에서 현장에 맞게 적용하고 운영하여 학교 내 평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토래조정의 적용수준이 학교 내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보다는 '교육'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있고,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살리지 못하고 학교 내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 운영되는 등 학교 현장의 현실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전환, 운용되고 있다. 학교의 평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토래조정 프로그램

만이 아니라 평화감수성을 높이고 평화적 문제해결역량을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 아울러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교육의 내용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7.3.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

<2013년 사업계획>

- (1)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위한 강사트레이닝
- (2) 진행전문가 훈련
- (3) 조정전문가 훈련
- (4) 회복적 정의
 - 회복적 정의 조정전문가 훈련
 - 화해권고 사례연구모임
- (5)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및 지원활동

7.3-1.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위한 강사트레이닝

1) 서대문 여성인력개발센터 포럼조정자 강사양성과정

- 일시: 2013년 8월 26일~10월 18일, 월~금 각4시간(총 120시간)
- 장소: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 참가자: 22명(수료자 22명)
- 강사: 김선훈, 김영진, 여혜숙, 이덕경, 전상희
- 기획회의
 - 1차: 5/14(화), 김선훈, 김영진, 여혜숙, 이덕경
 - 2차: 7/2(화), 김선훈, 김영진, 여혜숙, 이덕경
 - 3차: 7/30(화), 김선훈, 김영진, 여혜숙, 이덕경
- 교육내용
 - 기초과정
 - 가. 1강: 갈등해결과 평화입문(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나누기, 갈등과 갈등해결교육이해)
 - 나. 2강: 갈등해결과 평화 이해1(갈등과 갈등해결 이해)
 - 다. 3강: 갈등해결과 평화 이해2(다양한 갈등해결 방법)

- 라. 4강: 협동적문제해결의 원칙과 기술1(갈등 분석하기)
- 마. 5강: 협동적문제해결의 원칙과 기술2(의사소통의 기초 - 듣기와 말하기)
- 바. 6강: 협동적문제해결의 원칙과 기술3(다양한 대안 탐색의 방법)
- 사. 7강: 갈등해결과 평화 이해3(조정 이해-조정이란?, 조정의 원칙, 조정자의 역할)
- 아. 8강: 갈등해결과 평화 이해4(폭력의 개념과 영향,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평화의 개념과 평화형성의 다양한 방법)
- 자. 9강: 청소년에 대한 이해(청소년의 행동 특성과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
- 차. 10강: 학교폭력 해결과 또래조정(또래조정의 이해와 적용, 평화교육과 진행자의 역할, 관점과 태도)

- 입문: 조정 이해

- 가. 11강: 조정실습1(조정의 과정과 절차, 준비단계와 조정 시작)
- 나. 12강: 조정실습2(이야기하기와 조정자의 의사소통)
- 다. 13강: 조정실습3(쟁점정리와 대안 탐색 및 강한 감정다루기1)
- 라. 14강: 조정실습4(강한 감정 다루기2, 합의와 합의문 작성)
- 마. 15강: 조정실습5(조정과정 전체 실습1)
- 바. 16강: 조정실습6(조정과정 전체 실습2)
- 사. 17강: 조정실습7(조정과 조정자의 윤리, 대화)
- 아. 18강: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정의1(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정의의 가치와 내용)
- 자. 19강: 학교폭력 해결과 회복적 정의2(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문제제기)
- 차. 20강: 조정의 적용(조정제도의 현황과 또래조정제도의 적용)

- 심화: 교육진행자와정

- 가. 21강: 교육진행방법론1(또래조정 실습지도 방법, 교육기획안 작성하기)
- 나. 22강: 교육 도구 익히기(시청각 도구 활용 배우기)
- 다. 23강: 교육 시연1(주제별 교육 시연)
- 라. 24강: 교육 시연2(주제별 교육 시연)
- 마. 25강: 교육활동 배우기(수업에 필요한 교육활동 배우기)
- 바. 26강: 교육시연3(수업기획안 작성과 발표, 검토)
- 사. 27강: 교육시연4(수업기획안 작성과 발표, 검토)
- 아. 28강: 교육시연5(수업기획안 작성과 발표, 검토)
- 자. 29강: 교육시연6(수업기획안 작성과 발표, 검토)

차, 30강: 교육시연7(수업기획안 작성과 발표, 검토, 현장실습 계획세우기)

7-3-2. 진행전문가 훈련

- 2013년 진행자훈련은 지역 조정자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함.

7-3-3. 조정전문가 훈련

1)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갈등 조정자훈련

- 일시: 2013년 6/11, 13, 18, 20, 25, 27, 7/2, 4, 매주 화, 목 10:00~13:00(총 24시간)
- 장소: 서대문행무소 강의실
- 참가자: 20명
- 강사: 김선훈, 박수선, 이덕경, 박재신(보조 진행)
- 회의
 - 회계담당자 교육: 4/18(목), 9/9(월) 명희 참석
 - 기획회의
 - 가. 1차: 3/5(화), 김선훈, 박수선, 박재신, 이정순, 이영희, 전상희,
 - 나. 2차: 4/24(수), 김선훈, 박수선, 이영희, 전상희
 - 다. 3차: 6/24(월), 김선훈, 김영진, 김정아, 이덕경
 - 라. 4차: 7/19(금), 김선훈, 전상희, 노지미, 이정자, 정성순, 이영희, 방송희
 - 마. 5차: 8/14(수), 김선훈, 김영진, 김정아, 박수선, 박재신, 이덕경, 전상희
- 교육수요조사
 - 일시: 2013년 3~4월
 - 대상: 20명
- 교육내용
 - 기본과정
 - 가. 1강: 조정이해 - 지역사회와 갈등해결, 조정의 필요성
 - 나. 2강: 갈등해결 이해하기 - 평화적 갈등해결의 기초, 조정자의 역할
 - 다. 3강: 갈등분석 - 분석을 왜 하는가? 다양한 분석 방법 이해 갈등 분석 실습
 - 라. 4강: 조정기술1 - 대화/듣기와 말하기
 - 마. 5강: 조정기술2 - 대안모색과 합의하기
 - 실습과정

가. 6강: 조정실습 1 - 조정단계 및 실습

나. 7강: 조정실습 2 - 조정자의 의사소통

다. 8강: 조정실습 3 - 종합실습, 지역사회와 조정 적용

○ 후원: 서대문구 사회단체 구경참여 지원사업

2) 은평구 평생학습관, 평화적 갈등해결의 길라잡이-갈등해결과 조정

○ 일시: 2013년 10월 8일~12월 10일, 매주 화요일 10:00~13:00(총30시간)

○ 장소: 은평평생학습관 다목적실

○ 참가자: 34명

○ 강사: 김선훈, 여혜숙

○ 회의

- 은평구 평생학습관 간담회: 7/26(금), 명희 참석

- 은평구 평생학습관 세부진행사항협의: 8/1(목), 김선훈 참석

○ 교육내용

- 1강: 평화적 갈등해결의 이해(우리사회의 갈등을 다루는 사회제도와 방법에 대한 이해)

- 2강: 갈등! 없애버려? 갈등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갈등과 갈등해결의 관점,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 3강: 조정과 조정자의 역할(조정과 조정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 조정의 성패 요인)

- 4강: 대화! 대놓고 화내기?(의사소통의 요소, 의사소통의 장애요인과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

- 5강: 관계를 좋게 하는 의사소통(중립적 제3자로서의 의사소통 방법 익히기)

- 6강: 갈등해결의 첫걸음(갈등 분석, 입장과 실제 관심사 찾기)

- 7강: 대안탐색과 합의(자유로운 대안탐색 바임과 공정한 합의하기)

- 8강: 조정의 과정과 절차(조정 단계별 조정자의 역할, 단계별 핵심사항)

- 9강: 조정실습(갈등당사자, 조정자로서 갈등해결 역할 실습)

- 10강: 평화로운 가정과 지역사회, 내 손 안에 있소이다(조정의 적용, 실습)

○ 교육이후 후속 모임: 은평 시민넷 회원 중심으로 소모임 진행하기로 함

3) 학교교육부모회 고양지회, 학교폭력 해결 및 학교공동체의 평화로운 관계 조성을 위한 학부모 리더십 연수 - 갈등해결 조정자 훈련

- 일시: 2013년 10/14, 16, 21, 23, 28, 30, 매주 월, 수 각 3시간 (총 6회)
- 장소: 고양아람누리도서관 회의실
- 참석자: 학부모 19명
- 강사: 김선훈, 박수선, 여혜숙
- 내용: 갈등해결의 기초, 갈등분석, 관계와 신뢰형성을 돕는 의사소통, 다양한 해법 찾기, 실행력을 높이는 결정(브레인스토밍과 의사결정, 서클 경험하기), 엄마는 재판관? - 3자로 문제해결 돕기, 더 듣고 더 말하는 기화-조정 실습, 후속모임-조정실습

7-3-4. 회복적 정의

1) 제6기 회복적정의 조정자훈련

- 일시: 2013년 2월 22일(금), 23일(토), 3월 9일(토) (총24시간)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누리, 서울여성플라자 NGO열린마당
- 참가자: 13명(신규11명/재수강2명), 수료자: 10명
- 기획 및 평가 회의
 - 일시: 2013년 1/9(수), 2/4(월), 2/19(화), 3/9(토)
 - 장소: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참석: 김선훈, 김영진, 이덕경, 여혜숙, 방희, 이주원
- 교육내용
 - 1강: 소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희망 나누기
 - 2강: 회복적 정의
 - 3강: 회복적 정의의 실제
 - 4강: 회복적 정의 조정자의 역할과 기술
 - 5강: 회복적 정의 모델 '피해자가해자대화모임' 절차와 과정 1,2
 - 6강: 과정 종합 실습
 - 7강: 복습
 - 8강: 듣기 나누기
 - 9강: 종합실습 1,2

2) 참교육학부모회, 회복적정의 조정자훈련

- 일시: 2013년 4/9, 16, 23, 30, 5/7, 14, 21, 28, 6/4, 매주 화요일, 9회기
- 강사: 박수선, 김선훈, 이경순, 조영희

○ 후속모임

- 일시: 2013년 7월 16일(화), 8월 13일(화), 10월 15일(화), 11월 12일(화)
- 장소: 한백교회
- 진행: 김선훈, 박수선, 조영희
- 참가자: 6명

3) 화해권고 사례연구모임

- (1) 1차: 2/20(수) 14:00, 김선훈, 김영진, 김정아, 박인혜, 이경순, 이덕경, 내용: 화해권고모임에서 바라 본 학교의 학생지도 문제점
- (2) 2차: 4/4(목) 18:30, 김선훈, 김영진, 박인혜, 이경순, 이덕경, 내용: 법원 화해 권고현장에서 본 학부모의 문제해결 방식

4) 부친지원 회복적사범 시범실시 사업

- (1) 부친지원과 R 네트워크, 포럼관련 사전 준비회의
 - 일시: 2013년 4월 5일(금)
 - 참석: 박수선
- (2) 부친지원, (가칭)회복적 사범 도입을 위한 부친지역 합동 포럼
 - 일시: 2013년 4월 30일(화), 14:00
 - 발제: 박수선
 - 참석: 김선훈, 김정수, 성희경
- (3) 부친지원 주최, 포래조정 운영학교 교장 및 멘토법관 간담회
 - 일시: 2013년 5월 6일(월)
 - 참석: 김선훈
- (4) 부친지원 형사재판에서 회복적 정의 시범 실시를 위한 MOU 체결 및 형사재판 참관
 - 일시: 2013년 9월 5일(목)
 - 참석: 김선훈, 김영진, 김정수
- (5) 부친지원,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정의 피해가해 대화모임 시범사업

○ 조정

- 일시: 2013년 10월 9일(수), 10일(목), 11월 7일(목), 20일(수)
- 진행: 김선훈, 김영진, 김정수, 여해숙
- 진행 사례: 상해 2건

- 부원지원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 종합평가 합동포럼
 - 일시: 2013년 12월 16일(월) 14:00~17:30
 - 장소: 부원지원 대회의실
 - 참가자: 김선훈(발표), 김영진, 김정수, 여혜숙

7.3.5.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및 지원활동

1) 교육활동

- (1) 금천지역자활센터,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 일시: 2013년 2월 14일(목), 2시간
 - 참가자: 성인 25명
 - 강사: 이덕정
- (2) 서울시근로청소년복지관, 가족 내 갈등해결과 평화적 해결 교육
 - 일시: 2013년 3/12, 14, 19, 21, 26, 28, 대구 화, 목 총12시간
 - 참가자: 24명
 - 강사: 이덕정, 박인혜
- (3) 용산구 복지네트워크,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 일시: 2013년 3월 27일(수), 120분
 - 참가자: 15명
 - 강사: 김선훈
- (4) 서울시 인재개발원, 갈등관리와 커뮤니케이션
 - 일시: 2013년 3월 28일(목), 120분
 - 참가자: 25명
 - 강사: 김선훈
- (5) 전북여성단체연합, 갈등과 갈등해결, 조정
 - 일시: 2013년 4월 26일(금), 6시간
 - 강사: 김선훈
- (6) 대구로하스연구소(대구(구)청예단), 분쟁해결 조정코디네이터과정
 - 일시: 2013년 5월 3일(금), 4일(토), 각5시간
 - 참가자: 20명
 - 강사: 여혜숙, 박인혜
- (7) 과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평화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일시: 2013년 4/23(화), 25(목), 30(화), 5/2(목), 각 2시간

- 강사: 박수선
- 내용: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초훈련
- (8) 서울시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갈등해결과 조정
 - 일시: 2013년 5월 14일(화), 15일(수), 각3시간
 - 참가자: 30명
 - 강사: 김선훈
- (9) 언론중재위원회, 갈등관리와 의사소통
 - 일시: 2013년 5월 23(목), 3시간
 - 강사: 김선훈
- (10) 당진여성단체협의회, 분노조절과 자기표현
 - 일시: 2013년 5월 31(금), 3시간
 - 강사: 이덕경
- (11) 은평구 북포동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의사소통과 회의진행
 - 일시: 2013년 5월 31(금), 6월 3일(월), 각3시간
 - 참가자: 6명
 - 강사: 김선훈
- (12) 초록상상 회원과 성교육진행자
 - 일시: 2013년 6월 12일(수), 2시간
 - 참가자: 12명
 - 강사: 김영진
- (13)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보수교육
 - 일시: 2013년 6월 27(목)
 - 참가자: 30여명
 - 강사: 김영진, 여혜숙, 이덕경
- (14)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여성지도력개발 기본과정
 - 일시: 2013년 7월 2일(화), 9일(화)
 - 내용: 대화와 회의의 기술
 - 강사: 김선훈
- (15) 푸른바다생협, 직원 갈등해결교육
 - 일시: 2013년 7월 11일(목)
 - 강사: 박수선
- (16) 마포 화양나눔 부모자녀교육

- 일시: 2013년 7월 13일(토), 20일(토), 총6시간
 - 참가자: 마포지역 초등학생과 학부모 20여명
 - 강사: 김영진, 문정아, 이은영, 김진희
- (17) 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학교안전교육 강사양성과정
-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 강사: 김선희
 - 내용: 또래조정과 평화교육
- (18) 언론중재위원회, 학교갈등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와 언론대응 과정
- 일시: 2013년 7월 22일(월), 8월 8일(목)
 - 강사: 김선희
 - 내용: 조정의 실제
- (19) 아이콜 직원연수
- 일시: 2013년 8/21(수), 22(목), 28(수), 29(목), 9/5(목), 10/8(화), 각2시간
 - 참가자: 120여명
 - 강사: 김선희, 김영진, 여해숙
- (20) 의정부 의제21 교육위원회
- 일시: 2013년 8월 23일(금)
 - 강사: 김선희
 - 내용: 또래조정 소개
- (21) 경기도 평화교육훈련원, 평화교육지도사과정
- 일시: 2013년 9월 6일(금)
 - 참가자: 100여명
 - 강사: 김선희
- (22) 양천마을넷 마을학교, 차이가 힘이 되는 회의 만들기
- 일시: 2013년 10월 8일(화), 3시간
 - 장소: 양천 해누리타운 2층 아트홀
 - 강사: 김선희
 - 참가자: 20명
- (23) 언론중재위원회 공공기관 공보담당자 연속교육
- 일시: 2013년 10월 11일(금), 11월 15일(금), 각 2시간
 - 장소: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장
 - 강사: 김선희

- 참가자: 22명
 - 내용: 갈등해결의 새로운 접근방법 ADR
- (24) 은평학부모네트워크, 갈등해결전문가와 함께 하는 교육수다
- 일시: 2013년 10월 16일(수), 2시간
 - 장소: 은평신나는에프터 강당
 - 참석자: 10명
 - 강사: 김선희
 - 내용: 갈등, 어떻게 다룰 것인가
- (25) 교회개혁실천연대, 나, 세상, 교회를 밝히는 밝힘너 프로젝트(심화과정)
- 일시: 2013년 10월 29일(화), 11월 5일(화), 12일(화)
 - 장소: 함린교회 교육실
 - 참가자: 7~9명
 - 강사: 여혜숙, 김선희
 - 내용: 공감대화 방법론, 분쟁조정 및 화해의 기술 1,2
- (26) 남북평화재단 부천본부 평화통일 아카데미
- 일시: 2013년 11월 6일~ 27일(수) 10:00~12:00(2시간씩 총 8시간)
 - 참가자: 부천지역 주민, 청소년
 - 강사: 김선희
 - 내용: 평화로운 갈등해결 함께 배워요
 - 1강: 평화로운 갈등해결1 - 나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나?
 - 2강: 평화로운 갈등해결2 -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 3강: 싸우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한가?
 - 4강: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 (27) 부천고리울 청소년 문화의집, 직원연수
- 일시: 2013년 11월 26일, 12월 3일(화) 13:00~16:00(3시간씩 총 6시간)
 - 참가자: 부천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 직원 14명
 - 강사: 김영진
 - 내용: 갈등해결과 의사소통
- (28)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갈등해결과 평화
- 일시: 2013년 12월 12일, 12월 16일 회당 150분
 - 장소: 영등포지역자활센터 교육장
 - 참가자: 자활대상자

- 강사: 이덕경
- 내용: 갈등해결과 평화로운 소통
- (29) 서대문 평화교육 소모임 '한물타라' 조정 실습
 - 일시: 2013년 12월 6일, 18일 회당 3시간
 - 장소: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장
 - 진행자: 김선훈
 - 내용: 조정 실습
- (30) 부천 시민생협 총회 준비위원 교육
 - 일시: 2013년 12월 16일 11:00~13:00
 - 장소: 부천 시민생협 교육장
 - 진행자: 김선훈
 - 내용: 의사소통

2) 실천활동

(1) 중간소음 관련

- 중간소음분쟁해결을 위한 바울회의
 - 가. 일시: 2013년 4월 3일(수), 10일(수), 15일(수)
 - 나. 참석: 김선훈, 박수선
- 서대문 홍제동 아파르임주자대표 만남
 - 가. 일시: 2013년 5월 10일(금)
 - 나. 참석: 김선훈, 이주원
 - 다. 내용: 중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갈등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제안 및 조정자 훈련 홍보
- 중간소음관련 서울시 타운홈미팅
 - 가. 일시: 2013년 5월 28일(화)
 - 나. 참석: 명희
- 서대문구청 중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갈등분쟁 조정활동 제안서 제출

(2) 회의 진행

- 시흥시 사회적경제 워크숍
 - 일시: 2013년 3월 15일(금) ~ 16일(토)
 - 진행: 김선훈, 여혜숙, 이경순
 - 내용: 분과별 토론 및 전체 토론 진행

- 주최: 시흥시, 주관: 시흥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 KNCC예류매니칼 정책협의회 워크숍
- 일시: 2013년 4월 29일
- 진행: 김선희, 여해숙
- (3) 인천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학교건설팀단 활동
 - 용현중학교: 10월 2일(수), 김영진
 - 창영초등학교: 10월 10일(목), 김영진
 - 인천만월중학교: 10월 10일(목), 이덕정
- (4) 서울시 개포동 재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갈등조정
 - 기간: 2013년 11월~2014년 2월 (3개월)
 - 참여자: 박수선, 김희경, 이정순
 - 내용: 갈등영향분석, 합의형성절차 설계를 위한 주민의견수렴, 갈등조정 협의회 운영 등

7.3.6. 평가

- 서울 은평, 서대문과 경기 부천시에서 평화교육과 조정자 훈련이 진행되어 지역 평화커뮤니티 주체 형성으로서 의미 있는 해였다. 서대문 지역에서 2011년부터 시작된 활동이, 서울지역 주민참여 실태조사, 진행자·조정자 훈련에 이어 포대조정훈련강사 트레이닝까지 이어져 지역에서 활동 주체가 형성되고 활동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은평지역은 평생학습관과 지역단체와 함께 조정자훈련을 진행하고 부천에서는 교육이후 지속교육 소모임이 구성되어 활동을 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전문가 양성과정으로서 갈등해결과 평화를 위한 강사트레이닝과정을 본회가 주최하지 않은 첫 해이다. 지역 활동의 요구에 부응하고 참가자들의 참가 편의성, 용이성 등을 감안할 때 의미가 있었으나, 본 센터 활동인력의 재생산과 관계형성에 대해 장기적 전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중간소음 분쟁 조정활동 제안서를 내는 등 지역 공동체 갈등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단체와 기관의 회의를 진행하는 등 실천적 영역에서 활동 면위를 다양화했다.

7.4. 연구-정책

<2013년 사업계획>

- (1) 회복적 정의의 현장 적용 현황과 방향
- (2) 갈등해결교육의 현황과 방향
- (3) 사회갈등 영역: 갈등관련 위원회 조례 조사 활동

7.4.1. 토론회

1) 2013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총회 및 초청 강연회

- 일시: 2013년 2월 16일(토)
- 토론자: 김선혜

2) 인권너머+친화, 학교폭력 예방 법률 개정안 토론회

- 일시: 2013년 4월 24일(수)
- 토론자: 이대정

7.4.2. 평가

- 부천지원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대화를 시범 실시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 정의의 적용가능성을 살펴 수 있었으며, ‘갈등해결교육의 현황과 전망’은 갈등해결센터 10주년 자료집에 그간 교육활동을 정리하여 부족하나마 일부 수행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연구정책 사업은 목표에 대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를 전담할 인력이나 주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인력을 배치하기도 어려웠던 현실에 기인한 것이다. 향후 장기적으로 조직 역량을 배치해 나가야 할 것이다.

7.5. 연대사업

<2013년 사업계획>

- (1)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
- (2) 평화교육네트워크
- (3) 사안별 연대 추진

7-5-1. 회복적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

1) 회의

- 일시: 2013년 2월 15일(금), 5월 16일(목), 9월 10일(화), 11월 13일(수)
- 장소: 한국NVC센터
- 참석자: 김선헌

2) 회복적 정의 실천가대회

- 일시: 2013년 12월 13일(금)~14일(토)
- 장소: 함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 참석: 김선헌, 김영진, 박희진, 여혜숙, 이덕경, 전상희, 조영희

7-5-2. 평화교육네트워크

1) 회의

- 일시: 2013년 4월 19일(금) 5월 15일(수)
- 장소: 남북평화재단외
- 참가자: 김영진
- 6월 이후 활동 잠정 중단하기로 함

7-5-3. 기타

1) 2013 평화활동가대회

- 일시: 2013년 11월 20일~23일
- 장소: 충주청소년수련원
- 참석자: 이주원
- 내용: 군사주의와 여성(기지주변 예술총행비자의 모순/두레방), 활동가에게
엄을(트라우마 힐링), peace cafe 등
- 일정표
 - 11월 20일(수)
 - 가. 13:00~14:30 점심식사
 - 나. 14:30~16:00 오리엔테이션 & 세션고르기
 - 다. 16:00~18:00 [주제별 워크샵]
 - 라. 18:00~19:00 저녁식사
 - 다. 19:00~22:00 [Peace Cafe]

- 11월 21일(목)

가. 09:00~10:00 아침식사

나. 10:00~12:00 [주제별 워크샵2]

다. 12:00~13:30 점심식사

라. 13:30~15:30 [세션1]드라우마힐링, 비폭력드레이닝A, 메시지커뮤니케이션 A, 영화

마. 15:30~16:00 휴식

바. 16:00~18:00 [세션2]드라우마힐링, 비폭력드레이닝B, 메시지커뮤니케이션 B, 영화

사. 18:00~19:00 저녁식사

아. 19:00~22:00 [Peace Cafe]

- 11월 22일(금)

가. 09:00~10:00 아침식사

나. 10:00~12:00 [세션3]비폭력드레이닝C, 메시지커뮤니케이션A, 의사소통, 명상, 영화

다. 12:00~13:30 점심식사

라. 13:30~15:30 [세션4]비폭력드레이닝D, 메시지커뮤니케이션B, 의사소통, 재부, 영화

마. 15:30~16:00 휴식

바. 16:00~18:00 한국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주제별워크샵 내용공유)

사. 18:00~19:00 저녁식사

아. 19:00~22:00 춤 테라피 + 댄플이

- 11월 23일(토)

가. 09:00~10:00 아침식사

나. 10:00~13:00 종주향토기행

다. 13:00~ 출발

2) 그 외 연대

○ 대전평화여성회 후원의 밤, 한국평화교육훈련 송년감사의 밤 등 후원, 참석

7-5.4. 평가

- 회복적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는 활동영역이 확장되고 활성화되면서 네트워크의

회의가 인정화되었고 실천가대회도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였다. 그 외 연대활동은 단체 간 교류로 진행되었다.

7-6. 회원활동

<2013년 사업계획>

(1) 학습 소모임

- 제10기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후속모임
- 학습 모임 운영

(2) 회원 만남의 날

(3) 회원 소식 나눔의 질대화

7-6-1. 학습 소모임

1) 갈등해결과 평화 강사트레이닝 후속모임

- 일시: 2013년 1/8(화), 29(화), 2/28(목), 3/21(목)
- 장소: 여성미래센터 4층 평화방
- 주제: 학교폭력 현황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평화교육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것, 갈등을 주제로 시연(1/29), 관련서적 읽고 나누기, 조정 교육 시연 등
- 참가자: 김정수, 김진희, 명희, 엄금옥, 허혜기, 이정훈, 전상희
- 진행: 김선훈

2) 평강공주(평화교육 강사들이 공부 주인되는 모임)

(1) 구성원: 김정아, 김진희, 명희, 박재신, 유은주, 엄금옥, 이은영, 전상희

(2) 모임

- 1차: 1/31(목), 김정아, 박재신, 유은주, 이은영, 갈등해결교안집을 교재로 수업시연을 통한 심화공부
- 2차: 2/27(수), 김정아, 박재신, 유은주, 이은영, 주제: 갈등이해, 편견다루기
- 3차: 3/27(수), 김정아, 박재신, 유은주, 이은영, 주제: 갈등분석
- 4차: 4/30(화), 김정아, 박재신, 유은주, 이은영, 주제: 의사소통
- 5차: 5/21(화), 김정아, 박재신, 이은영, 주제: 분노다루기
- 6차: 8/26(월), 김정아, 김진희, 박재신, 엄금옥, 유은주, 이은영, 주제: 일상

나눔 및 수업에서 어려운 부분 공유

- 7차: 9/24(화), 김진희, 박재신, 엄금옥, 유은주, 이덕경, 이은영, 주재: 분노다 루기
- 8차: 11/19(화), 김정아, 명희, 박재신, 유은주, 주재: 갈등분석
- 9차: 12/17(화), 김정아, 김진희, 명희, 박재신, 이은영, 전상희, 주재: 갈등분석, 2014년 활동 논의

3) 토론회조정 감사역량 심화 워크숍

- 일시: 2013년 4월 14일(일) 10:00-18:00
- 장소: 서울여성프라자 NGO열린마당
- 주재: 토론회조정 24차서 교육 교안작성 및 시연 실습
- 참가자: 김진희, 명희, 박희진, 엄금옥, 유은주, 이은영, 정현주
- 진행: 김선훈, 김영진, 이덕경

7-6-2. 회원월례 공부모임

1) 갈등해결분야의 발전과정

- 일시: 2013년 2월 26일(화) 19:00
- 참가자: 김선훈 외 8명
- 강사: 박재근(사회통합위원회)

2) 성인지적비폭력평화훈련 경험나누기

- 일시: 2013년 4월 22일(월) 19:00
- 참가자: 김선훈 외 11명
- 강사: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대표)

3) 조력을 이해하는 4가지 방법론

- 일시: 2013년 8월 14일(수) 19:00
- 참가자: 김선훈 외 14명
- 강사: 김홍석(캐나다 사스카추원 협동조합연구소 방문 연구원)

7-6-3. 평가

- 회원공부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계획 대비 실행되지 못한 점도 있으나, 세 차례에 걸쳐 여러 회원이 함께 배우고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 회원

들의 학습소모임 평감공주는 계획으로 했던 10회를 비교적 성실하게 진행하고, 인원도 초기보다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회원들의 학습과 강의 역량 강화 요구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7-7. 홍보활동

<2013년 사업계획>

(1) 홈페이지 관리 및 언론을 이용한 일상적 사업 홍보

7-7-1. 홈페이지 관리 및 온라인 홍보활동

1) 갈등해결센터 홈페이지 개편

- 일시: 2013년 5월
- 주소: www.peacecr.org

2) 갈등해결센터 온라인소식지 발행

- 일시: 2013년 2월 21일(목), 4월 30일(화), 9월 3일(화), 10월 25일(금), 12월 30일(월)
- 대상: 회원 및 교육 참가자 등
- 내용: 활동 보고와 계획 등

3)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 일시: 상시
- 내용: 센터활동 보고 및 계획 안내

7-7-2. 갈등해결센터 소개 및 방문 인터뷰

1) Eastern Mennonite 대학 한국문화교류 학생 방문

- 일시: 2013년 5월 15일(수) 08:30~10: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1층 소풍방
- 방문자: 6명
- 내용: 갈등해결센터 활동 소개

7-7-3. 청소년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교안집 4판 발행

1) 편집회의

- 일시: 2013년 2월 27일(수) 16:00
- 장소: 갈등해결센터 사무실
- 내용: 일부 오자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의 수정을 제외하고 재발간하기로 함.

2) 발행일: 2013년 8월 25일 (200부 발행)

7-7-4. 평가

- 홈페이지 개편과 페이스북 제정을 개설하고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갈등해결센터 온라인 소식지를 다섯 차례 발행하는 등 회원들과 교류 활성화를 시도했다. 홈페이지 상에서 특히 조정자 훈련과 강사 트레이닝과 같은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홈페이지가 교육 수요자와 소통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7-8. 갈등해결센터 10주년 기념 사업

7-8-1. 회의

1) 준비위원회 (구성: 김선훈, 김영진, 김지호, 박수선, 여혜숙, 조영희)

- (1) 1차: 3/12(화) 16:00 김선훈, 김영진, 김지호, 박수선, 여혜숙, 조영희, 10주년 기념사업 추진경과 보고, 사업내용 의견모으기
- (2) 2차: 4/22(월) 16:00 김선훈, 김영진, 김지호, 박수선, 여혜숙, 조영희, 운영위원회 10주년 논의결과 보고, 회원만남의 날과 도론회, 자료집에 대한 의견모으기
- (3) 3차: 5/2(목) 14:30 김선훈, 김영진, 김지호, 박수선, 여혜숙, 조영희, 10주년 기념행사 기획안 검토, 자료집, 예산, 팀구성에 대한 의견모으기
- (4) 4차: 9/30(월) 12:30 김선훈, 박수선, 여혜숙, 조영희, 명희, 이주원, 10주년 기념관치 기획안 검토, 10주년 기념 자료집 구성안 검토 등

2) 행사 기획팀 (구성: 김선훈, 김영진, 김정아, 김지호, 명희, 이주원, 전상희)

- (1) 1차: 9/4(수) 16:00, 김선훈, 김영진, 김정아, 전상희, 명희, 이주원, 10주년 기념행사 테마, 프로그램 논의

- (2) 2차: 9/25(수) 15:00, 김선훈, 김정아, 전상희, 명희, 이주원, 행사주제 및 프로그램 논의, 역할분담 및 추진일정 점검
- (3) 3차: 10/25(금) 15:00, 김선훈, 김영진, 김정아, 김지호, 전상희, 명희, 이주원, 10년 기념잔치 기획안 검토
- (4) 4차: 11/8(금) 15:00, 김선훈, 김영진, 김정아, 김지호, 전상희, 명희, 이주원, 10년 기념잔치 세부일정 및 역할 점검

3) 갈등해결센터 조직진단 기획팀 회의

- (1) 1차: 9/24(화) 15:00, 김선훈, 이덕경, 조영희, 명희, 타단체 조직진단 사례, 조직논의의 필요성 및 논의 전개과정, 기대하는 것 논의
- (2) 2차: 10/9(수) 18:00, 김선훈, 박수선, 이덕경, 조영희, 조직진단의 목표와 참여 범위, 논의 과정 논의

4) 갈등해결센터 조직진단 워크숍

- (1) 1차: 10/22(화) 15:00, 김선훈, 김영진, 김정아, 박재신, 이경순, 이덕경, 조영희, 명희, 이주원, 갈등해결센터 소개하기, 활동하며 기뻐던 순간, 소통이 어려웠던 경험,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일, 센터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점 나누기
- (2) 2차: 11/19(화) 15:00, 김선훈, 김정아, 김지호, 박재신, 이덕경, 명희, 이주원, 소통의 구조, 센터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비전세우기, 재정(후원)관련 논의
- (3) 3차: 12/6~7(금~토) 운영위원회 MT, 김선훈, 김영진, 김정아, 김지호, 박재신, 이경순, 이덕경, 조영희, 명희, 이주원, 갈등해결센터 비전 세우기, 2013년 사업평가와 2014년 사업계획 아이디어 모으기

7-8-2 10주 기념 잔치,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 일시: 2013년 11월 14일(목) 18:00~20:00
- 장소: 서울 여성프라자 2층 회의실
- 참석자: 70여명
- 프로그램
 - 5:30~6:00 접수
 - 6:00~6:30 식사와 인사 나누기

7-9. 2013 교육부 미래조정 사업

<2013년 사업계획>

- (1) 미래조정 지도교사 연수
 - 시범학교 교사연수
 - 일반학교 교사연수
- (2) 미래조정 카페 및 코치카페 개설, 운영
- (3) 미래조정 뉴스레터 발간 등

7-9-1. 회의

1) 회의

- (1) 교재개발팀 최종 점검회의: 1/3(목) 10:00-17:00
- (2) 실행팀·매뉴얼팀 평가회의: 1/11(금) 17:00 김선훈, 김영진, 김정아, 박수선, 박인혜, 이덕경, 명희, 2012 미래조정 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 사업 방향 의견 모으기
- (3) 실행팀·매뉴얼팀 긴급회의: 2/2(토) 19:00 김선훈, 김정아, 박수선, 이덕경, 명희, 2013년 미래조정 시범사업 사업방향 논의
- (4) 실행팀 회의: 3/7(목), 3/29(금), 5/28(화), 7/2(화), 8/9(금), 김선훈, 김영진, 김정아, 박수선, 여혜숙, 이덕경, 명희, 이주원
- (5) 직무연수 교육기획회의: 6/2(일)
- (6) 미래조정 매뉴얼 평가회의: 7/1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7) 미래조정카페 홈페이지전환 관련 교육부 협의: 7/31(수), 9/3(화)
- (8) 미래조정 좋은사례 공모 및 발표대회 1차 지도교사 간담회: 8/7(수)
- (9) 미래조정 좋은사례 공모 및 발표대회 2차 지도교사 간담회: 8월 29일(목) 대전, 9월 2일(월) 서울
- (10) 갈등해결센터 코치 간담회: 9/4(수) 16:00, 김선훈, 김영진, 김정아, 김진희, 엄금옥, 유은주, 이덕경, 이은영, 전상희, 채지영, 명희, 이주원 참석
- (11) 대구경북지역 코치회의: 9/30(월) 19:00, 울산 청담, 김선훈 참석
- (12) 미래조정 좋은 사례 예비 심사: 12/2(월) 15:00,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김선훈 참석

2) 워크숍

(1) 토래조정시범 사업 활성화 워크숍

- 일시: 2013년 1월 15일(화) 10:30-15:30
- 장소: 대전 유성호텔
- 참석자: 시범학교 교장(교감), 지도교사 등 150여명
- 주최: 교육과학기술부
- 주관: 전남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평화물만드는여성회 부산 갈등해결센터

3) 코칭담당자 회의

(1) 2012 권역별 대표 코치회의

- 일시: 2013년 1월 19일(토) 11:00-15:00
- 장소: 대전 유성호텔
- 주제: 2013년 토래조정 활성화 방안, 지원역량 활성화를 위한 방안
- 참석자: 권역별 대표 코치 16명

(2) 2012 서울-인천지역 코치회의

- 일시: 2013년 2월 27일(수) 17:00
- 장소: 여성미래센터 평화방
- 참석자: 5개 단체 총11명
(갈등해결센터, 용인참누리, 안산Y, 비폭력평화물결, 광명교육연대)

(3) 2013 코치회의

- 일시: 2013년 4월 5일(금) 11:00-18:00
- 장소: 대전 경학호텔
- 참석자: 전국 코치 45명
- 내용: 2013사업 개요, 운영규정 확정, 조정실습 등

(4) 2013 토래조정 사업 1차 코치회의

- 일시: 2013년 6월 8일(토) 14:00-17:00
- 장소: 용산역 회의실
- 참석자: 전국 코치 40여명
- 내용: 2013토래조정사업 설명, 토래조정자 양성 교육경험 나누기 등

(5) 2013 토래조정 사업 2차 코치회의

- 일시: 2013년 11월 16일(토) 13:00-19:00

- 장소: 대전 아드리아호텔
- 참석자: 38명
- 내용: 활동 소감과 활동에 대한 의견

4) 지원단 회의

(1) 1차 회의

- 서울 도봉숲속마을: 6/18(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울산, 대구, 부산 지역 팀장
- 대전 유성호텔: 6/21(금) 충청, 전라, 경상, 세종, 대전, 광주지역 팀장
- 내용: 토대조정 운영학교 지도교사와 인사, 일정 및 교육내용 협의

(2) 2차 회의

- 일시: 2013년 9월 14일(토) 13:00
- 장소: 대전
- 내용: 지원단 활동경비 관련 안내, 추수지도 및 지원단활동 안내, 리포터운 영 및 연구학교 발표회, 좋은사례 공모대회 등 협조요청, 홍보동영상 활용 안내 등

(3) 3차 회의

- 일시: 2013년 12월 19일(목) 11:00~21:00
- 장소: 서울
- 내용: 좋은사례 공모대회 준비와 진행 논의, 2013년 활동평가와 제언

7-9-2 지도교사 직무연수

1) 지도교사 직무연수 기본과정

- (1) 1차: 6/17(월)~18(화), 15시간, 37명 참가, 서울 도봉숲속마을
- (2) 2차: 6/20(목)~21(금), 15시간, 43명 참가, 대전 유성호텔

2) 지도교사 직무연수 심화과정

- (1) 1차: 7/8(월)~9(화), 15시간, 22명 참가, 서울 도봉숲속마을
- (2) 2차: 7/8(월)~9(화), 15시간, 17명 참가, 대구 팔공산온천관광호텔
- (3) 3차: 7/11(목)~12(금), 15시간, 19명 참가, 대전 유성호텔
- (4) 4차: 7/11(목)~12(금), 15시간, 17명 참가, 광주 무등파크호텔

3) 기존교사 연수: 6/28(금), 7시간, 23명 참가, 대전 유성호텔

4) 일반학교 지도교사 연수

- 부산: 6/11(화)~12(수), 15시간, 90명 참가
- 대전: 6/25(화)~26(수), 7/3(수), 5(금), 15시간, 160명 참가
- 서울: 7/18(목)~19(금), 15시간, 35명 참가
- 인천: 8/5(월)~6(화), 8/12(월)~13(화), 15시간, 96명 참가
- 울산: 10/1(화)~2(수), 15시간, 53명 참가

7-9-3. 온라인 정보공유체계 구축

1) 포레조정 뉴스레터 발송

- 일시:
 - 1호: 2013년 10월 10일(목)
 - 2호: 2013년 11월 11일(월)
 - 3호: 2013년 12월 16일(월)
 - 4호: 2013년 12월 30일(월)
- 수신자: 포레조정 카페 회원 및 포레조정 리포터 1기, 2013 운영학교 지도교사
- 내용: 포레조정 사업 진행현황, 학교탐방, 운영학교 홈페이지 홍보현황, 공지사항 등

2) 포레조정 홈페이지 구축

- 12월 10일 개통

7-9-4. 평가

-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와 함께 포레조정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서 교사연수와 온라인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담당해서 진행하였다. 전국 90개 학교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은 평화교육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전국적 확산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시스템의 안정화는 과제로 남았다.

(포레조정 운영학교 포레조정자 훈련 갈등해결센터 사업보고 7-2-2)

7-10. 회의 등 교육 외 활동

1) 갈등해결센터 자문위원 위촉

- 일시: 2013년 1월 25일
- 강순원(한신대학교 교수/ 전 평화여성회 이사)

2) 천왕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의

- 일시: 2013년 2월 6일(수) 15:00
- 참석: 이덕경

3)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 일시: 2013년 4월 2일(화), 9월 12일(목), 12월 20일(금)
- 참석: 김선혜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교육박물관 간담회

- 일시: 2013년 5월 23일(목)
- 참석: 이주원

5) 함교육학부모회 회복적정의 피해가해대화도입 MOU관련 회의

- 일시: 2013년 10월 7일(월) 17:00
- 참석: 김선혜
- 내용: 기자간담회와 결해서 MOU체결하기로 함. 2014년 2월 예정

6) 2013부천시 지역 초·중·고등학교 모의 또래조정 경연대회

- 일시: 2013년 12월 19일(목)
- 참석: 박수현(심사위원으로 참석)

7-11. 부설 갈등해결센터 활동 평가

- 2013년 갈등해결센터 사업은 학교 내 자율적 갈등해결시스템인 토래조정의 전국적 확산, 지역사회에서 평화적 갈등해결의 주체 형성이라는 측면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 말부터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요구가 결합되면서 시작한 교육부 토래조정 시범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2년에 진행되었다. 전국 90개교의 학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각 시도 교육청이 별도로 토래조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토래조정이 확산되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일선 학교 현장에서 토래조정을 교육하는 한편, 강사트레이닝을 통해 교육 주체를 형성해 온 성과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평화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한 세대문, 은평, 부천 등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나 활동이 진행돼 활동 주체 형성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지난 2009년부터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평화커뮤니티’ 사업을 통해 평화교육(활동) 프로그램의 통합적 접근,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추진의 결과이다. 한편으로는 지역사회가 마을만들기나 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지역 중심의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사업의 특화 그리고 갈등해결의 현실적 필요성이 교육의 요구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아울러 비록 적은 사례이지만 학교에서 회복적 피해가해 대화모임이 프로젝트 등 외부 지원 없이 학교의 요청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협력적 문제해결을 해 가는 데 센터가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갈등해결센터 10주년 기념 잔치를 개최해 그동안 갈등해결센터 회원들이 함께 그간 활동을 공유하고 나누며, 갈등해결센터 10년 활동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다. 중단되었던 회원 공부 모임이 다시 운영되어 평화교육과 활동에 대한 회원들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편과 SNS를 이용한 센터 활동이 활발하게 소개 되었다. 이러한 상시적 활동과 행사가 가능했던 것은 갈등해결센터의 상근활동가가 2명이 되어 사무국을 구성하면서 상시적 활동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8.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2013년 사업계획(안)>

(1) 연구위원회 회의

(2) 출판

- <한국여성평화운동사> 개정판과 <여성평화> 발행을 위한 준비

(3) 프로그램

- 학술토론회(안)

- “정전협정 60년, 여성·평화·안보에 대해 질문하다”
- <여성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여성평화포럼 : 여성과 평화·안보·군사주의에 대한 담론형성의 장 마련

(4) 기타 :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8-1. 조직사업

1) 역할: 여성평화주의 관점에서 본회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지원, 견제와 평화에 대한 연구,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정리 등을 통해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 원장: 김정수
- 연구위원: 안정애, 조영희, 김정아, 이문숙
- 실무(담당): 최민정

3) 연구위원 회의

- (1) 제1차: 1/9(수) 14:30~17:00 연구원조직, “여성과 정전협정 60년” 학술토론회 개최 전,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견제& 평화관련 연구자 현황 파악 논의 등
- (2) 제2차: 4/18(목) 14:00~16:00 49동일평화재단 공모사업 “여성과 정전협정 60년 학술토론회” 사업기획안 검토 등
- (3) 제3차: 7/9(화) 12:00~15:00 “여성과 정전협정 60년 학술토론회” 평가, 하반기 사업 논의 등
- (4) 제4차: 10/22(화) 12:00~15:00 하반기 & 내년 활동계획 논의 등
- (5) 제5차: 12/3(수) 10:30~12:00 2013년 사업 평가 및 2014년 사업 방향 논의 등

4) 평가

- 올해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활동이 재개된 것이 의미가 있다.
- 연구원 모임을 꾸준히 진행하여 연구원 모임을 공부모임으로 정착시킨 것이 의미가 있다.
- 여성과 정전협정 60년 학술토론회 개최는 본 회 회원의 관심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기회였다.
- 여성과 정전협정 60년 학술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은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였기 때문이다.
- 여성과 정전협정 60년 학술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내년에 연구원이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 현 상황에서 여성평화운동의 전망을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다.
- 전쟁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남성의 언어로 정리된 한국 전쟁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8-2. 여성과 정전협정 60년 학술토론회

1) 4.9통일평화재단 공모사업

(1)사업기간: 2013년 4월~11월

(2)지원금액: 3,264,750원(지원금 3,000만원)

(3) 사업목적: 2013년은 정전협정 60년이 되는 해이며, 최초의 여성 군통수권자 대통령이 탄생한 해. 따라서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 또한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지난 60년의 정전체제를 검토, 분석, 평가해 봄으로써 한반도에서 여성들이 평화롭고 안전하며 평등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비전과 이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을 제시하고자함.

(4) 주요 내용

- 여성과 정전협정 60년 학술토론회

(5) 실무&진행담당: 김정수, 김지호, 최민정

2) 행정업무

(1) 4.9평화통일재단 지원사업 선정단계 협약식

- 일시: 2013년 4월 8일(월) 15:00~18:30

-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참석: 최민정

(2) 4.9통일평화재단 최종보고서 제출

- 일시 : 2013년 7월 29일(월)
- 방법: 우편발송 및 이메일 발송

3) 여성과 정전협정 60년 학술토론회 행사

- 일시: 2013년 7월 1일(월) 14:00-18:00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주제: 여성! 정전협정 60년을 말하다
- 프로그램

- 개회식: 2:00-2:20

- 가. 환영사 : 김성은(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사장)
- 나. 축 사 : 김형태(4.9통일평화재단 상임이사)

- 학술토론회 2:20-5:50

- 가. 사회 : 김정수(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 나. 1부 발표 & 토론 2:20-4:20

가) 여성과 한반도 정전체제 60년

- (가) 발표: 안정애(주한미군법외근접운동본부 공동대표)
- (나) 토론: 권인숙(명지대학교 교수)

나) 여성의 관점에서 본 여대 정부의 대북정책

- (가) 발표: 조영주(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 (나) 토론: 김창수(한반도평화포럼 기획운영위원장)

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여성의 역할

- (가) 발표: 정현백(성균관대 역사학과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 (나) 토론: 박하순(세종연구소 상임연구위원)

- 휴식 4:20-4:40

- 2부 라운드테이블 종합토론 4:40-5:50

: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여성시민사회의 역할

- 가.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나. 이문숙(아시아교회여성연합회 총무)
- 다.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 참석 : 약 75명

○ 언론보도

- 통일뉴스 기고 : “여성, 정전협정 60년을 말한다” (김정수, 7월 4일자)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86>
- 여성신문 보도 : “기지촌은 정전체제 최대의 피해자”
<https://www.womennews.co.kr/news/59020>

4) 평가

- 전체적으로 토론회 기획이 잘됨. 시의적절한 시기와 주제 선택임.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활동재개의 첫 출발점으로 성공적임.
- 여성의 시각으로 정전 60년 체제를 돌아보는 자리는 처음이었기에 의미가 있었음.
- 연구원장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 등을 밝히는 기조발제가 있었으면 좋았겠음.
- “전장에서 죽어간 군인에게는 왜 하지 않느냐?”, “여자들도 군대에 가야하는 것이 아니냐?” 등의 질문을 통해 전쟁의 비극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면화되어 침체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고, 토론회를 통해 이를 드러내 보이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음.
- 전쟁과 이후 정전체제 기간에 여성들이 겪은 경험을 이야기해볼 수 있는 계기를 줌.
앞으로 여성의 경험을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겠음.
- 비판적인 질문들이 오갔던 과정은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평화형성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 논쟁적인 이슈의 학술토론회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판적 시각에 대비해 우리의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논리 등을 사전에 정리했으면 좋았겠음.
- 다양한 시각의 의견이 나와서 좋았음.
- 라운드테이블의 역할이 아쉬움. 라운드테이블대신 질의응답&토론시간을 길게 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음.
- 하반기에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와 같은 장을 소규모로 진행해보는 것도 좋겠음.
- 한반도평화포럼, 통일뉴스 등에 광고한 것이 동원 및 홍보에 도움이 됨. 대표들의 연막, 초대장 발송 등이 이사, 회원 동원에 보탬이 됨.

- 이번 학술토론회는 본 회 주관의 다른 행사보다 평화여성회 회원이 많이 참석한 행사인 것으로 보아 이번 학술토론회의 주제가 본 회 회원들의 관심과 맞아떨어지는 주제였던 것 같음.
- 보편화된 남성과 의식 있는 남성 등 남성학자와 이와 같은 주제로 더욱 자주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으며, 여성들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음.
- 자료집 수량 부족 등 참석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실무적인 준비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무리 없이 토론회가 잘 마무리 됨.
- 세부적인 주제가 기존의 보편화된 주제와 큰 차이가 없어서 아쉬움, 학반기에 생존말하기대회 등 전쟁으로 인해 여성이 겪은 경험들을 좀 더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음.
- 발제 내용에 본 회 사업인 동북아여성평화회의와 실제 남북교류사업을 실천한 분들의 경험을 녹아내렸으면 좋았을 것 같음. 이론과 운동을 연계하여 기존의 이론을 다듬어 가는 것이 필요하겠음.

8-3.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역사기록 작업

1) 모임

- 일시: 2013년 5월 24일(금)
- 참석: 전(前) 실행위원 김윤옥, 안상남, 이미경, 한명숙, 윤영애/김정수
- 내용
 - 2014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역사기록 사업 지원 요청
 - 여성평화연구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요청(김정수 & 연합뉴스 기자 등)
 - 1991~1993년까지 4차례 결친 토론회 자료, 평화여성회 보관 상황 확인 요망
- 결과: 2013년 하반기, 관련 문서·사진 자료 list-up 작업 등 준비 예정

8-4. 연구지 ‘여성과 평화’ 배포

- 일시: 2013년 10월 16일(수)~소진시까지
- 배포 책종류: 여성과 평화 2, 4, 5호 & 여성, 평화(기여평 연구총서 4집)
- 배송비: 4권 묶음 기준 일반원
- 배포현황: 개인 5명 외 전북여성단체연합, 대구합계하는주부모임, 두레방, 기독교민회, 여성환경연대, 615안산본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8-5. 연구위원 공부모임

1) 1차 공부모임

- 일시 : 2013년 12월 3일(화) 11:00-12:30
- 장소 : 여성미래센터 5층 미래방
- 참석 : 김정수, 김정아, 안정애, 조영희, 최인정
- 내용 : <여성·평화> '전쟁과 여성역할'(조옥라), '북한사회주의 발전과 여성'(박현선), <여성과 평화> 제1호의 '우리 삶속의 군사주의'(권인숙), <여성과 평화> 제2호 '한국의 군사주의와 성: 유교전통, 반공주의, 경제발전주의를 중심으로'(김영리) 등 발제 및 토론

8-6.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활동 평가

-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은 지난 몇 년 동안의 공력을 깨고 활동을 재개한 것이 의미가 크다. 정전 60주년을 대응하여 “여성과 정전협정 60년 학술토론회, 여성 정전협정 60년을 말한다”를 개최하여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참가자, 본 회 회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연구위원 모임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활동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여성, 평화 관련 자료를 공부하는 모임으로 발전하였다.
- 내년에는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의 전문성을 키워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현재의 평화와 안보 정세에 대한 담론을 형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임원 인선안



임원 인선 안

○ 근거: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1항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정관 제4장 제19조(임원의 선출) 2항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인선위원회 구성: 조영희(위원장), 박유희, 김선혜, 김영진, 김정아, 최안진경

○ 임원 현황

공동대표 3인 임기 만료: 김정수, 여혜숙, 정경란
이사 4인 임기만료: 조영희, 정현택, 김정수, 여혜숙
이사 변경: 이택호 (소천), , 정경란 (사임)

○ 임원 선출 (안)

이사: 연임-김정수, 여혜숙, 정현택, 조영희
신임-이은선, 박현선 (임기- 2014년-2016년)
공동대표: 여혜숙 (임기-2014년)

○ 이사회 구성 (안)

김성은 (이사장), 김선혜, 김정수, 김지영, 박유희, 박현선, 여혜숙, 이나영, 이은선, 정경심, 정현택, 조영희, 한정숙, 최순옥 (14명, 가나다순)

1. 임원 인선(안)을 토대로 임원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사업계획안

I. 2014년 사업기조 및 방향안

II. 2014년 사업계획안



I. 2014년 사업기조와 방향(안)

1. 사업기조

1) 여성들의 평화 형성 역할을 강화 한다.

2014년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대립적인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여성들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해줄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전개에 필요한 정세 분석과 현안대응을 위한 정책역량은 본회 정책위원회와 무설기구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을 통해 강화시켜 나간다. 아울러 개인, 가정, 조직에서의 평화 형성을 위한 통합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모색해 나간다.

2) 회원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

회원들이 다양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발한다. 회원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모임과 대상에 맞는 사업을 실행한다. 연령과 취향에 따라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개해 나간다.

3) 여성의 일상의 삶과 연결된 평화의제를 발굴해 나간다.

그간 평화여성회는 대선이나 총선을 앞두고 여성평화의제를 개발하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는 '7대 여성평화통일 대선의제'를 정리한 바 있다. 그중에 '여성-평화-안보 분야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이행을 위한 지난 몇 년간의 지속적인 활동은 일정정도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2014년은 지방정치 개편의 시기이기도 하고 지역중심의 협동운동과 마을공동체 운동이 부상되고 있다. 중앙정부 대상의 정책의제 뿐 아니라 지역과 일상에서 여성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평화의제를 발굴해 나간다.

4) 2014년은 평화여성회가 창립된 지 18년이 되는 해이다. 본회 2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본회의 여성평화운동을 정리하며 평화여성회 비전을 세워나가는 논의의 기반을 형성한다.

2. 조직방향

- 1) 여성평화운동의 내외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동시에 평화여성회 내부의 조직 역량을 진단하여 그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2) 2014년은 공동대표 체제에서 상임대표 1인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본회와 두 개의 부설기구인 갈등해결센터와 한국어성평화연구원이 보다 유기적인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긴밀한 소통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II. 2014년 사업계획(안)

1. 조직사업

1-1. 회의

1-1-1. 총회

- 1) 역할: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의 기본 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기타 주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 2) 구성: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3) 내용 : 2014년 사업계획 수립, 공동대표 및 임원 선출 등

1-1-2. 이사회

- 1) 역할: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위원회와 부설 기구의 설치, 정관의 변경 발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재산관리, 총회 부의 안건의 작성, 회원의 제명, 총회 위임 사항,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을 심의·의결한다.

- 2) 구성: 공동대표 및 이사로 구성한다.

1-1-3. 운영위원회

- 1) 역할: 본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상설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회와 이사회에서 위임한 주요사업과 기타 정관에 명시한 본회 목적사업과 관련한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공동대표, 각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장, 서기, 회계, 사무처장 등으로 구성한다.

1-1-4. 사무국회의

- 1) 역할: 본회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을 논의, 진행사업 점검 및 공유 등을 진행한다.
- 2) 구성: 공동대표, 실무집행 책임자, 실무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1-2. 위원회

1-2-1. 정책위원회

- 1) 역할: 여성과 평화의 관점에서 평화·통일운동의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조정한다.
- 2) 구성
- 위원: 김성은, 김정수, 박현선, 인정애, 여혜숙, 유복남, 윤경원, 조영희, 최민정

1-2-2. 국제협력위원회

- 1) 구성
- 위원장: 정경란

2. 평화·통일 사업

2-1.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

동아시아의 정세 환경 등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조직하고 실천한다.

- 1)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운동 개발 및 실천
- 2) 군사비 감축 활동: 군사비 동결 세계행동의 날 공동행동, 5.24 세계평화와 군축을 위한 여성의 날 평화행동
- 3) 남북관계의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형성을 위한 여성평화적 관점의 통일, 외교, 안보분야 정책분석 활동
- 4)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관련 활동

2-2. 남북여성협력사업

남북여성이 함께 살기 위하여 남북여성연대 차원에서 북한여성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한다.

2-3. 대중교육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향하는 인재를 길러내고, 여성평화운동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평화운동을 알리는 대중교육을 진행한다.

- 1) 청년들을 위한 여성평화교육
 - 여성평화리더스쿨, 청년평화리더스쿨
- 2) 타단체 청년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2-4. 일상의 평화문화 확산 운동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고 폭력적 문화가 확산되는 사회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일상에서 평화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1) 대중캠페인 활동
- 2) 회원교육 및 소모임을 통한 활동

3. 정보·홍보 사업

- 1)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관리, SNS 정화활동 등
- 2) 소식지 발행 및 온라인소식지 발송
- 3) 정기 대일을 통해 본 회 소식을 전달

4. 회원 사업

회원 간의 소통과 활동의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의 정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모임을 진행한다.

- 1) 회원 교육
- 2) 회원 마당
- 3) 영화모임

5. 재정 사업

- 1) 꽃감관예 등
- 2) 후원행사 6월 경

6. 연대 및 협력사업

6-1. 국내 상설연대

- 1) 한국여성단체연합: 총회, 이사회, 통일평화위원회(임원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조직·교육위원회, 사무국장연석회의, 여성미래센터, 3·8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의원총회, 수요시위 연 2회 주관 및 참석
-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 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대의원회, 여성위원회, 집행위원회
- 5)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표자회의, 시민정화포럼

6-2. 국내 사안별 연대

- 1)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대화와 소통
- 2) 핵없는 세상을 위한 시민공동행동

3) 제주도 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대책위원회

6-3. 국제연대

1) GPPAC

2) Women Peacemaker Program

7. 부설 갈등해결센터

7-1. 목표와 방향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이를 적용하는 실천 활동을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특히 2014년에는 활동가들의 전문적인 역량을 배양하도록 하며,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평화커뮤니티의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한다. 아울러 갈등해결과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접근과 대중화에 힘쓴다.

7-2. 조직

1) 구성

- 소장: 김선혜
- 운영위원회: 김선혜(센터 소장), 김영진, 김지호(본회 사무총괄 담당자), 김진희, 박인혜, 박재선, 유은주, 이경순, 이덕경, 전상희
- 사무국: 명희(활동가), 이주원(활동가)

2) 운영위원회

- (1) 역할: 갈등해결센터 상설 의사결정기구로 갈등해결센터의 주요 사업과 일상적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한다.
- (2) 구성: 센터의 장, 본회 사무총괄 담당자, 일반 운영위원
- (3) 운영: 월 1회 정례회의

3) 사무국 회의

- (1) 역할: 센터의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안 논의, 진행사업 점검하고 공유한다.
- (2) 구성: 소장, 실무활동가로 구성한다.

- (3) 사업내용: 매주 1회 정례 회의

7-3. 학교평화커뮤니티 사업

- 1) 학교별 평화커뮤니티 사업: 평화교육, 도래조정, 가해자-피해자 대화모임을 학교별로 코디네이터가 추진(연중)
- 2) 청소년 평화리더십 캠프

7-4. 지역평화커뮤니티 사업

- 1) '갈등해결과 평화'교육을 위한 강사트레이닝(연1회)
- 2) 진행전문가 훈련 (연2회)
- 3) 조정전문가 훈련 (연 1회)
- 4) 회복적 정의 피해가해 대화모임 조정전문가 훈련 (연 1회)
- 5)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 및 지원활동(연중)

7-5. 연구·정책

- 1) 교육 후속모임 매뉴얼 개발
- 2) 평화교육 강사 워크숍(연 2회)
- 3) 평화교육, 회복적 학생지도 등 정책화를 위한 홍보 및 연대
- 4) 자문회의, 현장 전문가 간담회
- 5) 수요자 중심 교육 모듈 개발
- 6) 지역사회 평화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

7-6. 연대사업

- 1) 회복적 정의 시민사회네트워크
- 2) 사안별 연대 추진

7-7. 회원활동

- 1) 학습 소모임
- 2) 회원 월례 공부모임
- 3) 화해권고 사례연구모임

7.8. 홍보·출판활동

- 1) 홈페이지 관리 및 SNS를 이용한 일상적 사업 홍보
- 2) 회원 소식 나눔의 정례화
 - 온라인 소식지 격월 발송
- 3) 감동해결센터 리플렛 제작
- 4) 학교폭력 해결 매뉴얼

8.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

8.1. 조직

- 1) 역할: 여성평화주의 관점에서 본회의 활동에 대한 이론적 지원, 젠더와 평화에 대한 연구, 여성평화운동의 역사와 이론에 대한 정리 등을 통해 여성들의 평화·통일운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구성
 - 원장: 김정수
 - 연구위원: 김정수, 조영희, 안정애, 김정아, 이문숙
 - 실무(담당): 최민정

8.2. 연구위원회 회의 및 공부모임

- 1) 회의(필요시)
- 2) 공부모임(월 1회 진행)

8.3. 프로그램

- 1) 여성청년평화리더아카데미
- 2) 학술토론회

8.4. 연구

- 1) 여성평화리더십 교육 교재 개발

8-5. 기타

- 1) 여성평화 아카이브 구축
- 2) 다음 카페 활용: 자료 수집 및 정리

부 록

- ☐ 평화여성회 정관
- ☐ 평화여성회 조직현황
- ☐ 2013년 성명서
- ☐ 2013년 발간자료 목록
- ☐ 회원가입서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단체는 사단법인 평화를만드는여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평화여성회’라는 약칭을 사용한다.
-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Women Making Peace로 하고 약칭은 WMP로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고,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주의 관점과 평화주의 관점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한다.

1. 평화·통일사업
2. 평화교육
3. 통일교육
4. 평화·통일연구
5. 국내외 연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본회의 사업에 같이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 ①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③ 회원의 가입절차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총회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후원회원

1. 본회 활동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 활동상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 ② 본회의 모든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회비를 납부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환급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징계)

- ①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결권 제한, 제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② 회원을 제명 등 징계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회원의 제명 등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제12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동대표 전원의 명의로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감사직무와 관련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4.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때

③ 임시총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 순으로, 공동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3조(총회 개최 및 통지) 공동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② 단체(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

③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의 기본정책과 방향의 결정,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

⑥ 기타 주요한 사항

제15조(총회의 의결)

-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본회(법인)의 합병 및 분할, 임원의 해임,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총회 의사록)

-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서기가 이에 기명날인한다.
- ② 총회 개최 후 총회의사록 요지를 참석하지 않은 총회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공동대표 3인 내외 (상임대표포함)
- ② 이사 15인 이내 (공동대표 포함)
- ③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인선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인선위원회는 이사 2인, 운영위원 5인 내외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한다.
- ③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④ 그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 ⑤ 선임된 임원은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제한)

①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이가 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위 ①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이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 관할한다. 그 중 1인은 상임대표가 되고, 총회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 유고 또는 결위시 이사회에서 공동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총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되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을 통리하고, 법인 등기무등본의 대표가 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산상황,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① 공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구성)

① 이사회는 본회의 사업집행에 관한 심의기구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가 있다.

②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한다.

③ 필요한 경우 후원이사를 둘 수 있고, 이사회 운영에 관한 별도규정을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임시 이사회회의 소집 요구를 받으면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기간 내에 이사장이 이사회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회장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이사회회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이사회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25조(개회 및 봉지) 이사회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이사 및 감사에게 봉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나 집행회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이사회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의결재적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때
2. 급전 및 재산의 수수를 동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때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
3. 위원회와 부설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0. 기타 정관에서 이사회회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감사)

- ① 본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두고,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부설기구

제30조(부설기구)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1조(부설기구의 장)

① 부설기구의 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부설기구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부설기구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2조(부설기구의 구성 및 운영) 부설기구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재정수입)

①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비, 후원금, 특별모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③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37조(예산의 수립)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8조(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처) 본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40조(구성 등)

- ① 사무처에는 처장 1인과 약간 명의의 실무자를 둘 수 있고 사무처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실무자는 사무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④ 실무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1조(정관제정 및 개정)

1. 정관의 제정은 총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2.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에 의하여 발의한다.
3. 발의된 정관 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법인재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 재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결산) 공동대표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

실적서 및 수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 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1997. 3. 28 제정

1998. 2. 10 1차 개정

1999. 3. 4 2차 개정

2000. 1. 25 3차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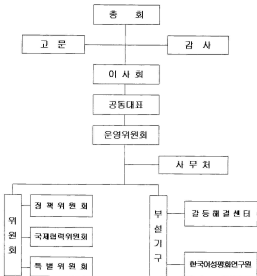
2002. 1. 25 4차 개정

2003. 1. 28 5차 개정

2004. 1. 9 6차 개정

2010. 1. 20 7차 개정

【 부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조직 현황



【 부록 】 2013년 성명서 목록

날 짜	제 목
130128	[인수위 외견전달 여성단체 기자회견문] 첫 여성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여성빈곤과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130208	[논평] 북한 핵실험 추진 중단해야 핵실험은 결코 해결 수단 아니며 인류 생존과 세계 평화 위협할 뿐 [논평]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한다.
130212	남북미중은 실험-제재 악순환을 중단하고 분쟁의 근본원인인 남북 대립과 북미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즉각 대화하라.
130221	제 106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30311	<한반도 전쟁방지를 위한 긴급 호소문>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130312	[기자회견문] 불법공사,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요식행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130313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를 위한 긴급여성행동 기자회견문> 한반도 전쟁위험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해 즉각 대화하라!!
130313	Women's Urgent Call for the prevention of war and mak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130313	<朝鮮半島での戦争防止と平和に向けた女性緊急行動記者会見全文> 朝鮮半島での戦争の威嚇を中断し、平和に向け即時對話せよ！
130319	[기자회견문] 이라크 원공 10년, 미국의 전쟁범죄를 규탄한다
130401	[성명서] 강정마을에 평화의 바리케이드를 쌓겠습니다
130403	[기자회견문] 국민연금공단은 확산한 생산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유리투자지침 마련하라
130411	[기자회견문]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에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130411	[한미 양국 정부에게 보내는 호소문] 농동적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군사 충돌 위기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
130411	[북측 당국에 보내는 특별서한] 최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에 직면하여
130415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시민사회-국회 공동성명]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130415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한일시민사회 공동성명
130416	<전쟁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여성평화선언문> “우리는 평화를 희망한다.”
130415	GPPAC Statement Calling for Immediate Dialogue on the Korean Peninsula Crisis

날 짜	제 목
130415	한반도 위기 해질을 위해 극각 대화를 시작하라
130425	[기자회견문] 해군의 불법공사 저지는 정당행위다. 경찰은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130515	<기자회견문> 한반도 평화, 시민이 만들어갑시다
130521	[기자회견문] 밀양·청도 송전탑 공사, 폭력강행 중단하라!
130527	[기자회견문] 기부금품법 관련 평화박물관 압수수색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입장
130529	[기자회견문]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130611	<성명서> 남북당국 회담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6.15 공동행사는 꼭 성사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에 대한 여성계 입장표명] 여성들이 보고 있다!
130701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130704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기념식 호소문
130727	<정전 60년 즈음 글로벌 시민평화선언> 한국 전쟁 종식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130727	[영문선언문] Global Civil Peace Declaration - End the Korean War and Sign a Peace Treaty!
130814	일본의 군국주의 반대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성 성명서
130814	日本の軍國主義に対する反対と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女性の聲明書
130829	남북여성 공동보도문
130923	[기자회견문] 핵발전 확대정책의 희생양,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중단하라!
130925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4차 협상 중단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131028	<제4회 평화군축박람회 공동 기자회견문>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131031	왜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리는가
131031	No more tear of Bahrain people caused by made-in-Korea tear gas canisters
131204	[기자회견문] 더 이상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려서는 안 된다

**첫 여성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여성빈곤과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 5년 동안 여성의 삶에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정책을 추진하여,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받기를 기대하며, 국정방향과 최우선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요구와 기대를 살피는 국정을 펼치길 바란다.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메시지는 역대 대통령들이 보여준 남성적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특히 사회 변화를 열망하는 다수 여성유권자들의 이해가 담겨 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자는 진정한 '준비된 여성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보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국정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실패(失政), 즉 성평등 과제를 등한시하여 한국의 성평등 수준을 경제, 후퇴시킨 점으로 인해 차기정부에게 남겨진 책무는 더욱 엄중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들에서 기반을 닦은 여성관련 법·제도의 기반 위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는 등 보다 여성정책을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맡기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 격차지수 108위(전 세계 135개국 중)로 OECD 최하위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전 정부의 잘못을 교훈삼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성정책을 구현할 법, 제도, 제제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평등 과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2. '첫 여성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여성빈곤과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개선되어 '더 이상 성평등 과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리고 이같은 생각은 여성의 현실과 조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견고한 성 격차와 성차별로 인해 여성

물어 삶의 조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처해있는 어려움은 여성빈곤 등 생존권과 여성인권 영역에서 더욱 심하다.

OECD 국가 평균 64%에 한참 못미치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49.9%, OECD 국가 중 남녀 임금격차 1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중 여성 노동자가 61.5% 이는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현재와 미래를 격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첫 여성대통령’은 ‘빈곤의 여성화’를 양산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 특히 노동과 복지영역에서의 차별적 구조를 해소하고, 평등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지 않는 성장동 복지국가를 만드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재총과 지역을 막론하고 다수의 여성들이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여성 폭력’의 문제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상적일 뿐만 아니라 줄어들지 않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가정과 직장, 거리에서 마주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사소하게 치부하는 사회인식과 문화, 낮은 인권감수성이 여성폭력의 종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적 실시 등 폭력 예방과 사회의 인식의 개선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의 여성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문제에 민감성을 갖고 있다. 2013년, 정전 60주년을 맞아 통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열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활동에積極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가 정책의 방향을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국정방향을 천명하기를 희망한다. 박 당선인이 재기한 “10만 여대 여성인재 양성 프로젝트, 여성고위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의 약속도 달성되어야 한다. 자칫 말로만 올 박근혜 정부가 고위직, 상층 여성의 지위향상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대다수 어려운 여성의 삶을 보듬는 ‘첫 여성대통령’이 되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논 평]

북한 핵실험 추진 중단해야
핵실험은 결코 해결 수단 아니며 인류 생존과 세계 평화 위협할 뿐

북한은 지난 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재재강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는 언급을 한 후 3차 핵실험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하는 핵발전소 이용과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
특히, 자라를 구분하지 않고 인류를 공멸시키는 핵무기는 절대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한 공동체의 약속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화를 초래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의 비핵적 선택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외면하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제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초래할 위험성을 동시에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일본도의 대북정책을 이어가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제적 군사적 대응발심도 한반도 민중 공동체의 삶을 파탄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에 불과하다.

좁은 한반도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확산된 방사성물질은 결국 한반도로 퍼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희생이 될 수 있다.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대화와 존중이라는 평화적 수단이어야 한다. 국민, 인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남북한 경인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북한은 핵실험 추진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간의 평화적 대화를 통한 상호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3. 2. 8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미래연대, 녹색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 생명평화아름다운미래지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평화꽃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미래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합천평화의길,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논 평]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한다.

남북미중은 실험-제재 악순환을 중단하고 분쟁의 근본원인인
남북 대립과 북미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즉각
대화하라.

북한은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지난 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강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한국전쟁 정전협
정을 맺은 지 60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 분단과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사라지
고 군비경쟁, 군사훈련, 핵실험 및 제재 등 대립만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핵발전소 건설과 이용, 핵무기 개발 반대를 원명해왔다. 특히, 자타를 구분하
지 않는 핵무기는 인류질멸의 무기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한 공
동체의 약속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동북아를 핵 경쟁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우려스럽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핵실험-제재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결단이 필
요하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악순환을 끊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한과 북한, 북한과 미국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한 대화
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외면하는 미국과 이명박 정
부의 대북강경책과 제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이미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과 이를 이어가려는 차기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우리도 증명하였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제적 군사적 대응방안은 한반도 민중 공동체의 삶을 파탄낼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임을 분명히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핵발전소에 대한 우리

와 함께 핵무기에 대한 우리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짓누르고 있다. 대립과 제재, 실형의 악순환을 끊어 내기 위해, 지속가능한 항구적 평화를 향한 각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2013년 2월 12일

평화통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제 106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겨울한파의 끝자락을 배웅하는 설날이 지났지만, 이 자리에 서있는 우리의 마음에는 겨울 바람의 매서움이 여전히 감돌고 있습니다. 벌써 21년째 수요일이면 이곳 일본대사관 앞에서 힘겨운 투쟁을 하고 계신 할머니들께 일본정부는 지난 7일 또다시 과편치한 망언과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자신들이 유죄하듯 민가에 들어가 위안부로 삼았다는 증거나, 그 과정에서 군이 직접 나섰다는 증거는 없다는 기존의 망언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인 고노 요헤이의 담화를 수정 검토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관점으로 인해 정치 외교 문제화 되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뻔뻔함을 드러냈습니다.

다행히 일본의 양심 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과편치한 언행에 대해 무고라 하며 한·일 관계를 열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자신의 자국민과 후대에게 무고롭지 않도록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한·일관계를 안정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한·일 양국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을 집권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해 일본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가지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위안부'피해할머니의 아픔을 통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전쟁의 상처임을 깨닫고 평화의 중요성을 배워가는 다짐들이 되도록 역사교육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할머니들이 온몸으로 겪어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고,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에 의해 사람의 인생을 휘젓는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화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1.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범죄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1.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국제법에 따라 배상하라!
1. 한국 정부는 역사를 바로잡고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되찾는 일에 적극 앞장서라!

2013년 2월 21일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및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참가자 일동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한반도가 다시 전쟁 위기 속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외교와 정치가 사라지고 상대를 위협하는 군사 행동과 위험한 언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정전협정까지 무력화 되는 사태 전개는 군사적 긴장의 일상화와 중동의 위험성을 크게 높이는 절대적 위기의 상황입니다. 전쟁이 일시 중단된 '정전'상태의 한반도에서, 항방의 무력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전협정마저 백지화된다면 전쟁의 위험을 제어할 수단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지금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 양국의 '실제한 정책'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야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대체하고 적제단을 위해 온 정책은 상대에게 선택의 여유를 주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화협정 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여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자고 합의한 때가 2005년 9월 19일입니다. 도대체 8년이 다 되도록 변변한 대화 한번 못해 보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전쟁을 걱정하거 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단 말입니까?

국민여러분!

위기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런듯이,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채 우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하면 이길 수 있다는 식으로 표방되는 남북 당국의 목소리에 참화의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떤 위기상황은 미국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대치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남북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벌이는 이 무모한 행위를 더는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서로를 자극하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양측 모두 중지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거래가 만들어 온 평화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땀스피리로 평

명피던 연례적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결단 속에서 북미대화의 물꼬를 열었던 1992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군사특재의 암운이 드리워져 있었던 노태우 정부 시절의 일입니다.

이 교훈대로 한미당국은 한미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북한은 정전협정 백지화, 불가침합의 무효화 등을 즉각 철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당국과 북한은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로 나설야 합니다.

평화협정 논의를 하자고 지금 당장 표명하십시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평화협정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인 동시에, 불안한 정전상태를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주장을 누가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간 한미양국이 선택폐기만을 외친 채 평화협정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위해 온 결과 무엇이 남았습니까? 북이 선택핵타격을 종언하는 속급의 이 엄청난 사태를 전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평화협정 논의입니다.

남북대화를 제안하십시오.

지금 전쟁 고조의 구조는 북미간 적대관계입니다. 남북관계를 이 구조속에서 독립시켜, 불을 혼들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평화를 선도하는 일, 한국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해일에서 자유로운 새 정부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첫걸이 대통령 특사 파견입니다.

국민여러분!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안 됩니다.

6.25의 참화를 기억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어떤 할도 전쟁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국민평화기구를 만듭시다. 종교와 정당, 시민사회가 합심하여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여기 걸릴 우리의 표어는,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가 될 것입니다.

2013년 3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불법공사, 일방통행으로 점철된 요식행위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해군기지 건설강행은 원천무효다. 국회는 예산집행을 동결하라.**

2013년 1월 1일 국회가 결의한 70일간의 검증기간이 어제로 끝났다.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그리고 제주도정은 이른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민군 합당 공
통사용 협정서’ 초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
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철학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 발표한 ‘제주해군기지 2013년 예산 부대조건 이행마무 검토보고서’에서 70일
간 졸속으로 이루어진 검증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혔다. 3차 시뮬레이션은 이미 정해진 건
본을 유도하기 위해 입력데이터를 극도로 제한했지만 여전히 크루즈선박의 임종항 실재에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다. 시뮬레이션은 새로운 항로로 인해 발생한 환경적 변수는 고려조
차 하지 않았다. 항만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초안 역시 군항 위주
로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3차 시뮬레이
션 및 항만 관제권, 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대한 협정서 초안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허구성과 비현실성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붙여드리면, 70일 검증과정과 인수위의 검토과정에서 반대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
다. 또한 해군의 불법공사 강행으로 인해 기지건설 관련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
으리라는 신뢰기반이 자체가 크게 훼손되었다. 정부와 해군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지건
설을 밀어부친다면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 자명하다. 이
로 인한 갈등의 책임은 불법공사를 강행하면서 검증과정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정부와
해군, 그리고 제주도정에 있다.

국회조차도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일방적인, 그리고 검증 전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버린
요식행위를 단순히 승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더
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는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정부의 검증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70일 검증 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우선, 국회의 결의를 무시한 해군의 70일간 불법공사 강행에 대한 책임 추궁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적극적으로 엄정한 청가작업을 통해 정부의 실수와 잘못을 고정해야 한다. 국회가 공언한 대로 점증없이 예산 없다는 원칙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예산집행을 동결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 나라 정치과정에 최소한의 진실과 정의가 깃들 여지가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그리고 상식과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강정주민들의 정당한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연대하는 것은 시민사회운동의 책무이다. 우리는 70일 걸음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제주해군기지를 격기에 완공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천명하고 이를 믿어 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민과 더불어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반대하여 더욱 굳세게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행동계획을 밝힌다.

첫째, 우리는 신의복 저버린 정부의 오석행위에 분노하는 강정주민들의 정당한 투쟁이 승리하기까지 일관되고 굳세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70일 전종의 허구성과 그 결론의 비현실성을 각계각층에 알리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주민들이 전개하는 해군기지 건설 저지 현장투쟁에 힘껏 연대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제주해군기지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과 더불어 강정마을을 주민과 도민의 힘으로 생명평화의 마을로 바꾸고 지켜내기 위한 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다. ‘민군복합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강정마을 곳곳에 주민이 원치않는 군사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국민들의 평화 의지와 선한 상상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셋째, 우리는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 방침으로 위기에 처한 새재평화의 섬 제주를 되살리기 위한 운동을 재점화 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끝이 아니며 공군기지, 병참 기지로 이어질 제주도 복합군사기지화의 출발에 불과하다. 제주도를 냉전과 대결의 섬, 전쟁을 준비하는 섬이 아닌, 평명의 섬, 평화의 허브로 되살리기 위한 운동 역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는 공권력 남용과 국가폭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법률적 제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의 정당성을 옹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4·3 항쟁 65주년 평화주간’으로 선포하고 43의 역사적 아픔을 생명과 평화로 승화하기 위한 4월 6일 전국집중 4·3항쟁 65주

년 평화기행 및 평화문화제를 강정마을에서 개최할 것이다. 또한 오는 3월 29일 개막되는 제주포럼이 세계평화의 섬을 뒷받침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경종을 울리고자 해비치 호텔 인근과 강정마을에서 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생명평화국제포럼과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다.

2013. 3. 12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행회의 대표자 일동

한반도 전쟁위험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해 주각 대화하라!!

우리 여성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작년 12월 북한의 포켓알사미추 제재와 푸르시위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미 당국은 핵항공모함을 포함한 키리졸브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정전협정의 백지화,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 핵위협을 선언하였다.

올해는 정전협정이 맺어진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쟁은 아이들과 여성, 다른 모든 살아 있는 생명에 대한 재앙이다. 우리는 이미 동족 사이에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였다. 죽음, 헤어짐, 굶주림, 여성들에게 가해진 성폭력까지 그 눈물과 한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상처를 보유하고 화해하며 함께 살기위해 남북의 괴리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금 평화를 촉구하는 남북 당국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현재의 상황은 지난 60년 동안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 정전협정이 지속되면서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 사이의 커다란 결의 산물이다. 미불 상호간의 적대감, 증오심, 그리고 뿌리 깊은 공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군사적 위협과 대립, 공포의 악순환은 계속될 뿐이다. 이러한 폭력과 대항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당국과 북미 당국의 대변한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 한반도 갈등과 분쟁을 대화와 타협,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힘의 우위, 핵억제력, 군사훈련을 통해 상대방을 위협하며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과 대화를 통해 신뢰조성과 화해협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찾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촉구한다.

평화의 주체로서 우리 여성들은 올해 정전 60주년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며, 아이들이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유럽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남북고류와 국내외여성들과 연대할 것을 다짐하며,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해 관련당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남북한 당국은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행동과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둘째, 남북한 당국은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대화하라.

셋째, 6자회담 당사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하라.

넷째,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은 합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라.

2013년 3월 13일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를 위한 긴급여성행동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고양여성회, 광주여성센터, 광주(경기)여성회,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구리어성회, 기저촌여성인권연대, 남해여성회, 대구성폭력성단체연합, 대구여성동맹,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새시대여성회, 부산여성회, 분당여성회, 사천여성회, 새해상을어는원, 주교여성공동체, 서울여성회, 성남여성회, 성대대문제해결을위한한국연대, 수원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성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양산여성회, 양주여성회, 여인지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오산여성회, 용인여성회, 우리여성회, 울산여성회, 외정부두래여성회, 이천여성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추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지구를살리는청주여성모임, 진주여성회, 진해여성회, 창원여성회, 천안여성회, 춘천여성회, 통일여성회, 통합진보당여성위원회, 과주여성회, 평택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하남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외교회, 한국YWCA연합회, 함안여성회, 화성여성회 (가나다순, 66개 단체)

Press release on March 13, 2013:

Women's Urgent Call for the prevention of war and
mak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top the threa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tart a dialogue for peace!

We women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crisis of war. Since North Korea's rocket launch last December, a vicious circle of sanctions and armed protests has continued unabated. Particularly, South Korea and the US governments recently conducted the Key Resolve military exercise, which included a nuclear-powered carrier, and North Korea responded by claiming that it would rescind the armistice agreement and cancel the non-aggression pac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reatened a nuclear strike.

This year i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Korean War armistice treaty. A war poses a disaster to women, children and other living things. We already experienced a horrendous war among the same race. We remember the tears and deep sorrow from death, separation, hunger and sexual violence upon women. Therefore, North and South Korea's desperate effort is needed to embrace the scars of war, reconcile and live together.

However, we hardly hear any voices calling for peace from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The current situation is the product of the hostile relationship of the US-North Korea, and the two Koreas as the Korean War never actually ended over the last 60 years and the armistice continued to exist. Their mutual hostility, hatred, and deeply-rooted fear have long lasted. As long as the armistice regime continues, military threat and confrontations, and fear will pervade. The fundamental solution to end such a vicious circle of violence and counter-violence should be pursued.

We women urge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and the US government to make a bold political decision to prevent war and settle peace. We hope that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resolved through dialogue, compromise and cooperation. We urge all concerned parties not to threat the other side through military superiority, nuclear deterrence, and military exercises and try to gain benefits, but to pursue peace by peaceful means by searching for mutual benefits through political negotiations, dialogue and reconciliations.

We women as agent of peacemaking hope that this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will be the first year of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We are also determined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and to work together with other women at home and abroad to make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 so that our children will freely travel over the demilitarized zone (DMZ) to Europe.

Therefore, we call upon the concerned parties as follows to prevent a war and make peace:

First, the North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should stop any action and military exercises which only increase war risks.

Second, the two Korean governments should obey inter-Korean agreements and start a dialogue for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peaceful settlement.

Third, the states of the six-party talks should resume the talks for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ourth, South Korea, North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ina should start dialogues and negotiations for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Women's urgent Action for the prevention of war and
mak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tal 66 women's organizations)

<朝鮮半島での戦争防止と平和に向けた女性緊急行動記者会見を文>

朝鮮半島での戦争の威嚇を中断し、平和に向け即時対話せよ！

私たち女性は朝鮮半島における戦争の危機を深刻に憂えている。昨年12月、北朝鮮によるロケット発射以降、制裁と武力示威の悪循環が続いている。特に最近、韓米当局は核航空母艦を含めたキーリゾルブ合同軍事訓練を行っており、北朝鮮は停戦協定の白紙化、南北不可侵合意の全面放棄、核による威嚇を宣言している

今年は停戦協定が結ばれて60周年にあたる年である。戦争は子どもと女性、そして生きとし生けるものに対する災いである。私たちは既に同族同士の残酷な戦争を経験した。死と差別、飢え、女性に対する性暴力など、その涙と悲しみを覚えていた。そのような戦争の傷を抱きあい、和解によってともに生きていくために、いま南北には血のにじむような努力こそが切実に求められている

しかし今、平和を求める南北当局の聲をほとんど耳にすることはできない。現在の状況は、過去60年間に朝鮮戦争を終わらせず停戦協定を続けることで生み出された、北朝鮮と米国、韓国と北朝鮮との敵対関係の産物である。彼らは互いに敵対心と憎悪、根深い恐怖心を長期間持ち続けている。朝鮮半島の停戦体制が固く張り、軍事的な脅威と対立の悪循環が濃くはかない。暴力と、それと呼応する暴力の悪循環を断ち切るため、根本的な解決策を模索しなければならない

私たち女性は朝鮮半島での戦争防止と平和の定着のため、南北当局と米国当局に對し大胆な政治的決断を求める。朝鮮半島の軋轢と紛争を、対話と妥協、協力によって解決することを望む。力の優位性や核抑止力、軍事訓練によって相手を威嚇し利益を得るのではなく、政治的文交と対話、信頼の醸成と和解の形成によって共同の利益を模索する、「平和的手段による平和」を求める。

平和の主体として私たち女性は、今年の停戦60周年が平和協定締結元年になるよう希望する。子どもたちが非武装地帯（DMZ）を越えてヨーロッパを自由に旅することのできる平和な朝鮮半島を築くために、南北交流を進め国内外の女性と連帯することを今一度強く求め、朝鮮半島での戦争防止と平和のために関連当事国に次のように要求する。

- 第一 南北両局は戦争の危機を高める行動と軍事訓練を中断せよ。
- 第二 南北両局は和解・協力と平和の定着のために南北合意を遵守し対話せよ
- 第三 六者会談当事国は朝鮮半島非核化のために六者会談を再開せよ。
- 第四 韓国、北朝鮮、米國、中國は恒久的な朝鮮半島の平和体制形成のために 対話と交渉を始めよ。

2013年3月13日

朝鮮半島の戦争防止と平和のための女性緊急行動

京畿自主女性連帯、慶南女性団体連合、慶南女性連帯、高陽女性會、光州女性センター、慶州（京畿）女性會、光州女性會、九老女性會、九里女性會、基地村女性人權連帯、南海女性會、大邱慶北女性団体連合、大邱女性廣場、大邱女性會、大田女性団体連合、大田平和女性會、釜山女性団体連合、釜山女性會、富川新時代女性會、富川女性會、益唐女性會、泗川女性會、新しい世界を開く天主教女性共同体、ソウル女性會、城南女性會、性貧困問題解決のための全國連帯、水原女性會、安山女性會、安城女性會、安陽分かれ合い女性會、梁山女性會、楊州女性會、ヨインジサ、女科政治勢力民主連帯、烏山女性會、龍仁女性會、ウリ女性會、蔚山女性會、義政府トケン女性會、利用女性會、仁川女性會、全國女性農民會議連合、全國女性連帯、清州女性人權連帯、駐韓米軍犯罪被害運動本部、地球を助ける全州女性の集い、晉州女性會、鎮海女性會、昌寧女性會、大安女性會、春川女性會、統一女性會、統合進歩等女性委員會、坡州女性會、平澤女性會、平和をつくる女性會、浦項女性會、河南女性會、韓國協會女性連合會、韓國性暴力相談所、韓國女性団体連合、韓國女性交友會、韓國女性の電話、韓國YWCA連合會、咸安女性會、華城女性會（カナダラ道、66個団体）

이라크 침공 10년, 미국의 전쟁범죄를 규탄한다

이라크 전쟁 10년, 전쟁보다 무서운 전쟁의 후폭풍

10년 전 3월 20일, 미국 부시 정부는 영국과 연합해 이라크를 침공했다. 후세인 이라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제지와 민주주의 정착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대량살상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미국의 거짓명분으로 이뤄진 이라크 침공. 미국이 약속했던 '자유와 재건' 대신 이라크 사람들에게 돌아온 건 '공포와 빈곤'뿐이다.

지난 10년 동안 최소 12만에서 최대 100만의 이라크 사람들이 사망했고, 168만 명이 난민으로 떠돌고 있으며, 500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다.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업률은 50%에 가까운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정부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라크 정부는 가난한 국민을 위한 복지와 재건은 뒷전이다.

미국이 이라크에 심어놓은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라크를 내전상태로 몰아넣었다. 순나시 아와 정파들과 쿠르드 자치정부, 이라크 중앙정부간 석유갈등 속에 하루 갈라 자살폭탄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만 민간인 4,400여 명이 희생됐다. 이렇듯 이라크 전역에서 죽음과 총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인들의 무관심 속에 지금 이라크는 전쟁보다 무서운 전쟁의 후폭풍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전쟁범죄

"이라크 전쟁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그 지역의 석유 때문이었다."고 인정했던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말처럼, 이제 이라크 전쟁의 목적이 중동 석유와 패권을 위한 침략전쟁이었다는 사실은 세계인의 상식이 됐다. 2003년, 바그다드에 있는 모든 고층 건물이 폭파되었지만 이라크 석유성 건물만은 온전했다. 미국이 왜 이라크를 침공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셰브론, BP 등 다국적 기업들은 이라크의 석유와 토전사업 이권을 두고 소리 없는 전쟁 중이다. 한국의 한국가스공사, 한화 등도 재건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쓰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에는 "차라리 이라크의 젊은 석유를 다 가져가라. 대신 죽어간 아이들과 우리의 삶을 돌려달라"는 이라크 사람들의 과묵한 절규와 아픔이 들어있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불의한 침략전쟁에 과병으로 동조한 영국과 한국 등 세계 각국 정부를 역시 이라크에 대한 전쟁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2010년, 미국이 온케해온 이라크 전쟁범죄는 전 세계 앞에 사실로 증명됐다. 2010년, 지금은 미군 감옥에 갇혀있는 브래들리 매닝 일병을 통해서이다.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그는 세계적인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미군 기밀문서 39만 건을 전 세계에 알렸고, 이 문건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헬기조종사가 전 자제임을 즐기듯 민간인들을 사살하는 동영상 등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미군 전쟁범죄의 진실이 담겨 있었다. 전쟁범죄를 비난하는 세계적인 여론은 지세졌고,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8월, 서둘러 이라크 주둔 미군을 철군시키며 종전을 선언해야 했다.

침략전쟁에 과병으로 동조한 코리아

한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연인원 2만여 명,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 규모인 한국군 과병은 이라크 침공에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중동 민심은 우리에게 등을 돌렸고, 한국은 침공에 동조한 '나쁜 부자국가'가 되었다. 이 여파는 2004년 故 김전일 씨의 암살한 죽음과 2007년 아프간 연류 사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익 논리로 약소국을 침략하는 작은 계국주의로 나아간 한국은 그 후에도 계속 불의한 과병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정부는 레바논, 소말리아 과병을 강행했고, 2009년에는 국회 동의 없이 전투병 과병이 가능한 PKO법(상시과병법)이 통과되었으며, 2010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아프간 재과병을 강행했다. 또한, 작년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4개국(아프간 • 아랍에미리트(UAE) • 소말리아 • 레바논)에 대한 과병연장동의안이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 모두 거짓국익과 국적, 한미동맹이 이유였다.

참혹한 역사와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10년간 테러와 비극의 서막을 씌운 미국은 지금이라도 전쟁범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부시, 럼스펠드 등을 전범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 그리고 이라크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전쟁과 과병 반대를 외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라크 침공이 남긴 진실을 알리고 아프간과 레바논, 소말리아, UAE 과병 철회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미국은 부시 전 대통령, 럼스펠드 전 국방부 장관 등 이라크 침공 책임자들을 전범재판소에 회부하라!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사과하고 전쟁범죄 진실을 폭로한 브래들리 매닝 일병을 석방하라!

·한국 정부는 이라크 참전을 사과하고 아프간, 레바논, 소말리아 과명을 철회하라!

이라크 전쟁은 침공 당사자들과 과범으로 동조한 나라에게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인간성의 척도가 되었던 인류사적인 사건이었다. 비록 21세기 전쟁의 시대와 현실을 드러냈지만,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10년 전 2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3,600만 명의 인구가 한일한시에 나라와 인종과 계급과 종교와 이념을 넘어 전쟁반대 평화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젊은 세대도 최초로 국경너머에서 벌어진 전쟁의 아픔에感同하며 이라크 현지와 한국 내에서 평화행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해이기도 했다.

지구시대의 평화는 국경을 넘어선 세계시민의 평화연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내 안에는 전쟁이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막을 걷는 낙타처럼 평화나눔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참단무기가 아닌 무력하고 끈질긴 사람의 힘입을 끝내 모일 것이다.

이라크에 평화들! 우리 모두에게 평화들! 살람 알라이나!

2013년 3월 19일

미국의 이라크 침공 10년을 맞아 한국의 평화운동단체 일동

개혁자들, 경제를 넘어,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노동자연대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반전 평화연대(존), 민족적평화물결, 사회진보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박물관

강정마을에 평화의 바리케이드를 쌓겠습니다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오는 4월 3일은 제주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는 날입니다. 먼저 65년 전 제주에서 이름 없이 쓰러져간 무수한 생명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 4·3은 잘못된 권력에 맞서 싸운 항쟁의 역사입니다. 이제 4·3의 역사는 인권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역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65주기 4·3을 맞아 한국사회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때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평화의 시대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가 회자될 정도로 대결적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미 강정은 4·3입니다.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기본적인 민주주의조차 유린됐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명목 아래 수많은 평화가 부서지고 짓이겨져 왔습니다. 600여명이 넘는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열피와 위급받는 것도 모자라 ‘별급북탄’으로 정당한 싸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수단에 의해 꽃피워져야 합니다. 총 알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것은 중국적으로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평화의 지평이 아닌 군사거점 지대를 만들어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갈등해결은 첫걸음인 채 제주해군기지를 직기에 완공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제주에 필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제2의 하와이’가 아니라 ‘지금 그대로의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생각한다면 강정 해군기지는 멈춰 주십시오. 주민 갈등을 격화하고 진정 갈등을 해결하려한다면 잘못된 해군기지를 철폐해야 합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촉구합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도지사에 당선되자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근민 지사는 강정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습니다. 강정주민의 민이 되기는커녕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온갖 불법, 편법, 탈법의 편에 서고 앉았습니다. 귀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음을 특목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근면 지사가 지금이라도 제주의 미래를 제대로 생각한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에게도 호소 드립니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향한 외침은 멈추자 않을 것입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끝이 아니며 공군기지, 병합 기지로 이어질 제주도 군사기지화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제주도를 냉전과 대결의 섬, 전쟁을 준비하는 섬이 아닌, 생명의 섬, 평화의 히브로 되살리기 위한 평화 실천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정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평화·인권 활동가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기 위해 저항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또 강정마을을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화약고가 아니라 생명평화의 마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강정주민, 제주도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강정 마을에 평화의 파리에이브를 발아 강정마을이 평화운동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않았던 65년 전 역사의 외침 그대로,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2013년 4월 1일

강정마을회,

군사기지저지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국민연금공단은 확산탄 생산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윤리투자지침 마련하라

확산탄은 광범위한 지역에 수많은 작은 폭탄들을 흩뿌리는 산탄형 폭탄으로, 사용 시 군 사표적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무차별 살상을 가하는 무기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발탄들을 남겨 전쟁 이후로도 오랫동안 2차적 피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비인도무기이기도 하다. 확산탄의 피해자 중 98%는 민간인이며 이중 1/3이 어린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비인도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확산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 2008년에는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확산탄의 사용·생산·비축·이전을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3년 4월 현재 80개국이 협약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이외에도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서명국 31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총 111개국이 협약에 참여하고 있다.

확산탄이 국제적으로 불법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이 무기에 대한 투자 역시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북섬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 7개국에서 확산탄에 대한 각종 투자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1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의거해 확산탄에 대한 투자가 금지된다는 해석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 금융기관들도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에 의거, 확산탄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이와 관련한 윤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가고 있다.

이러한 확산탄의 국제적인 불법화 및 투자철회 추세에 반해, 한국에서는 여전히 확산탄이 생산·배치·수출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12년 10월 29일 「주한국방노동단」을 통해 발원 배에 의하면, 한국은 세계 2위의 확산탄 생산국이자 최대 수입국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함께 유일하게 수출까지 하고 있는 국가이다. 이 자료는 국내 탄약업체인 풍산과 한화에서 이중목적도폭탄, 다면장조켓탄 등 다양한 확산탄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확산탄에 대한 세계투자원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2012년 6월 보고서 역시 한화와 풍산을 세계 8대 확산탄 생산기업으로 꼽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금지되고 비난받는 비인도무기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확산탄 세계투자: 공동의 책임」 보고서는 한화와 풍산 두 기업에

대한 최대 투자자가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지적한다. 논란이 되는 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제하는 유엔 책임투자 원칙에도 가입한 바 있는 국민연금은, 그 기치와는 상반 되게도 확산탄을 생산하는 한화와 풍산의 주식을 각각 7.34%, 9.62%로 10% 가까이 보유 하고 있다. 노르웨이연금기금이 비인도 무기의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제도록 하는 윤리 지침에 의거,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풍산과 한화를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투자를 철회한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이다.

확산탄의 생산 및 수출, 그리고 이에 대한 투자는 비인도무기에 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무차별적 살상과 대량의 2차 피해를 양산하는 확산탄에 만 대하며 이 자리에 모인 14개 단체는 국민연금이 확산탄 생산 기업인 한화와 풍산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연금이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즉각 철회하고 나아가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금 운용을 위한 윤리투자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3일

국민연금 확산탄 투자철회 공동행동

개혁자람, 경제를넘어, 국제연대네트 한국지부,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노동자연대다함께, 무기제로,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평화나눔회, 평화네트워크, 평화유망드는여성포럼, 평화바다, 평화와통일유익한사람들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에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정전 60주년인 2013년,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위성발사 이후 남북, 북미 간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여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제기로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행위가 갈수록 고조되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남북간 교류협력의 상징이며 북한의 군사충돌을 막을 마지막 완충지역이라고 여겨졌던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폐쇄된 상태이며, 남북 간 통신선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출구없는 군사적 대결과 적대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7천만 한반도 주민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주변 관련국은 7천만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자각적인 군사적 위협과 적대행위들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도발적 언행이나 무력시위 같은 자극적인 과잉대응도 중지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억지시키려는 가운데,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대를 무력으로 제압하거나 굴복시켜 배움을 고쳐놓겠다는 식의 접근법이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독주기권처럼 마주보고 달리는 현 상황에 이의를 제기할 시민의 평화적 발언과 행동이 절실합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가장 큰 잠재적 희생자인 시민들이 모든 종류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 행위에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묵은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일관되고 끈기있게 발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회의에 참석한 시민사회 종교계 대표자들은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국제인사 연석회의>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연석회의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지각층 시민들의 사회적 발언과 행동을 모아낼 자구적인 협력체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제협력 등을 재개하고 휴전 60년을 평화정착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시민발언, 시민대안, 시민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행동을 호소합니다.

2013년 4월 11일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각계 인사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능동적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 해소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개성공단 폐쇄와 전쟁 위기까지 거론되는 작금의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 최대 피해자는 한국 국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의 의사가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존 재리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해 대북정책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미 양 정부의 회담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를 열렬히 바라며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의 기초가 되는 대북인식에서 균형과 적관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미 양 정부는 '도발을 통해 양보와 지원을 받아내려는 것'을 북한의 패턴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패턴을 종식시켰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북한의 합의 위반 및 도발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규탄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언행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고, 또 대북제재가 북한의 언행을 변화시키는 효과의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재 자체가 대북정책의 목표처럼 변질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 정부는 경제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을 살리기 위해 보다 능동적인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불필요한 북한 자극을 중단하고 즉각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개성공단의 위기는 정치군사적 위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미국 역시 군사위기 해소를 위한 대북대화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차분한 관망'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동만이 개성공단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미 양국 정부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 작금의 한반도 위기는 북한과 더불어 한미 양국 정부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6자회담의 성과인 9·19공동성명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기로 합의한지 8년이나 지났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그 평화포럼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평화체제 구축이야말로 한반도 위기 해소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면서, 한미 양국에게 조속한 평화체제 협상의 착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넷째, 한미 양 정부는 북한과의 최고위급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존 케리 미국무장관의 방북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우리는 한미 양 정부가 북한을 압박·고압·제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대북대화에 쏟는다면 위기 해소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울-베이징-도쿄를 순방하고 있는 케리 장관의 방북음이 다음에는 평양으로 향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한 배학 오빠마 미국 대통령도 북미정상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전지 상황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한반도를 탈냉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정부는 위기 상황 지속시 가장 큰 피해를 당할 당사자도 한국이고, 조속히 위기를 극복해내면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할 당사자도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력화된 정전협정 60년의 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해서도, 또 비핵화를 위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다시 시동하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대합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능동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또 북미 간 대화를 적극 중재하여 다시 한 번 남-북-미 3자관계의 활금키를 여는 역사적 경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11일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각계 인사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최근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에 직면하여

지금 개성공단이 큰 위기입니다. 개성공단의 위기는 남북관계의 위기이자 화해와 평화, 통일변명의 미래에 대한 위기입니다.

귀측은 지난 4월 8일 김영진 비서 명의의 답화를 통해 개성에서 일하는 귀측 종업원의 철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측의 이번 결정이 개성공단의 발전을 기대하는 대다수 한국인의 뜻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절대다수는 개성공단의 발전을 성원하고 있습니다. 또 귀측이 발표한 이번 답화에서도 지적하듯이, '개성공단은 6·15선언의 산아로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특성의 시기에 패쇄 위기가 도래하기도 했지만, 개성공단은 온 민족의 통일염원과 의지를 반영하여 언제나 기세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니다.

개성공단은 이렇듯, 남도 북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통일변명의 진원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측이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이유로 내걸고 있는 '북침전쟁 발원지'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극히 일부의 자극적인 논조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며, 한국인의 대다수는 그런 일부의 논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잠정 중단과 관련하여 귀측이 소홀히 한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개성공단을 성장시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만 몸러 일해 온 우리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귀측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의 동등한 주인으로서 용담의 이런 중대결정에 대해 귀측과 의논할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상 이들 중소기업인들이야말로 귀측이 우려하는 '전쟁터 개성' 논조에 맞서 화해협력을 온 몸으로 일궈온 평화의 견도사들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 성장사는 이 중소기업인들이 온갖 대결 논조와 맞서 화해협력의 성과를 입증해온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귀측이 내린 이번 결정의 배경이 대화/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귀측이 내건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귀측이 주

장하듯이 개성공단을 '북침전쟁 도발의 일점'으로 만들려는 그런 '조건'은,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려는 남북 간 대화로 일거에 해소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의 기업인과 근로자가 쌓아 온 신뢰의 끈을 믿습니다. 또 이재야말로 대화할 때라고 믿습니다.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하여 귀측은 우선 우리 기업인들과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작은 대화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귀측의 긍정적인 응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3년 4월 11일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해소와 대화와 협력 재개를 위한 국제 인사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오늘 우리는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한반도의 높아져가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평화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반도 주민에게 2013년은 전쟁을 멈추자는 약속, 즉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의 상처가 다 아물지도 못한 채 우리는 또 다시 심각한 전쟁의 위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의 위성발사 이후 남북, 북미 간 갈등이 재화되기 시작하여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행위가 갈수록 고조되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협력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가랑이 찢어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와 최근 더욱 가속화된 남북의 군비경쟁에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60년간 지속되어온 남북 간의 군비경쟁은 결국 핵무기의 위험까지 치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군사력의 부족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군사적 긴장 고조와 군비경쟁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바로 한반도 주민이며 우리 자신임에 주목합니다.

오늘 우리 15인의 국회의원들과 24개 시민단체는 한반도의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우리는 남북관계가 과행으로 치달아서는 안되며 지난 60년간의 갈등과 무혈 속에서도 이룩해온 남북 합의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과 북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6·15선언, 10·4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정신을 견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당국 간 대화도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평화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야 합니다.

1. 우리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에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가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핵무기는 인류 절멸을 초래할 최악의 무기일 뿐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남과 북 모두 핵억지력에 의존하는 정책 폐기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즉각 핵무장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한 내에서 재기되는 핵무장론도 자체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것이든 핵무기를 탑재한 무기들이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에 배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1. 우리는 우리의 세금이 군사비가 아닌 복지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남과 북 모두 상당한 재원을 국방비에 투자하며 남북 간 갈등과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12위이며, 아시아 지역에서 4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선군 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반증하듯 군사력을 통한 한 해결방식은 군사력의 경쟁을 부추길 뿐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일정 수준의 국방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더 많은 국방비는 더 적은 복지비를, 더 적은 교육비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남과 북 모두 국방비를 줄이고, 대신 시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우리는 한반도 상에 현재로서는 갈등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확산한, 대인지뢰 등 비인도적 무기들이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불발탄으로 인해 전쟁 후에도 장기적으로 민간인을 살상하는 확산탄과 대인지뢰는 그 비인도적 참혹한 영향으로 인해 국제협약을 통해 그 사용과 생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과 북 모두 상당한 양의 확산탄과 대인지뢰를 생산, 비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특정 시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기는 사용도 비축도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위해 남과 북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전체제 60주년을 맞은 지금 남북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해 거는 총을 내리고 평화로 선택하기를 촉구합니다.

남과 북 모두 기존 남과 북 합의정신과 합의사항들을 지킵시다.

남과 북 모두 핵무기력에 의존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합시다.

남과 북 모두 국방비를 줄여 복지에 투자합시다.

남과 북 모두 비인도적 무기는 절대 사용하지 맙시다.

남과 북 모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총을 내리시다.

2013년 4월 15일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한일시민사회 공동성명

우리는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 공동의 목소리로 한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군사비 확대와 군비증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1개월치 군사비는 개발에 1년간 사용되는 비용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의 군사비는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세계 유수의 무기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국가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한정된 자원을 낭비시켜 세계를 군사경쟁의 악순환으로 더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에게는 경제, 교육, 의료, 사회보장, 빈곤대책, 환경보전, 재해예방, 면역대책 등 우선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세계화의 진행으로 이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만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밝힌 것처럼 '세계에는 무기가 넘쳐나고 평화를 위한 예산은 부족'합니다. 각국이 협력해 군비를 규제·감축하고, 국경을 넘어 인간의 안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이상에 근거해 우리는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모든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지역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은 도발적인 언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주변국가들은 군사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일본과 한국은 핵억지력에 의존하고 있는 정책을 개선하여,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설립을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 미사일방위체계(MD) 개발과 배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MD는 지역의 예상무임에도 불구하고 '방위'모세의 실효성은 없는 반면, 불필요하게 역내 군비경쟁을 부추깁니다.
- 한국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이 같은 해군기지는 동아시아지역 전체의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합니다.
-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단계적 철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군사기지는 대폭 줄여야 하며, 오키나와 내에 새로운 군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 영토문제를 둘러싼 여러 국가 간의 평화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각국은 도발적 행동을 엄중히 삼가야만 합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 공동과 협력의 바다로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2013년 7월 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이념은 이와 같은 지역의 평화 체제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은 각국의 법규를 포함한 다양한 평화적 해결수단을 유지, 강화시키고, 군수산업 확대를 저지하고, 사람들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진심으로 서로 협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2013년 4월 15일

제3회 세계군축행동의 날 한일시민사회 참가자 일동

○ 한일 시민사회단체 참가자

<일본> 안보정책연구소토쿄모회 핵과미사일방위에NO 캠페인 교토부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연대위원회 일본기독교정치연맹 헌법을살리는모임 코리아NGO센터 「전시여성폭력, 리서치-액션센터 히로시마제9조회 도호쿠아시아정보센터(히로시마) 피스데포 피스모모 히로시마-구메-이와쿠니피싱크 평화친우회 녹색당GreenJapan 히라카지마헌법재약시민네트워크 (이상 15개 단체)

<한국> 재적자들 정치물너어 정실연동일협회 국제민주연대 남북평화재단 대전평화여성회 무기제로 비폭력평화를걸 시민평화포럼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필덕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불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박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홍보연 환경운동연합 (이상 가나단 순, 24개 단체)

“우리는 평화를 희망한다.”

우리는 최근의 남북관계, 한반도 긴장 고조를 지켜보면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불신이 얼마나 큰 지 확인하였습니다. 말의 전쟁, 군사력 식히는 전쟁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식민지, 분단, 전쟁으로 점철된 20세기를 끝내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던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철도를 타고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자던 말도 공염불로 사라졌습니다. 금강산에 올라 우리의 명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환성을 지르고 개성공단을 방문해 남북이 함께 생산한 옷을 만지며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기대하던 그 때가 먼 추억으로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우리에게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말의 전쟁, 북한의 핵실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한미 키 리졸브 훈련과 미국의 B-52, 스탠스전투기 등 최첨단 무기 과시, 개성공단 중단 등 그 어느 때보다 위협지수가 높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화시도가 시작되고 있지만 언제 대화가 시작될 지 상황은 모호하기만 합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 현재의 한반도 위기 상황은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 불신과 합의 위반의 악순환이 전쟁으로 쉽게 치달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더 이상 한반도가 또 다른 전쟁터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 행위에 반대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일관되고 끈기있게 발언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성의 안전과 평화는 물론 향상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위기 해소와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형성, 비핵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한국정부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4월 11일

에 이루어진 한국정부의 대북 대화제의를 환영합니다. 한 번의 대화제의로 뿌리 깊은 남북 사이에 불신이 해소될 수는 없습니다. 신뢰를 쌓는 과정은 인내와 장기적 관점을 요구합니다. 한반도 정전체제하에서 남북 간의 차이는 확대되고 소통이 제한되어 불신의 골은 깊습니다. 남북의 불신을 해소하고 평화체제로 만드는 과정은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2.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과 비핵화를 위해 직접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척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군축명화회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연계조건으로 대화할 것이 아니라 현상타이머에서 두 가지 의제를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요구가 동시에 수용되어야 대화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개성공단은 하루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며 군사지역이 평화지역으로 전환한 곳입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중소기업인의 이익 뿐 만 아니라 북한주민과 여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 경제협력이 남북의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북한당국은 개성공단 사업을 하루속히 재개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4. 남북과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사력 강화를 반대합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사훈련이 증가하고 군사비 지출과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과 미사일 발사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남북 뿐 만이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외교와 문화경제학술 교류를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5. 우리 여성들은 전쟁과 핵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와 화해의 주체로서 평화교육과 통일운동을 폭넓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상호 이해와 존중, 상생과 통합, 협력과 평화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한반도 전쟁위기와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적 감수성을 갖고 반전평화활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쟁 반대 한마디가 정부를 본정의 당사자에서 평화형성의 주체로 전환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바로 여러분의 행동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가 가능하다고 믿고 실천에 옮길 때 남북의 평화와 협력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2013년이 되면서 의해 강요된 분단을 극복하고, 항구적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길에 우리 여성들은 함께 할 것입니다.

2013. 4. 16

전쟁위기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평화선언자 일동

GPPAC Statement Calling for Immediate Dialogue on the Korean Peninsula Crisis

April 15, 2013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is deeply concerned by the heightening tension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calls for an immediate return to dialogue and communications as the only way to deescalate the situation and make steps to prevent violence and promote denuclearisation, peace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hould be carried out by convening as soon as possible both direct dialogue between the US-DPRK and the two Koreas, as well as a meeting of representatives of countries of the Six Party Talks, the most appropriate institutional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in Northeast Asia. All efforts must be made to immediately convene such dialogue, working at the same time for both denuclearisation and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to replace the 60 year old Korean War armistice.

The currently escalating tensions o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ighlight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and the potential of grave miscalculations which could lead to catastrophic results for citizens. The lack of a permanent peace treaty and lingering unresolved problems emanating from the Cold War are fundamentally contributing to these tensions. GPPAC thus calls for countries in the region and the United Nations to make all efforts possible to urgently implement the following:

To immediately come back to the dialogue table to decrease tensions resolve this crisis, including holding direct dialogue between the US-DPRK and the two Koreas as well as convening a mee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untries involved in the Six Party Talks.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hould give full and urgent support for such a meeting and all other related efforts for diplomacy. As appropriate the UN General Assembly should assist in promoting peace and the de-escalation of tensions.

Cessation by all parties of nuclear and missile tests, military exercises, missile defense

deployment and other related actions which contribute to further tensions and potential armed conflict in the region.

An immediate end to provocative statements and actions from all sides of the conflict.

Immediate re-instatement of cut-off communication links, including military hotline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Continu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other similar joint cooperation efforts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serve as vital confidence building and civil conflict prevention measures.

For the media, particularl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United States, to be more sensitive to its impact on the conflict and to make efforts to decrease tensions.

Full inclusion of civil society, including women, in efforts for dialogue and resolution.

Dialogue and the creation of a regional framework for peace are absolutely imperative to peacefully resolve this crisis situation and prevent further suffering by citize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s a global civil society peacebuilding network, GPPAC has been working on implementing a civil society-led dialogue on the Korean Peninsula. Emphasising the need for nonmilitary approaches with civil society involvement, GPPAC confirms its dedication to make every effort within our reach to facilitate dialogue amongst all stakeholders, with the aim to contribute to the deescalation of the crisis, denuclearisation and creation of a peace regime for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Northeast Asia region.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해 즉각 대화를 시작하라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PAC)’은 한반도와 주변국들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화와 소통의 자리로 즉각 복귀할 것을 요구한다. 대화만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갈등을 예방하고 비핵화, 평화와 협력을 위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동북아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적 평화안보 메커니즘인 6자회담국 대표 간 회담을 비롯해 북미 간, 남북 간 직접 대화를 가능한 빨리 개최함으로써 대화를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회담을 즉각 개최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동시에 비핵화와 60년이 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와 주변국들 사이에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긴장국면은 현 상황의 위급성,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안감을 수도 있는 중대한 재산악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긴장은 근본적으로 항구적 평화협정이 부재하고, 냉전시대 이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잔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GPPAC은 긴급히 이행해야 할 제안사항을 역내 국가들과 유엔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 지금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고 긴장상태를 줄이기 위해 6자회담 관원국 대표들 간 회담 개최 북미 간, 남북 간 직접 대화 개최 등 대화 테이블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회담 개최를 위해 즉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엔 총회는 평화를 증진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조치들을 지원해야 한다.

▣ 모든 당사자들은 역내 위기를 고조시키고 잠재적 무장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핵 및 미사일 실험, 군사훈련,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조치들을 중단해야 한다.

▣ 갈등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도발적인 언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서울과 평양 사이의 군사 핫라인을 포함해, 차단된 통신선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 신뢰구축 및 민간갈등예방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해온 개성공단을 포함해 남북간 협력

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 언론, 특히 한반도와 미국 내 언론들은 보도가 갈등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민감하게 생각하고 지금의 긴장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대화와 해군 노력에 있어 여성을 비롯해 시민사회를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대화와 역내 평화체제의 구축은 지금의 위기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시민들이 더 이상 고통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 시민사회 평화구축 네트워크로서 GPPAC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 주도의 대화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GPPAC은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비군사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위기상황 완화,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통치와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우리의 힘이 닿는 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간 대화를 가능토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2013년 4월 15일

무장갈등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n the Armed Conflict

해군의 불법공사 저지는 정당행위다. 경찰은 공권력 남용 중단하라!

최근 강정현장에 대해 경찰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동안 각종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 적화경 같은 해군기지 공사장을 비호하던 경찰이었다. 이번에는 불법행위를 자전해서 막으려는 시민들을 협박하고 체포하겠다고 한다. 과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행위를 막으려는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미 밝혀졌듯이 해군은 강정주민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재산인 강정 앞바다를 크게 훼손시켜 놓았다. 그러나 해군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왔다. 제주도와 협의한 내용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해군기지 건설사업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으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이런 해군에 대해 경찰은 그동안 무엇을 해 왔는가.

경찰은 해군이 원하는 대로 충실한 분지기 역할만 했을 뿐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묵묵히 해군의 하수인 역할에만 열중했다. 군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 경찰 공권력의 대응은 너무나 무기력했다. 해군의 불법행위는 국민의 재산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지만 경찰은 이를 묵인하였다. 그리고 해군 앞에 머리 숙인 채 모히러 보호해야 할 시민들을 탄압하기에 이르렀다.

강정마을에서 탄압은 자명하다. 정의를 대변하는 공권력은 죽었다. 경찰의 위상을 보여주느라 저 체복은 강정에서 탄압은 시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무리의 표상이고, 무궁화를 잡고 나는 함수리 형상의 저 배지는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무리의 표식이다. 시민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경찰의 공권력은 시민을 강제하는 폭력으로 변하고 말았다.

우리는 지난 6년 동안 강정마을에서 추진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우리의 활동은 강정마을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었다. 이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우리의 활동목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활동과정에서도 비폭력의 원칙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신념을 지켜왔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의 정당행위에 대해 부당한 공권력으로 탄압해 왔다. 우리의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과도한 기소가 남발되었다.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자행된 폭력행사도 무지

기 수였다. 무리한 체포·연행은 지금까지 500여명이 훨씬 넘는 인원수가 이를 증명한다. 경찰 지휘부가 바뀔 때마다 강경문제의 본질은 희미한 채 불법시위 운운하며 공권력을 남용해 왔다.

우리는 부당한 해군기지 사업에 저항하며 공권력의 탄압을 받아오는 동안 불의에 굴복한 비굴한 경찰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는 강경마을의 공동체와 제주의 환경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권리는 결국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현행법을 위반한 해군의 불법공사 저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경찰이 또 다시 가로막고, 탄압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 시민들을 순간 적리시키고, 체포·연행하고, 심지어 구속까지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의에 저항하는 우리 시민들의 신념마저 가두지는 못할 것이다. 강경의 평화를 얻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저 짓밟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려 경찰에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국언을 지키기 위한 소명으로서 선택한 직업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 당신들의 가족을 아끼고 지키듯이 강경주민과 앞으로 여기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바란다.

우리는 강경마을의 평화로운 공동체가 회복되고, 구럼비 앞바다에 돌고래 떼가 자유롭게 노는 그날을 위해 정부와 해군의 불법적인 사업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평화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3년 4월 25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번도면대책위원회

한반도 평화, 시민이 만들어갑니다

한반도가 여전히 위기입니다. 3월과 4월, 일촉즉발의 전쟁 위협들이 난무하던 그 시기의 포연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서로를 위협하는 총포 소리가 다시 평화로운 땅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담대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을 떨치지는 못합니다. 무엇보다 기대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위기 해소를 위한 평화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적국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물과구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미정상이 언급한 것처럼 평화가 단지 '정보, 감시, 경찰 체계의 면면에 기초한 현대연합 방위력의 강화'속에서 해결될 일이었다면 이 위기는 예초에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인식 속에 내 놓은 것이 작금의 한미해상군사훈련이라면, 평화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민사의 활동가와 전문가, 종교계 인사들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국제 연석회의>(약칭 한반도평화연석회의)를 출범합니다. 우리가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대결과 적대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7천만 한반도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이 나서서 한반도 평화해법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자면 다음의 다섯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조성된 위기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일만쯤은 막아야 합니다. 남북이 모두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군사적 처방을 해법으로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남북과 북미간 취하고 있는 자극적인 군사적 조치들은 모두들, 특히 한반도의 두고한 7천만의 목숨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무장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종류의 군사적 위협, 적대 행위, 과잉대응에 반대합니다. 대결 당사국 정부는 스스로가 상대방에 취하는 위협을 냉정히 평가하여 상호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즉각 취해야 합니다.

둘째, 포괄적인 대화를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대화는 조건 없이 포괄적인 영역에서 재개되어야 합니다. 대화의 실마리는 9.19공동성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19공동성명이야말로 가장 명분 있는 약속이자 모든 이해당사자간

의 포괄적인 공동합의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에는 공동성명이 명기된 그대로 반드시 4자 평화회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 상대를 구축하는 전제조건을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태도가 변화면'이라는 식의 단서를 다는 것은 실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핵개발과 핵무산 강화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대화와 군비증강, 대화와 군사적 대결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대화에는 최소한의 신뢰기반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지닌 무기는 위협이고 상대의 군사적 행동은 도발이라고 규정하면 적 내가 지닌 무기는 억제력이고 내가 하는 훈련은 대비태세 정비라는 사고방식으로는 신뢰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대화 재개와 더불어 핵과 미사일 개발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 양국 역시 상대를 자극하는 합동군사훈련과 핵무산 강화 제회를 중단해야 합니다.

넷째,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핵과 경제건설을 병진한다는 북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경제의 불체조치가 농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지속되어야 하며, 대화 재개와 더불어 경제재개조치도 해제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이 곧 폐쇄되면 협력의 공간을 대체할 것은 현악한 군사시설뿐입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유지되어왔던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개성공단 출입을 제한한 북측의 조치,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 모두 국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통시국의 평화경제협력사업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을 포함한 대북 자원을 총동원하여 북과의 본격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섯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화해협력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를 거쳐 불안정한 휴전상태에 접어든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지난 20여년간 분단 한반도는 해빙과 긴장을 반복해왔습니다. 한반도 군비경쟁은 핵 위기로까지 악화되었고, 온갖 난관을 딛고 이루어냈던 남과 북, 주변국가들과의 숭한 합의들은 다시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휴전 이래 최악의 갈등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음과 위기를 전회위복의 기회로 삼아 휴전 60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여 기밀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골과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군축과 핵 위협의 해소,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정상화, 그리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남북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이 위기 속에 열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반도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잃어버린 사회적 경제적 기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새롭게 열리는 동아시아의 시대를 서로에 대한 증오 속에 상대방과 스스로를 파괴하는 소도적인 적대관계 속에서 맞을 수 없습니다. 군사적 압박과 경제재일변도의 대응은 그동안 실패해왔습니다. 공포와 증오, 우월감과 혐오를 넘어 상호존중과 역사사지의 정신을 발휘하여 모든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오해는 풀고 신뢰는 쌓아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진정한 해결주체는 남과 북입니다. 특히 남한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먼저 평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화비전과 의지가 한반도 문제해결의 열쇠이며 동시에 한반도를 동아시아 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비결입니다.

한반도평화연석회의는 우선 군사적 해법 대신 평화적 해법을 옹호하고, 남북 북미간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대화를 재개하도록 국내외 여론을 형성하는 일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의 입장에서 당국간 대화에서 다루어져야 할 의제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평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국제각종과 함께 행동하고 국제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오래 묵은 한반도 냉전 구조의 해체라는 힘든 과제일지라도 평화의 해결의 원칙하에 일관되고 끈기 있게 발언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스스로 '정부주도 민간대체'와 같은 잘못된 패러다임과 결별해 시민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 우리가 평화의 주체이며 해결의 당사자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시민의 힘으로 열어냅니다.

2013년 5월 15일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국제 연석회의

밀양 청도 송전탑 공사, 폭력강행 중단하라!
지역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원자력발전소 증설 반대한다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을 버림 받기로 내몰았던 765kV 송전탑 공사가 수력댐의 경종의 물리력까지 동원하며 20일 재개되었다. 주민의 동의도 없이 강행해왔던 송전탑 건설은 그동안 지역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극한으로 내몰아왔다. 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비난 여론 등이 한국전력공사를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했지만, 결국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현재 원전의 공사강행과 그것을 지원하는 경찰병력의 투입으로 밀양과 청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故이치우 어르신에 한전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에 저항하며 분신하여 목숨을 잃으신 안타까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절절한 저항은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어찌 댐몸으로 황폐화된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실신하여 쓰러지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재촉되는 폭력적인 공사강행 속에 물리적 충돌과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원전은 이번 송전탑 건설 공사가 '전력난에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하며 건설 중인 신고리3호기 등의 전력 송전에 필수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김재남 의원의 원실에 따르면 기존의 송전선로도 신고리3호기의 송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오히려 현재 계획 중인 신고리 3,6호기의 전력공급을 위한 공사라는 지적이다.

전력난 가중의 문제도 전혀 다당하지 않다. 그동안 원전은 전력피크를 대비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원전의 가동중단으로 예기치 못한 전력난이 발생하는 문제만 있었을 뿐이다. 원전을 짓는 것은 진정한 전력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도 전체 23개의 원전 중에 9개의 원전이 가동 중단되어 있지만, 예비전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진정한 전력난을 대비한다면 철저한 수요관리와 분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유연하게 전력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임에도, 초고압 송전탑 건설문제 해

결을 위해 성실성의를 다해 노력해왔다. 주민들은 정부와 한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했고, 전문가회의를 통한 해법 마련, 월납건설이 아닌 지중화건설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전과 정부는 이에 대해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검토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사강행 관철을 위해 끊임없이 마을 간의 관가르기를 통한 갈등 조장을 부추기고, 돈으로 매수하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밀양과 청도의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 등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만 힘써왔던 전력수급정책의 문제점이 밀양과 청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전력을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산은 물론 송전 과정에서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평등과 불공정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와 대기업들의 에너지 소비를 위해 타전을 빼앗기고, 위험 속에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희생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전기보다 사람이 소중하다. 우리는 지금 밀양과 청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전의 폭력만행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더 이상 밀양과 청도의 어르신들을 사지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밀양-청도 초고압송전탑 공사 폭력 강행을 중단하라!
경쟁병력 철수하고, 대화로 해결하라!
원자력발전소는 전력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지역주민 희생을 강요하는 765kV 송전탑 건설 반대한다!

2013년 5월 21일

책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부금품법 관련 평화박물관 압수수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5월 22일(수) 총도경찰서가 (사)평화박물관진립추진위원회(이하 평화박물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회원명부와 2006년부터 2012년까지의 후원금 내역을 압수해갔다. 이는 '정의로운 시민행동'라는 단체의 대표인을 내세우고 있는 정 모 씨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정 모 씨는 2012년 1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청에 평화박물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 모 씨는 평화박물관뿐만이 아니라 희망제작소, 노무현재단, (재)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재단,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등도 고발하였다. 정 모 씨의 주장을 보면, 시민들의 후원금을 받아 각종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NGO)들을 앞으로도 줄줄이 고발할 태세이다.

정 모 씨의 고발은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지만, 평화박물관과 아름다운재단 등은 그동안 성실히 수사에 응해왔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회원명부를 압수해간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다. 수사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를 후원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고 단체활동의 방해로 의도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정 모 씨의 고발 내용인데, 이것을 빌미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정 모 씨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기부금을 1,000만원 이상 모금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등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한다는 기부금품 4조를 근거로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평화박물관은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 및 기부금의 대부분을 모금하고 있으며, 비회원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일부 모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전등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선 이 모금활동 사전등록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현실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겨레21>의 2012년 8월 31일자 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기부금 단체는 2만9,132개이고 공익단체는 3,164개인데, 이 기부금품법 규정에 따라 모금활동 사전등록을 한 건수는 97건에 불과했다고 한다. 금액면으로 보

민, 2010년 기준으로 연간 한국의 기부금 총액은 10조원을 넘었는데, 모금활동 사전등록 등을 통해 행정관청에 등록한 기부규모는 1,145억원에 그친다고 한다.

다음으로 현재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금활동 사전등록하지 않고서 모금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행정기관의 안내나 통촉요청도 없었다. 이는 사전등록을 받도록 법에 규정된 행정기관도 이 규정을 사실상 현실에 적용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는 이 규정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한 개인이 이 규정을 내세우며 단체들을 고발하기 시작하자, 검찰과 경찰이 마치 먹이를 발견했다는 듯이 수사에 나서고 더 나아가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까지 한 것은 정치적 의도에 따른 공권력 남용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비정부기구(NGO)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을 통해 공익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나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한다.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NGO)들은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비롯해 법률이 정한 세제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단체 운영 및 재정과 관련하여 법규정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각 모금캠페인을 벌일 때마다 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간섭과 사전등록을 요구한다면 후원요청과 후원참여는 위축되고 지체될 뿐이며,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발생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입장을 밝힌다.

첫째, 평화박물관을 압수수색한 검찰과 경찰의 파행수사를 규탄한다.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의 이러한 조사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박근혜 정권 최초의 공안탄압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평화박물관을 포함한 위의 피고단체들은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나아가 이러한 검찰의 파행수사는 박근혜 정부가 누와 강조해온 ‘법치주의’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출범 전주 탈세 등 인사문제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 최근 ‘갑의 횡포와 윤의 눈물’로 표현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제철 등 거대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는 공백도 하지 않거나 매우

느리게 대응하며 출발점이 제대로 밀려하면서 전보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게는 적용되지도 않는 법률 내세워 수사를 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치주의란 결국 권력으로부터 약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정권은 거꾸로 약자, 소수자를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법치를 활용하고 있다.

셋째, 비현실적이고 사회의 발전방향에 거스르는 기부금품법의 모금활동 사전등록 규정을 별마삼아 시민단체 등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옥죄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비정부기구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건강한 시민사회의 유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존재들이다. 이러한 비정부기구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을 고려할 때, 일반 시민들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일상적, 체계적 후원에 대한 기부금품법의 그릇된 적용은 시민들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넷째, 기부금품법의 모금활동 사전등록 규정이 시민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기부문화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촉진에 부합하지 않을을 정부와 정치권이 빨리 인식하고 이를 개정 또는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27일

기부금품법 관련 평화박물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들 일동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건강한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결코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제를넘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주연론시민연합, 경기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북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유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국제민주연대,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KYC,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시민아카데미,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시민교육원, 민주언론시민연합, 부천YMCA, 사월혁명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생태지평연구소, 아름다운재단, 아트스페이스플, (사)우리민족, (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생대보전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애고뚱다, 예수살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여성회전환,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좋은예산센터, 좌파노동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종교교육부모회, 경기지회, 참여연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청주YMCA,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통일맞이,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와통일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YMCA경기도협의회, 49통일평화재단 (이상 83개 단체)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지 일흔이 되었다. 환경과 정부가 정발행력과 용역 등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상대로 물리려까지 동원하며 강행한 공사로 벌써 20여명의 주민들이 쓰러져 병입으로 후송되었다. 아류답고 평화로운 밀양의 마을들은 커다란 프크레인과 날카로운 경찰방패가 주민을 짓밟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

밀양의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밀어 붙이고 있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환경은 '전력난'을 운운하며,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사지로 몰아가며 100m가 넘는 거대한 철탑을 세우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환경과 정부는 신고리3호기의 완공에 맞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변명한다. 하지만 기존의 다른 선로를 활용해 신고리3호기의 전력공급이 불가능하지 않음이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전력난 역시 비리과 위조, 부실관리 등으로 인해 공급중단 된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한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제대로 된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피크를 대비한다면 현재와 같은 사태를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사업을 강행하는 또 다른 이유로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수출계약 조건에 2015년까지 신고리3호기의 100% 가동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묻는 점도 밝혀졌다. 대화를 하자는 주민들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려는 점은 속내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무엇보다 정부와 환경의 책임이 크다. 이미 밀양은 2005년 이후 8년 동안 송전탑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다. 작년에는 故 이철우 할아버지의 분신 사망까지 더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정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대표단은 이러한 상황에 맞서 다 할 수 없는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앞으로 시민사회도 자신의 터전을 지키고자 온몸을 다해 저항해왔던 밀양의 어르신들의 정당함 끝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할 것이다.

전기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다. 지금처럼 정부와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며, 밀양의 어르신들을 보상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한 지역이기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한전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면, 공사부터 중단하고 그동안의 폭력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는 것이 순서다. 그래야 대화도 할 수 있고, 협어도 할 수 있고, 대안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와 한전은 폭력적인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진심어린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5월 2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한국환경회의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남북당국 회담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6.15 공동행사는 꼭 성사되어야 합니다.

지난 3~5일 한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남북 상호이해와 존중, 상생과 통합, 협력과 평화의 관원으로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 6일 6월, 특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특별담화문을 통해 6.15를 계기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자회담을 제의했습니다. 특별담화문에는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 문제 등을 당국 간 회담에서 협의 하자는 특별한 제안들도 포함되어 있고, 민간 교류를 보장하는 문제도 제의하였습니다.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개성공업지구 기업가와 금강산 기업이 관계자의 방문 허용, 민간단체 간 교류 및 협력사업도 제안하였고, 6.15 민족공동행사와 7.4 공동성명발표 41절을 맞아 민간과 당국이 참가하여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하자는 제안도 담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를 다시 열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북한의 제의에 적극 화답을 하여 지난 9일 판문점 남측 구민연 평화의 집에서 실무회담을 갖고, 12일 ~13일 서울에서 당국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였으나 6.15 민족공동행사와 민간교류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6.15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민간에서는 6.15공동행사의 개성 개최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의 방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국자 간 회담이 준비되고 있는 만큼 민간공동행사를 차단할 어떠한 이유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상호신뢰와 평화를 만드는 일에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민간의 활동을 존중하고, 6.15 공동행사가 성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번 당국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을 여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6.15 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하여 민과 관이 한데 모이는 평화와 통일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6.15 민족공동행사 성사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영원히 없애고, 지속적인 평화정착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개성 6.15 공동행사는 성사되고, 개성공단은 재가동 되어야 합니다.
-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은 재개 되어야 합니다.
- 남북당국회담을 적극 환영하며 개성 6.15공동행사가 성사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11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

여성들이 보고 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우리 여성들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리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여론을 호도하는 국정원의 행위를 보면서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은 국가정보기관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특히 선거개입으로 인해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국가정보기관의 막강한 정보 수집력을 악용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집권세력의 권력을 부당하게 연장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권 수사 결과로 드러난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우리 여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제다가 국가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 어이없게도 사건 물타기를 위해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국내·외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계속 국민을 속이고 공작정치를 이어 나감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보여준 모습은 재발방지 차원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행위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지 말 것을 국정원에게 경고한다.

이제 내일(2일), 국정조사 범위와 내용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인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국정조사에 희망을 걸면서도 한편 과연 국회가 제대로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 채 어쨌든 경제타협의 산물로 국정조사가 끝난 예를 정형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결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국정원 정치개입에 대한 실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라.

2.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격히 처벌하라.

3.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사찰 등에 대한 처벌방지를 약속하고,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마련하라.

이번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태를 국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많은 여성들은 현재 정권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 여성들은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정보기관으로서 거들나는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더 이상 유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빼앗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사태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는 불행하고 후진적인 역사가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양심들과 만대할 것이다.

2013. 7. 1

국정원 정치개입에 분노하는 여성 일동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기념식 호소문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년입니다.

7.4남북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 고위당국자가 만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통일의 원칙을 합의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교류 협력 등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담은 소중한 합의입니다. 비록 7.4공동성명이 제대로 이행되지는 못하였습디만, 통일문제를 외세의 개입과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온 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정신은 이후 남북간 합의에 꾸준히 반영되어 오늘까지 계승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패권정책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사회를 휩쓰는 색깔론의 광풍 등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은 7.4 공동성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7.4 공동성명 합의 과정은 남과 북이 언제라도 통일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비록 반목과 대결을 거듭해 왔다 할지라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왔다는 전제어린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소중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평화와 통일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남북 당국대화를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6월 전격적으로 추진되었던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통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채찍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입주민들을 비롯하여 이산가족들의 괴눈물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의 재개, 이산가족의 상봉을 비롯하여 남북간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남북간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을 말해왔던 만큼,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조건 없이 나서야 합니다.

각계 민간 교류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그동안 민간교류는 각계각층 다양한 영역에서 남과 북, 서로간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쌓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체육, 문화예술, 언론,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족공동의 흥

질서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 농민, 노동자, 청년학생, 청소년,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별 만남과 공동사업을 통해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힘을 모아왔습니다. 또한 당국대화가 중단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진장과 대결의 기운을 누그러뜨리고, 평화와 단합의 기운을 북돋는데 각별히 기여해 왔습니다.

통일의 주체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민과 관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정치성 운운하며 배제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습니다.

각계각층 민간교류를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나 일부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냉전과 대결의 가치가 사회를 뒤덮고 평화가 파괴되는 수난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분단과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각계각층 민간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 평화의 실천을 활성화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냅니다.

2013년 7월 4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한국 전쟁 종식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201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긴 제 전쟁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60년이 지난 후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긴장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시민사회 구성원인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 군사적 적대관계와 군비경쟁 상황을 평화협력관계로 대체해야 합니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 2013년을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새로운 평화체제를 향한 그 첫 해로 만들어 가야합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의 지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는 평화협력의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를 토대로 2013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글로벌 캠페인 '한국전쟁 종식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를 전개한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2013년 한국전쟁을 끝내자!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정전체제 그 자체가 남북한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롭고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평화체제 수립으로 억누른 동북아를!

한반도 상의 핵 위기는 동북아시아의 핵위기를 의미합니다. 2005년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에 대한 6자회담국들의 합의를 토대로 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구현하기 위해 국제 프로그램을 제기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 위협을 제거하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동아시아 지역에 평화와 협력을!

동북아 지역은 영도분쟁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이 계속해서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해군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해법은 동아시아의 해상 군사화를 중단하고 갈등과 대치 국면을 협력과 호혜의 상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 상의 군사적 긴장이 아시아 전역에 걸친 군사화, 역사 및 영도분쟁의 고조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13. 7. 27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 국제준비위원회

The Global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Global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and to Sign a Peace Treaty

International Peace Bureau / The Working Group for Peace and Demilitariz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 한미연대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Global Civil Peace Declaration

- End the Korean War and Sign a Peace Treaty!

2013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Hostilities were ended in 1953, leaving numerous deaths and inestimable property damage. Since then the war has not been officially terminated. Sixty years later, the Korean Peninsula still faces an unprecedented level of military tension.

We, people of global society, are deeply concerned that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ave persisted and even increased in recent years. Now we must replace politico-military hostilities and arms races with peaceful cooperation. Let's make the year 2013, the 60th year of ceasefire, a year to progress towards a new peace system by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and signing a Korean peace treaty. The Korean Peninsula should no longer be an area of conflict and dispute, but one of peaceful cooperation in which all countries of Northeast Asia, including North and South Korea, take the lead in realizing a vision of co-existence.

With people's solidarity and support, we declare as below while launching the Global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and Sign a Peace Treaty between 22 July 2013 and 28 July 2013.

End the Korean War! Shift from the armistice system to a peace system!

The armistice system itself has been the primary cause of huge suffering and sacrifice by the people on both sides. I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to transform the armistice system into a peace system to create a peaceful and humane way of life in Korea.

Move toward a nuclear weapons free Northeast Asia by establishing a peace system!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means a nuclear crisis in Northeast Asia. A new approach should be taken, based on the 2005 Six Parties'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Working Group on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Mechanism. Not only efforts to abolish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but also efforts to remove nuclear threats in Northeast Asia are required.

Bring peace and cooperation to East Asia

Military tensions and arms races have intensified in the region due to territorial disputes. Militarization of the region is being accelerated by reinforcing the US-led naval alliance and US-ROK-Japan military cooperation. One possible solution is to stop naval militarization in East Asia and to transform conflicts and confrontation into cooperation and reciprocity.

We believe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closely linked with currently heightening militarization, historical/territorial disputes in all over Asia. We will realize justice and achieve peace not only in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all over Asia in solidarity.

The Global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Global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and to Sign a Peace Treaty

International Peace Bureau / The Working Group for Peace and Demilitarization in Asia and the Pacific / Global Partnership for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Northeast Asia / People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Peace Network / Women Making Peace

일본의 군국주의 반대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성 성명서

2013년 8월 15일은 광복절 68주년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분단된 지 68년이 지났다. 일본의 식민 지배 유산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본은 식민통치와 전쟁 책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보상은 없이 다시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재군사화는 한반도 뿐 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한다.

우리 여성들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일본 군국주의 반대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라.

일본정부는 위안소 설치 관리에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과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담화의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과 다수의 인권협약기구들이 일본 정부에게 국제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공식적인 사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국제적인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우리는 숭한 필박과 고통을 당했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를 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본군의 '희생자'에서 역사의 '생존자'로서 전쟁 중에 여성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당당히 밝힌 할머니들의 그 광범 용기를 기억하며, 역사적 진실을 일본인들이 겸허하게 인정하고 국제적 권고를 실현하기를 촉구한다.

2. 일본정부의 평화헌법 개정 시도를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및 헌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헌법 9조를 통해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엄격히 금지'하고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다. 그러나 아베총리는 헌법 9조 개정을 통해 일본이 군사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일본이 저지른 침략전쟁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에서 나온 역사적 산물이다. 일본 평화헌법의 개헌은 단순히 일본의 군사대국의 길을 여는 차원

을 넘어서 헌법의 정신적 배경인 침략의 과거에 대한 반성을 부인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정부가 헌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평화헌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일본의 군사화에 따른 동북아 군비경쟁을 반대한다.

일본은 군사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하는 암묵적 제한이 있지만 2012년도 일본 군사비가 4조 6500억 엔(533억 달러)에 달했다. 일본은 세계 6위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선진화된 군대를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며 군사비를 11년 만에 증액하였다. 일본의 군사비 증가는 평화헌법 개정과 맞물려 동북아 국가들이 일본의 군사화에 큰 우려를 갖게 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정책과 군국주의로 크나큰 피해를 당한 우리 여성들은 일본정부가 과거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주변의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 일본은 군사력 확장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의 예방, 평화권의 법제화, 평화 헌법의 증진, 군사비 감소를 통한 평화의 확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4. 일본정부는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이행하라.

지금 유엔과 각국 정부는 2000년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문 1325호 및 5개추가 결의문을 이행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안보리 결의문 1325호와 추가결의문들은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평화 형성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20세기 식민지와 전쟁을 경험하며 일본정부의 성노예를 포함한 전쟁범죄를 목격하였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국가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군국주의 부활을 시도하고 일본군'위안부'를 부정하는 것은 안보리 결의 1325호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일본은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또다시 분쟁의 권을 열게 될 군국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일본이 역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국가로서 거듭 나길 촉구한다. 그것만이 전쟁으로 승지고 고통 받은 영령들, 생존자와 그 후손들에

게 사회하는 것이며 평화의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여성들은 평화 형성의 주체로서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기억하며, 일본 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해 과거사를 진정으로 반성하여 평화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본의 여성 및 평화세력과 연대하며, 일본의 군국주의 행동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는 길에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3. 8. 14

1325 네트워크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교민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여성여는전주교여성공통체, 새유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옹호지원하는사람들, 여성평화의교포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성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주한미군현역군절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친인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인권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총45개 단체)

日本の軍国主義に対する反対と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の女性の声

2013年の8月15日は68周年日の光復節である。日本の韓半島侵略により植民地支配を受け、分断されてから68年が経った。日本の植民地支配の遺害や日本軍「慰安婦」問題は未だ解決されずにいる。日本は植民地統治や戦争責任に対する誠意ある謝罪や補償をせず、再び軍事化を進めている。日本の再軍事化は朝鮮半島のみならず、東北アジアの平和を脅かすものである。私たち女性は、こうした深刻な状況から、日本の軍国主義に対する反対と東北アジアの平和のために次のように訴える。

1. 日本政府は日本軍「慰安婦」問題を解決せよ

日本政府は慰安所の設置・管理における日本軍の関与を認めて謝罪と反省を表明した河野談話の修正を図っている。女性に対する反人道的犯罪にあたる日本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国連と多数の人権協約団体は日本政府に国際法違反に対する法的責任の自認、公式な謝罪、被害者に対する補償、歴史的事實に関する教育などを継続的に勧告してきた。しかし、日本は国際的な勧告を引き續き無視している。

私たちは、測り知れない屈辱感と苦しみを受けてきた日本軍「慰安婦」、ハルモニたちの勇気を忘れることはできない。私たちは、日本軍の「犠牲者」から歴史の「生存者」として戦争中に起きた女性に対する反人道的犯罪を究々と明らかにしたハルモニたちのその勇の勇気を記憶し、歴史的眞實を日本人々が謙虚に受け止め、国際社会からの勧告を實現することを求める。

2. 日本政府の平和憲法改定の動きに反対する

日本政府は集団的自衛権及び憲法の改定を進めている。日本は憲法9條をもって「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し、「明らかな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と決議している。しかし安倍総理は憲法9條の改定を通じて日本が軍事力を拡大できる根拠を整えるために力を使っている。

日本の平和憲法は、日本が犯した侵略戦争を二度と繰り返さないという反省から生まれた歴史的産物である。日本の平和憲法の改定は単に日本の軍事大國への道を開くこと以上に、憲法の精神的支柱にあった侵略の過去に対する反省を否認する象徴的な行爲になるであろう。

従って私たちは、日本政府が憲法改定に向けた作業を直ちに止め、平和憲法を固守することを強く求める。

3. 日本の軍事化に続く東北アジアの軍備競争に反対する

日本は軍事費を国内総生産（GDP）の1%以内とする暗黙的制限を持っていたが、2012年度の日本の軍事費は4兆6,500億円（533億ドル）に達した。日本は世界第6位の規模の軍事費を費やしており、アジアで最も大きく、最先端の軍隊を保有する国の一つである。安倍総理は日本の軍事力強化を迫り、軍事費を11年ぶりに増額させた。日本の軍事費の増加は平和憲法の改定と相まって東北アジアの国々に日本の軍事化に対する恐怖感を持たせ、東北アジアの国々の軍備競争を誘発している。

日本の植民政策と軍国主義により大きな犠牲を強いられた私たち女性には、日本政府が過去を直視して反省し、周囲の信頼を得ることを願う。日本は軍事力の拡大による平和ではなく、紛争の予防、平和維持の法制化、平和憲法の増進、軍事費の削減を通じた平和の擴張を求めるべきである。

4. 日本政府は「女性・平和・安保に関する国連の安保理決議1325号」を履行せよ

今、国連と各国政府は、2000年に安全保障理事会が採択した決議文1325号及び3つの追加決議文の履行に積極的に乗り出している。安保理決議文1325号と追加決議文は紛争を予防・解決し、平和の形成における女性の参加の重要性を再確認し、平和・安保の分野において女性の役割の拡大を強調している。また、戦時性暴力から女性を保護するという強い意志を掲げ、履行を約束している。

私たちは、20世紀の植民地支配と戦争を経験しながら、日本政府の性奴隷を含む戦争犯罪を目撃した。日本は戦争を起こした当事者として責任を負わなければならない国家である。日本政府が「過去の歴史」に対して責任を取らず軍国主義の復活を図り、日本軍「慰安婦」を否定することは、安保理決議1325号の精神を否定する行為である。日本は安保理決議1325号を積極的に履行し、少しでも紛争の道を閉くことになろう軍国主義の武力を直ちに止め、強く求める。

私たちは、日本が歴史を深く反省し、誤った過去が繰り返されないよう、平和国家として生まれ変わることを更に求める。それこそが、戦争で死と苦しみを経験した人々の魂、生存者、そしてその子孫に謝罪する道であり、平和の未来に希望を持たせる唯一の道である。

私たち女性は、平和形成の主体として日本軍による性暴力の被害女性たちを記憶し、日本軍「慰安婦」問題を始めとする過去の歴史を心から反省して平和憲法を守るために努力する日本の女性及び平和勢力と連携し、日本の軍国主義的行動を阻み、東北アジアの平和と歴史を追究する道を共にす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

2013. 8. 14.

1325ネットワーク

京畿女性団体連合、慶南女性団体連合、慶南女性会、光州全南女性団体連合、基督女民会、基礎地女性人権連帯、大邱慶北女性団体連合、大邱女性会、大田女民会、大田女性団体連合、大田平和女性会、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釜山性暴力相談所、釜山女性団体連合、釜山女性社会教育院、新しい世界を開くカトリック女性共同体、セウムト、性暴力問題の解決のための全国連帯、水源女性会、女性社会教育院、女性の人権を支援する人々、女性平和外交フォーラム、女性政治勢力民主連帯、蔚山女性会、全北女性団体連合、済州女民会、済州女性人権連帯、駐韓米軍犯罪根絶運動本部、目的教育のための全国父兄会、天安女性会、平和をつくる女性会、清州女性会、韓国性暴力相談所、韓国女性労働者会、韓国女性団体連合、韓国女性民友会、韓国女性性暴力相談所、韓国女性研究所、韓国女性の電話、韓国女性障害者連合、韓国女性政治研究所、韓国女科学者協議会、韓国移住女性人権センター、韓国YMCA連合会、ともにする主婦の会（計45団体）

공 통 보 도 문

일제강제병합 103년이 되는 8월 29일을 맞이하여, 남과 북 여성단체는 중국 심양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대표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는 북측에서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여성부성원들이, 남측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평등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평화유망드는여성회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남과 북의 여성들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 범죄의 국가책임 을 부인하고,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과거 우리민족에 대한 침략 역사를 왜곡하고,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정책을 강화하며, 평화헌법 개악 시도와 야스루니 신사 참배 강행 등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군국주의 부활시도에 대해 큰 우려와 분노를 표시하며 이에 대응하는 연대활동을 적극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11월 초에 일제에 의한 불법무도한 [속사5조약] 날조 108년을 계기로 남과 북, 해외 여성단체들이 함께 참가하는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도론회]를 합의되는 장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의 여성들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데서 여성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우리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집중과 다양한 활동들을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3년 8월 29일

중국 심양

핵발전 확대정책의 희생양,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중단하라!

다시 밀양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주석 직후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을 밝힌 후, 반대 대책위 주민들에게 한가위는 풍성하고 즐거운 연휴일 수반은 없었다. 지난 9월 초, 정홍원 국무총리의 밀양 방문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고, 주민들에게 남은 상처는 그 깊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정부는 보상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평한 에너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했다.

주민 동의도 없이 '자칭 대표'에 의해 체결된 보상안 합의로 송전탑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였으며, 보상안으로 내놓은 현금 개별 보상도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 태수를 통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국무총리가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 실시한 반대 서명에서 나올 만해 전체 정과지 주민의 2/3에 육박하는 2,116명(9월22일 12시 기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밀양 주민들이 지금껏 수없이 밝혀왔듯,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지난 8년간 싸워오지 않았으며, 정부와 한전은 이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영터리 보상합의안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최근 한전은 주민들을 전방위로 압박해 왔다. 26명의 반대 대책위 핵심 일꾼들에게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고, 동화전다을 대책위원장 김장희씨가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 5월 공사강행 이후 구성되었던 전문가협의체가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도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후, 한전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보이려는거녕 출몰 이런 식이었다. 주민측이 제안했던 사회적 공론화 기구도 무시하고, 텔레비전 토론도 거부하면서 오로지 공사강행 명분만을 팔아온 것이다.

그러나 한전과 정부가 말하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의 시급성은 논리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그들이 전력수급을 위해 소위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은, 부분성적서 위조로 인하여 한수원 조차 가동은 물론이고 완공 시기가 언제가 될지 계획을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밀양 송전선로 공사 기간이 최소 9개월, 신고리 3호기 시운전 기간이 최소 6개월가량 걸린다고 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전력계통에 병합되는 시점은 부분성적서 위조로 인한 공사 지연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내년 겨울이 되어야 가능하다. 한전은 이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여름철 전력 수급 문제로 공사가 시급하다는 영터리 논리로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3년이 가깝도록 수습은커녕 일본 원도와 세계를 전대미문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후쿠시마 사태를 보라. 남동버리, 인사청탁 등 일단 드러나기 시작하자 끝도 없이 밝혀지는 버리의 총합력화경, 원전버리의 실상을 보라. 핵발전의 시대는 끝났다. 국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공포와 원전버리 사태를 보며 이제 핵과피아의 실재를 알게 됐고, 핵발전 중심의 정책에 피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대로 추진되는 핵 발전 확대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봉자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가 고리 핵발전 단지에 무려 12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밀어붙일 태세고, 그 일환으로 밀양 송전탑을 건설하려 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밀양 주민들의 8년 싸움을 통해, 우리는 힘없고 약한 자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의 실체됨, 그리고 우리와 아이들의 미래를 한없는 공포로 만드는 핵발전의 실재를 알게 되었다. 밀양 어르신들의 싸움은 당신들의 생존권 싸움을 넘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한 시스템 속에 유지되어 왔는지를 드러내주었다. 그리고 수십 년 간 마음대로 발전소를 짓고 마음대로 송전선로를 잡아 송전해 온 방식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역설해 주었다. 그 가운데 어떤 전문가와 단체들도 해내지 못한 정책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고, 도순원 전역산업과 핵발전의 실체를 알려낸 어르신들의 싸움에 눈물겨운 지지를 보낸다.

이제 밀양송전탑 반대의 저변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공사가 강행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탈핵희망버스와 희망봉고를 타고 현장으로 달려갈 것이고, 서울에서도 릴레이 1인 시위, 촛불문화제 등이 멈추지 않고 열릴 것이다. 이제 밀양송전탑은 더 이상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전기를 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되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밀양송전탑 건설 계획은 핵발전 확대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지금은 밀양송전탑 공사가 시급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굶아먹는 핵발전소를 멈출지,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다. 지역의 희생을 타고 흐르는 권력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다.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밀양 송전탑 전문가협의체에서 제기된 기존선로 용량 증대 방안, 지중화 방안을 포함하여 밀양 송전탑 문제를 다룬 사회적 공론화기구를 구성하라! 그리고 고리의 늪은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고리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을 전면 교체하라!

2013. 9. 23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협상 중단하라!

1. 불법 부당한 미군주둔비부담금 전용과 남용을 막을 강치를 마련하라

한미당국이 9차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4차 협상을 9월 25~26일, 워싱턴에서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8월 하순에 열린 3차 협상에서 미군주둔비부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 온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적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앞으로 다른 용처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미사용-미집행액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비 전용은 (LFP) 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의 ‘알해’(understanding)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

정부의 제도개선 제안이 의미가 있으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주한미군사령부가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빼돌려 쓰다 남은 7,380억원(2013년 4월 현재)을 우리 국고로 환수하고, 8차 협정 기간(2009~2013년) 동안의 감액분(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 3,035억원을 이후에도 지급하지 말며, 2013년도 이월액 2,596억원과 불용액 합계 512억원도 국고로 환수하거나 차기 협정에 반영하여 해당하는 액수만큼 감액해야 한다. 이 모든 금액이 불법 전용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이 책정되어 한미당국이 총정리정리 쓰기도 남아도는 돈이기 때문이다. 미 의회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공돈(free money)’처럼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국방부조차 2012년에 미군주둔비부담금 미집행금(이월액) 중 16억8천만원을 남수단 과병비로 전용한 사실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미군주둔비부담금의 불법 전용을 원칙적으로 사전 차단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통제와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도 한미 간에 맺은 협정과 우리나라의 법도 무시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희면한 채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쫓아다니는 태도를 버리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2. 남아도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환수하고 차기 협정에도 반영하라!

미국은 폭력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군주둔비부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군주둔비부담금 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을 한국인 월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커티스 스카파로디 주한미군 사령관이 7월 30일에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연합토지관리개혁 재정협정(LFP)에 따른 미국 부담 비용은 8억8460만 달러(약 8846억원)로 추산된다”면서 “나머지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거나 한국 정부에서 직접 부담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 준다.

2014년 미군주둔비부담금 총액과 관련하여 미국은 1조원 이상을, 한국은 2013년 부담금 8695억원에서 삭감을 주장하여 양국 주장의 차액이 2천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그런데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액과 편성액의 차액(감액분)에 대해 채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9차 협정을 체결하면서 감액분에 대해 추가적인 지급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2013년 부담금 8695억원에 비해 2014년 부담금이 명목상 일부 삭감되더라도 감액분이 합쳐지면 실제로는 최소한 9천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쓰다 남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모두 합쳐 2013년 말로 계산하면 무려 1조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당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제멋대로 쓰고도 1조4천억 원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소한 9천억 원 이상을 미국에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입만 열면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노인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정부 재원 부족으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후회하는 상황에서 한 톨의 국민 월세라도 하루루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란 건가.

마침 내일(26일) 2014년도 예산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우리 국민 월세가 1조 4천억 원이나 되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한 두 해 주지 않고 건너뛰어도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3. 한미SOFA에 위배되는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폐기에 나서라!

근본적으로 미군주둔비부담 협정은 미군 주둔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 SOFA 5조 위반이다. 예외적이고 한시적으로 맺어진 특별협정이 20년이 넘게 계속 갱신되면서 이제는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협정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는 더군마 주둔할 때부터 이미 미군기지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카투사나 경찰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등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의 성격이 복을 상대로 한 불막이 군대에서 전례

계 분쟁에 언제든지 개입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렇듯 달라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변화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존재해야 할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지급할 때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기지의 임대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부담하고 굴욕적인 부담을 안기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줄이고 문제점을 시정하며, 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2013. 9. 25.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

SOFA개정국민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남북평화재단/노동인권회관/녹색연합/미선호순추모재단입원위원회/민가협실심수추진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추진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사월해당회/새물약사회/시민평화포럼/우리민족연방재통일추진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조국통일법민족연합난곡본부/주한미군범죄구결운동본부/참여연대/통일광장/통일맛집/통일의길/평택평화센터/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바다/평화박물관/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통일시민연대/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총 35개 단체, 가나다순)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무기거래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개최되는 ADEX 무기전시회(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13)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무기사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기거래가 필연적으로 야기하는 분쟁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의면한 채 몇 백억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로 진행되는 방위산업전시회를 비판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정책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첨단과학기술, 수출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기전시회가 사실은 치명적인 파괴력과 정밀성을 갖춘 각종 살상무기들의 생산, 개발 및 거래를 촉진시킨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더 좋은 성능’, ‘다양한 무기체계’라는 말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력’, ‘다양한 살인·과도 방법들’이란 뜻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무기사용으로 인한 민간인의 희생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원적 무기조작으로 인한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제임해줄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파키스탄과 예멘에서는 무인공격기 드론(Drone)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의 수는 여성과 노인, 아이들을 포함해 3000명이 넘습니다.

이에 더해 인간의 개입 없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목표물을 파괴 또는 살해하는 전자통로 무기 무기의 개발 및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지난 4월 일명 ‘살인로봇’이라고 하는 ‘치명적 자동 로봇(Lethal autonomous robotics, LARs)’의 개발 및 사용을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전자통로 또는 반자동 무기 생산국들에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때까지 이에 대한 심의, 생산, 조립, 사용을 일체 금지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한국은 삼성테크윈이 개발한 경찰용 로봇을 베히루지대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원거리에서 사람이 작동하더라도 있지만 ‘자동모드’ 성능을 갖춘 모델로 ‘살인로봇’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무기들의 비인도성이나 인간성 말살의 문제, 무기 수출로 인한 분쟁 지역의 갈등 심화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무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역대 정부들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 수출주력사업으로 육성해 왔으며,

박근혜 정부 역시 방위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 왜냐한다고 강조하며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명을 달보로 하는 무기산업을 국가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은 윤리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는 대상국에는 터키,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가 혹은 소수민족을 탄압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산·수출한 무기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거나 위협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산업을 여타 다른 수출산업들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헌법이 규정하는 평화주의 원칙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무기수출 장려정책을 재검토하고 그에 맞는 규제를 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평화군축박람회도 방위산업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시하고 사회 전반에 군사주의 문화를 확산하려는 정부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최근 정부와 군 당국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준군사교육에 가까운 안보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확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살상무기를 직접 조작하게 하고 적개심을 주입시키는 병영형프로그램 교육이단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의 건인격적 성장과 우리 사회의 평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무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어린이를 무기 전시에 동원하고 무기산업을 장려하는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첨단무기에 대한 환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무기사용의 희생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함께 아파하는 평화적 감수성이며, 안보교육이 아니라 평화교육입니다.

지난 60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의 구실이 되어 왔습니다. 최근 한반도는 전혀 없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경험하고 또 다시 냉전시대 이데올로기의 기치아래 더욱 심화된 군사주의와 분단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 군사적 수단으로는 결코 갈등과 긴장관계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안보' 명목으로 증가하고 있는 군비와 무기도입 및 개발에 적극 반대하며, 정각 및전으로 일어난 시민의 '안전'과 평화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치적, 군사적 적대관계를 평화적 협력관계로 대체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알 수 없습니다!

2013년 10월 28일

평화군축박람회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21개 단체)

왜 한국의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리는가

최루탄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적이었다. 독재 권력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막기 위해 최루탄을 쏘았다. 그 와중에 1987년 이한열, 1960년 김주일의 죽을 같은 비극이 일어났다. 최루탄 사용이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자 한국 정부는 1999년부터 최루탄을 쓰지 않고 있고, 한국 기업이 만든 최루탄을 외국으로 수출만 하고 있다.

수출된 한국산 최루탄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6월에도 터키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향한 공권력의 폭력적인 진압과정에서 터키 경찰이 최루탄을 남용해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다. 그때 사용된 최루탄 중에서도 한국의 대장화공에서 생산한 최루탄이 발견되었다.

지금 바레인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바레인 보안군은 한국 업체인 (주)대장화공과 (주)CNO Tech에서 만든 최루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시위를 진압할 때는 물론이고 시위가 없을 때도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을 직접 발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주택 안으로 최루탄을 쏘고 있다. 인권단체 'Physician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바레인에서 최루탄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최소 39명에서 최대 2백여 명이며,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다. 사망한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바레인에 가장 많은 최루탄을 수출한 곳은 바로 한국의 두 기업이라고 한다.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한국 기업들은 바레인에 최루탄 130만 발을 공급했다. 또한 최근 공개된 바에 따르면 바레인 당국은 최루탄 160만 발을 추가로 수입할 예정이며, 한국 기업을 역시 최루탄을 계속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레인 당국의 최루탄 남용에 대해 알려지자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2011년 바레인에 최루탄 수출을 중단했다. 최근에는 비관적 지식인의 대표적인 노엄 촘스키 교수와 노르만 펠렛슈타인 교수, 세계적 다류언터러 제작자인 존 필저 등도 한국 등은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무기거래조약 서명국이다. 서명국으로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무기류를 계속 수출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사안이다. 한국 정부는 무기거래조약 제6조(금지)와 제7조(수출 및 수출평가)를 강력적으로 적용하여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7조 제4항 ‘국제평화·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방산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최후탄 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바레인에 한국산 최후탄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바레인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데 쓰이거나 쓰일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최후탄 수출 허가를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0월 31일

개척자들, 경제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울산비군기지피해상감소,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노동자연대다함께, 대전평화여성회, 충북아평화교육훈련원(NARPI), 무기거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전평화연대(총), 비폭력평화물결, 생명평화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고직원노동조합,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청년과파, 통일맞이, 플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웍, 평화물단드는여성회, 평화바다, 평화박물관, 평화의친구들, 평화통일 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총 31개)

No more tear of Bahrain people caused by made-in-Korea tear gas canisters

Tear gas was heavily used during democratic movement in Korean history. The dictatorship applied tear gases against the people to suffocate the desire for democracy. Direct application of tear gases caused the lives of Han-yeol Lee (1987) [whose death sparked June Democracy Movement and introduction of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as well as Ju-yool Kim (1960) [whose death led to April Revolution which toppled South Korea's the first president]. Because tear gases have caused many problems the Korean government has stopped using it since 1999. The Korean companies now produce tear gas canisters only for export purposes.

This is not the first time that tear gas canisters exported from Korea turned out to have problems. In June 2013, the Turkish police applied them against peaceful protesters with many injured. Among the canisters used at Turkey were ones produced by Daekwang Chemical, a Korean company.

The situation in Bahrain is known much worse. The security force in Bahrain has continuously used tear gas canisters produced by Daekwang Chemical and CNO Tech from Korea. Not only do they use it against the protesters, but they also use indiscriminately even when there is no protest ongoing. It is revealed that they even shot it into residences. Physicians for Human Rights have reported that at least 39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in Bahrain due to tear gas since 2011 and that the actual death toll may be higher than 200. Much more people have been injured. Teenagers, seniors and disabled people were not spared by security force.

It was reportedly the two Korean companies that exported the largest quantity of tear gas canisters to Bahrain in 2011 - 2013. The Korean companies exported 1.5 million canisters to Bahrain in 2011 - 2012. Recently, it was revealed that Bahraini government is planning to import 1.6 million canisters more and Korean companies are also willing to export more.

Acknowledging that Bahraini government is abusing tear gas canisters, several countries including United States banned its exportation to Bahrain. Lately, well-known intellectuals Noam Chomsky and Norman Finkelstein, famous director John Pilger and many more have also urged that the countries including Korea should stop exporting tear gases to Bahrain.

South Korea has signed the Arms Trade Treaty (ATT). It is an internationally alerting issue for ATT signatories to export weaponry to the country whose usage is likely cause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pply in the interim Article 6(Prohibitions) and 7(Export and Export Assessment) of ATT and immediately ban tear gas exportation. Also,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an agency which give permission to export) should ban tear gas exportation according to Article 57 of the DAPA Law, which states that 'DAPA may prohibit exportation of defense products in order to secure world peace, global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 Immediately stop exporting Korean tear gas canisters to Bahrain!
- DAPA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stop permitting tear gas exportation to Bahrain and all the other countries which are likely to use it in a way to cause severe human right violations!

October 31, 2013

더 이상 한국산 최루탄이 바레인을 울려서는 안 된다

지난 수요일인 11월 27일, 바레인워치(Bahrain Watch)와 바레인의 민주주의 및 인권을 옹호하는 여국민들(ADHRB)은 한국 최루탄 생산기업 '대정화공'을 상대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한국 국내연탄사무소(NCP,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통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기업활동 중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거나 이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제기서 제출단체인 바레인워치는 임수환 정부의 임찰서류를 근거로 바레인 왕정이 최루탄 160만 발을 추가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대정화공이 현재 대규모 최루탄 수출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통 단체는 지난 2년간 바레인 내에서 최루탄의 남용으로 인해 확인된 것만 최소 39명 이상이 숨지는 등 최루탄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며, 만일 한국 정부가 대정화공의 최루탄 수출을 승인한다면 바레인 시민들의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는 바레인워치의 이 같은 판단과 이의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지며, 이는 당연히 무기의 이전 시에도 적용된다. 수입된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데에 사용될 가능성이 명백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에 무기 수출을 승인하는 것은 사실상 그 같은 인권침해 행위를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 정부는 대정화공과 CNO Tech 등 자국 기업이 수출하는 무기가 해외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동안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막지 못함으로써 그 같은 책무를 저버렸다. 경찰청은 해당국 인권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수출을 승인해주었으며 최종 수출허가 결정인 방위사업청은 지난 2년간 대정화공 등이 바레인으로 허가 없이 최루탄을 수출해온 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상의 책임을 방기해왔다. 방위사업청은 불법적으로 최루탄을 수출해온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바레인으로의 추가적인 수출신청을 절대 허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또한 이 업체들이 제3국을 경유해 최루탄을 재수출하는 등 전법을 동원해 바레인으로의 수출을 관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이

국제적으로 크게 비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감시의 눈을 피해 대광화공과 CNO Tech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제3국을 경유해 최루탄 수출을 시도할 가능성에 우려가 높다. 인권침해 우려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무기 수입에 제재를 받는 국가가 관련 범규가 허술한 인접국이나 동맹국을 경유해 무기를 재수출 또는 불법 전용한 사례는 허다하다. 당장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최종사용자(End User)로 명기된 무기를 파스펄로 시리아 반군에 불법 전용했다는 증거가 2012년 BBC 보도에 의해 드러난 바 있다. 우리는 불법 전용의 위험성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대광화공과 CNO Tech가 바레인 인접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최루탄을 수출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발위사엄정에 바레인뿐만 아니라 불법 전용이 의심되는 인접국 등을 통한 수출 신청 역시 전면 불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1월 26일, 알라빈 알리모하메드 알불라흐만 인권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바레인 정부 대표단이 한국을 찾아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자리에서 인권장관은 "인권분야에 있어 일부 인권단체, 언론 등이 제기된 의혹을 제기하며 바레인인 국제적 평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바레인위치 등의 단체들은 바레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바레인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루탄 수출 승인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과도한 무력사용, 최루탄 남용 등으로 인한 바레인 치안군의 중대한 인권침해는 이미 수많은 국제NGO 보고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외교부는 바레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국방부·방사청과의 관계부처 협의를 이끌어 바레인으로의 추가적 최루탄 수출을 막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바레인 민중들의 인권을 짓밟는 데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깊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에 따라 지고 있는 인권보호 책무는 자국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국 기업에 의한 타국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 최루탄 수출 금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책무를 다하도록 감시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바레인 민중들과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산 최루탄 수출이 중단될 때까지 우리의 활동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의거 바레인위치 등이 제기한 이외세기에 전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한국정부에 대광화공과 CNO Tech 등이 추진하고 있는 바레인으로의 최루탄 수출을 전면 불허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바레인뿐 아니라 인접국 등을 통한

불법 진용이 의심되는 수출 신청 역시 전면 불허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한국산 최후판이 바테인을 올려서는 안 된다.

2013년 12월 4일

바테인으로의 최후판 추가 수출 금지 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장계를 넘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남북
평화재단, 노동자연대다함께, 무기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비폭력
문화운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세상, 주한미군범죄근
절운동본부, 함어연대, 원주교인권위원회, 청년과파,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
트워크, 평화불만드는여성회, 평화의친구들 (이상 23개 단체)

【 부록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13년 발간자료 목록

2013년 발간자료 목록

발행일	자료명
2013-01	학생갈등해결을 위한 토대조정자 활동교재
2013-01	학생갈등해결을 위한 토대조정자 훈련 교사용 지도서
2013-05-22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자료집
2013-07-01	여성과 정전협정 60년 학술토론회 자료집
2013-08-25	청소년을 위한 갈등해결교육 교안집(4권)
2013-11-14	갈등해결센터 10주년 자료집
2013-11-26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와 여성평화리더십 책자
2013-11-28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여성단체의 제안서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평화여성회의 회원이 되시면,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관심분야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 원 가 입 서

기본 사항	이 름	(단체명)	성 별	☐ 남 ☐ 여
	주민번호		이동전화	
연락처	집 주소			
	집 전화	(지역번호)	우편물 받을 곳	☐ 주택 ☐ 직장
	직장주소	(우편번호)		
	직 장 명		소 속	
	전자메일		직장전화	
회비 납부 (CMS자동 이체)	거래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이 체 일	☐ 10일 ☐ 25일
회비	일반회원	☐ 월1만원 ☐ 월2만원 ☐ 월3만원 ☐ 기타(일금 원/월)		
	명상/특별 회원			
관심 분야	☐ 정세대응 ☐ 통일과제 ☐ 국방과제 ☐ 남북교류 ☐ 갈등해결 ☐ 전쟁반대 ☐ 평화교육 ☐ 평화문화 ☐ 여성운동 ☐ 기타()			
가입 동기				
가입 일자	20 년 월 일			

후원계좌 : 398-810005-03104 (하나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347-01-0018-351 (국민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14년 제18차 평화■만드는여성회 정기총회

발행일: 2014년 1월 23일

발행인: 여혜숙, 김정수, 정경란

발행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편집: 최민정

인쇄: 장두 지원단

